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1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언택트시대,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세상과 만난다. - 1. 교육					
기사내용	<p>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면 바로 학생들일 것이다. 입학식은 고사하고 학교 교문조차 통과를 못한채 반년이상의 시간을 보낸 초등학생부터 고액의 수업료를 납부하고도 캠퍼스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대학생까지.. 그 힘겹고 막막했던 시간을 보내며 다행히 대안을 찾았고, 이런 온라인 강의가 대중화 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했다.</p> <p>각종 기관에서 개최하는 강의들 역시 오프라인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의 경쟁률이 현저히 높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교통약자 역시 집에서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도 아낄 수 있고, 장소를 이동하는 시간이 불필요하니 앉은자리에서 단시간에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등 장점이 상당히 많다.</p> <p>온라인 수업은 지역 내 한정된 강사분들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직접 타 지역 선생님들의 강의를 경험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온다.</p> <p>어쩌면 지역별 학습격차가 심화되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p> <p>이런 현상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와 과외를 매칭시켜주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몇가지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p> <p>유명 강사들의 특성있는 수업들의 샘플수업을 보고 단기 특강부터 시즌특강까지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꾸그 (<a href="http://www.gguge.com">www.gguge.com</a>)’, 유명대학 학생들의 과외를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월간대치동(<a href="http://www.dailydaechi.com">www.dailydaechi.com</a>)’, 모르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관다애플(Qanda), 거기서 확장된 관다과외(<a href="https://tutor.qanda.ai">https://tutor.qanda.ai</a>) 가 대표적이다.</p> <p>수업은 실시간 ZOOM으로 이루어지며, 각종 이벤트를 통한 1회성 무료특강부터 월간 5만원 가량으로 소수정예 과외수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ylem726/222954237044">https://blog.naver.com/ylem726/222954237044</a>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2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언택트시대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세상과 만난다. - 2. 소통					
기사내용	<p>어느새 직접 얼굴 맞대고 만나는 것보다 랜선 만남이 익숙해져 버린 요즘 소통의 방식이 변했다. 그중 하나가 브런치 모임이다.</p> <p>브런치모임은 다과를 나눌 만큼의 친분을 쌓은 전업주부들이 직접 만나 서로의 목소리와 표정을 읽고 감정을 나누는 모임을 통해 학원과 학교등의 교육 정보를 중심으로 요즘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 내 주요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활동이었다.</p> <p>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스마트폰을 들고 소통을 한다. 수십년간 전업 엄마들의 전유물이었던 브런치 모임을 대체할만한 소통창구로 옮겨간 것이다.</p> <p>이 새로운 소통창구는 수년 전부터 주제별로 특정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을 모집하여 운영되던 온라인 카페를 통한 커뮤니티이다. 꾸준히 존재해 왔고 인기도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인기와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며 특정 주제와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상다반사를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p> <p>사람들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 소통창구를 통하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오히려 아는 사람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민거리와 감정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 <p>너무도 편하고 실속 있다 보니 오프라인 만남이 자유로워진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p> <p>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 커뮤니티 몇군데를 소개하자면 결혼 관련 커뮤니티 네이버카페 '레몬테라스', 네이버카페 '웨딩공부' 임신 출산 육아관련 커뮤니티 네이버카페 '맘스홀릭베이비', 네이버카페 '지후맘' 지역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이버카페 '행복한강릉맘' 초등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카페 '도치맘카페', 네이버카페 '초등맘' 등이 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ylem726/222954306262">https://blog.naver.com/ylem726/222954306262</a>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3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언택트시대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세상과 만난다. - 3. 쇼핑					
기사내용	<p>어느날 부터인가 장을 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다. 집에 앉아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살 수 있는 편리함에 익숙해졌다.</p> <p>40대인 필자가 온라인쇼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젓먹이 아기를 데리고 외출이 불가하여 인근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배달요청 구입하면서 부터였다. 이젠 단순 외출하기 불가능 해서 온라인 쇼핑을 선택하지 않는다.</p> <p>어떤이는 온라인쇼핑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총동구매 방지라고 말한다.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에는 본인이 장바구니에 도대체 얼마나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계산대에서 금액을 듣고 놀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내고 그대로 결제를 했지만 온라인으로 장을 보면 실시간으로 장바구니에 담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예산에 맞게 좀 더 고민하여 최종 구매품목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이다.</p> <p>또 어떤이는 한정된 소득으로 더 많은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쇼핑을 택했다고 한다. 그날의 특가상품, 한정수량할인, 쿠폰행사, 앱결제수단이벤트, 카드프로모션 등 잘만 찾아보면 오프라인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온라인쇼핑의 매력이다.</p> <p>아무리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쇼핑물을 매일 살펴볼 수는 없는 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몇곳만 소개하자면</p> <p>각종 핫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이버카페 '진희맘' 해외직구정보와 구매대행 의뢰까지 가능한 네이버카페 '몰스' 화장품 등 뷰티관련 쇼핑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이버카페 '파우더룸' 각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할인정보등을 얻을 수 있는 네이버카페 '패밀리세일' 등이 있다.</p> <p>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쇼핑을 좀 더 다채롭게 즐겨 보는 건 어떨까?</p> <p>덧붙여, 짧게 쓰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가야 하는 출산육아물품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곳도 있다.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앱 '중고나라', 앱 '당근'이 대표적이다.</p> <p>지구를 살리는데 동참하는 방법이기도 한 중고물품 사고팔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p>					
SNS 아이디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blog.naver.com/ylem726/222954410471">https://blog.naver.com/ylem726/222954410471</a></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4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언택트시대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세상과 만난다. - 4. 저축					
기사내용	<p>가정을 꾸리며 우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산증식을 꾀한다.          자산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벌어 아껴 쓰고 남는 돈을 ‘예금’ 또는 ‘적금’ 상품으로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이는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위험부담이 없고, 소액으로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으며, 짧게는 3개월 만에도 그 결실을 맛볼 수가 있다.</p> <p>지난 10년간의 저금리만 경험했던 30세 가량의 성인들은 예적금으로 한푼두푼 모아 언제 부자가 되냐고 할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은 저축으로 자산을 늘리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모든 재테크의 기본은 저축이다.</p> <p>최근 주변 금융기관들 유리벽에 특판금리를 공시하고 있는 곳이 많아졌다. 타지역과 비교해도 꽤 높은 이율이다보니 아이용돈을 넣어둔 입출금통장의 돈까지 싹싹 긁어모아 예금에 가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 원인은 바로 팬데믹기간 비대면 계좌개설이 대중화 되면서 전국의 금융기관들이 전국구로 경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언택트 시대는 금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p> <p>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야한다.          여윌돈이 있다면 제일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찾아보자.          혼자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검색이 어렵다면 저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적금 특판정보와 금융기관의 상시정보들을 비롯하여 재테크의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커뮤니티로는 네이버카페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짤돌이 부자되기’ 등이 있다.</p> <p>높은 금리의 특판상품을 찾았다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온라인 본인 인증을 하고 신한ON뱅크 앱 또는 새마을금고 앱을 통해 해당금고의 비대면 입출금계좌(보통예금통장)를 개설 한 후 특판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와 지역농협의 한시금리적용 상품의 경우 해당 금고의 입출금계좌개설 없이 바로 본인인증 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등 고금리의 예적금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p>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예적금은 위험부담이 거의 없지만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고금리 예적금상품이 공격적으로 쏟아져나오는 동시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는 특히 옥석을 가려야 한다.

만기 시 내가 받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 경영공시를 확인하여 되도록 1등급을 받은 안정적인 곳에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SNS  
아이디

<https://blog.naver.com/ylem726/222955310816>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5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가족센터 프로그램 후기 NEW 만남의 광장 3기 - 강릉 특산물을 활용한 퓨전요리교실 & 세계의 디저트 제과교실					
기사내용	<p>2022년 다문화 요리 체험 프로그램 'New 만남의 광장'3기에 운 좋게 참여하게 되었다.</p> <p>사실 지난 몇회차 접수에 매번 실패하고 아예 참여하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나이 먹도록 아직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지 못하는 엄마를 참다 지친 아이가 제발 어디라도 가서 요리 좀 배워오자는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나 보다.</p> <p>이 수업은 강릉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문화 퓨전요리교실 5차시와 세계 여러나라의 디저트를 배워보는 제과교실 5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장기 프로그램이었다.</p> <p>명주예술마당 조리실에서 강사님과 함께한 퓨전요리교실에서는 강릉 특산물 중 구하기 쉽고 다루기도 쉬운 감자, 옥수수, 두부등을 활용하여 온가족이 즐길 수 있을 만한 퓨전 음식을 아이와 함께 만들어보았다.</p> <p>그 중 감자를 활용한 감자베이컨전과 메밀또띠아, 두부강정은 우리가족 입맛에 딱 맞는 최고의 음식이었다.</p> <p>그밖에도 웅심이카레, 두부버거, 옥수수만두피자 등 매번 새로운 음식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p> <p>퓨전요리 강사님께선 친근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주제인 만큼 모든 요리의 레시피를 매시간 인쇄하여 제공해 주셨는데 수업 당시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 맨 마지막까지 남아 허덕이는 요린이인 나에겐 없어서 안 될 교재였다. 수업이 끝난 후 잘 챙겨와서 지금까지 집에서 요리할 때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p> <p>쉐프조이에서 쉐프님과 함께한 제과교실은 마들렌, 화과자, 컵케익, 머핀, 버터쿠키를 만들었는데 각재료의 비율에 아주 민감한 제과의 특성상 이미 배합된 재료를 섞고 반죽하고 성형하는 과정까지만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만 해내는것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p> <p>쉐프님께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초등생 아이들이 모든 단계를 직접 해낼 수 있었고, 그 때문인지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고 흥미를 잃지 않아서 좋았다.</p> <p>성형을 마치고 나면 오븐에 굽는것도 쉐프님이 해주셨다.</p> <p>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아쉬웠으나 여기서 반전은 우리가 중요단계를 하지 않</p>					

아 디저트의 퀄리티가 말도 못하게 완벽하다는것!!! 너무너무 맛있었다.  
아이는 이 수업을 계기로 장래희망이 제과제빵사로 바뀌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걸쳐 총 10가지의 음식을 접할 수 있었던 맛남의 광장 프로그램은 이 짧은 후기 안에 담기에는 너무도 벅차게 즐거웠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만들 수 있게 된 음식이 5가지는 늘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다.

혹시 나중에라도 강릉 전통의 장담그기, 강릉의 맛을 담은 김치 등을 만드는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배워서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신랑에게 선물하고 싶다.

강릉시 가족센터에서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다문화 요리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중복참여는 제한하고 있다.

SNS  
아이디

<https://blog.naver.com/ylem726/222956229510>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6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가족센터 프로그램 후기 - <2회기> 여름방학 초등자녀 생활과학 놀이터 스마트전기자동차					
기사내용	<p>여름방학 기간 동안 강릉지역 아이들을 위해 6회에 걸쳐 생활과학놀이터가 열렸다. 엄청난 경쟁률에 겨우 2회기에 한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직장을 가진 부모님도 아이와 참여할수 있도록 저녁 7시부터 열린 생활과학 놀이터 2회기의 주제는 스마트전기자동차였다.</p> <p>외부강사선생님의 설명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만들기 키트 조립이 주된 수업교구 였는데 단순 모형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을 하기 전 전기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이 수업의 목표를 먼저 설명해 주신 후 모형조립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는 것 같아 좋았다.</p> <p>앞에 게시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압축 튼밥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모형의 부품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조립하였는데 각 테이블로 찾아가 조립을 힘들어하는 가족을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수업의 진행이 비교적 매끄러웠다.</p> <p>중간중간 모터도 넣고 전선도 연결하는 과정이 있어 복잡했고, 나무를 끼워맞추는 과정에서 뻑뻑한 부분은 부모님이 도와주어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해 보려 하고 모형이 완성될 때까지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했다</p> <p>조립이 끝나고 충전을 마친 후 책상을 모두 밀고 아이들이 바닥에 각자의 자동차를 내려놓고 경주를 하는 모습은 너무도 흐뭇했다.</p> <p>태양열 자동차는 만들어 봤으나 전기자동차는 처음 접해본 아이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 뒤 해를 보지 않고도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며 신기해했고 집에와서도 드디어 흐린날에도 갖고 놀수 있는 자동차가 생겼다며 기뻐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아이들이 자주 가질수 있었으면 좋겠다.</p>					
SNS 아이디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s://blog.naver.com/ylem726/222956234598">https://blog.naver.com/ylem726/222956234598</a></p>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7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가족센터 프로그램 후기 - 가족친화 부모-자녀 보드게임한마당					
기사내용	<p>집에서 매일같이 보드게임 같이 하자고 조르는 하나밖에 없는 딸래미 생각에 참여하게 된 보드게임 한마당.</p> <p>집에서 하면 되는 보드게임을 왜! 굳이! 차를 타고! 그 저녁에! 갔냐면... 한정된 보드게임의 종류를 가지고 매번 아이와 내가 대립하여 게임을 하다보면 내가 부모임을 잊고 승부욕이 발동하여 이겨버리고 만다. 징징거리며 아빠에게 도전하고... 딸바보인 아빠는 또 매번 져주네. 참내... 근데 이젠 져주는건 싫다며 툭툭 거리는 아이. 그럼 어찌라는거냐!! 애써 달래서 그럼 우리 브루마블을 해볼까? 은행은 니가 하는거야~~ 게임을 빙좌해 돈세기라도 익히기를 바라는 나. 하지만 그럴거면 그림이나 그럴거라며 아이의 보드게임 타령이 끝나는 항상 비슷한 싸이클.</p> <p>해서~~ 외부의 힘을 빌려 보드게임을 하며 한시간이라도 행복해지고 싶었다.</p> <p>보드게임 강사님과 보조강사님이 보드게임을 한아름 싸들고 오셨고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이미 해봤고 알고 있는 보드게임이 있는지 사전조사를 하셨다. 그러더니 모두가 생전 처음 본 보드게임을 나눠주시는 것이었다. 하하하!!!</p> <p>모두가 처음인 보드게임의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 먼말인지 모르겠당~~~ 원래 게임에는 소질이 없는뎡...</p> <p>우리가족은 인원이 적어 다른 가족과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고 게임이 시작되었다. 나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 함께 하는 가족은 .... 세상에 완전 프로게이머다. 어느새 열띤 분위기에 휩쓸려 소리를 지르며 게임을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아차!!! 나 딸래미 즐거우라고 온거였지???</p> <p>‘재밌니?’ 라고 한번은 물어봐주는 센스~</p> <p>단순한 규칙의 몇가지의 게임을 즐겼고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흘러 벌써 마칠시간. 우잉~ 아쉬워랑~</p> <p>아이는 돌아오는 차안에서 오늘이 올해 들어 최고 즐거웠던 날이라고 말했다.</p>					

어머나 안쓰럽.. 왜그렇게 보드게임은 울음으로 끝나고 지겹고 하기 싫은거라고만 생각했을까? 나는 왜 보드게임을 그대로 게임으로 즐기지 못하고 수학공부를 시켰을까?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 오늘 하루 행복했음 된거야.

난 여전히 집에선 보드게임으로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건강가족센터의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SNS  
아이디

<https://blog.naver.com/ylem726/222956240428>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8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가족센터 프로그램 후기 - 추석맞이 바람떡 만들기					
기사내용	<p>추석을 앞두고 아이와 함께 떡을 만들러 명주예술 마당 조리실에 갔다.</p> <p>내가 떡을 만들 줄 모르다 보니 떡 만드는 것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그래서인지 떡을 먹지도 않는 아이를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착한 명주예술마당. 주차장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p> <p>이 수업은 건강가족센터에서 주최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바람떡 만들기 프로그램인데 자체 조리실이 없는 관계로 장소만 명주예술마당 조리실을 빌린듯하다. 주차장도 넉넉하고 조리실도 갖춘 건강가족센터가 새로 건립되었음 하는 생각을 이럴 때 마다 해본다.</p> <p>조리실에 도착하니 각 조리대마다 밀대, 바람떡모양을 찍어내는 도구, 팔소, 색소가 준비되어 있었다. 떡 반죽은 강사님께서 미리 찌서 준비를 해 두셨고, 설명이 끝난 후 각각 나눠주셨다. 집에서조차 나중에 해보려면 이 쌀가루를 찌는것을 직접 해 보았음 참 좋았을텐데 이점이 조금 아쉬웠다.</p> <p>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강사님이 미리 찌서 준비해 주신 쌀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떼어 색소를 넣고 원하는 색상을 만든 후 적당한 두께가 될 때까지 밀대로 밀고, 그 위에 소를 얹고 반으로 접어 그 접힌 부분이 중앙에 가게 찍어 반달모양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p> <p>처음엔 떡을 제대로 만들어보고자 왔는데 색소가 섞이며 은은한 색상이 나는 쌀반죽을 보고는 우리가족은 어느새 미술공작시간으로 착각할 만큼 예쁘게 만들기에 집착하게 되었다. 예쁘게 더 예쁘게...</p> <p>너무 집중해서 만들다보니 수업인증사진도 한 장 못찍었지만 만드는 내내 즐거웠다.</p> <p>떡을 완성한 후에는 굳는것과 서로 붙는 것을 막기위해 참기름을 바르고 예쁜 상자에 담아 보자기로 선물포장까지 하고보니 선물은 쿠키상자만 생각해 보았는데 떡도 예쁜 선물이 될수 있겠구나 생각했다.</p> <p>바람떡은 잔치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가 직접 만들어보니 친근하게</p>					

	느껴지고 쌀반죽 찌는거만 연습하면 집에서도 할수 있겠다는 아~주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다. 년에는 쌀반죽 찌는것도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ylem726/222956332074">https://blog.naver.com/ylem726/222956332074</a>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9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 공동육아 나눔터 3호점					
기사내용	<p>출산을 저하가 해마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최근 들어 자녀의 양육이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되어 이에 따른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p> <p>이 중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은 아마도 ‘돌봄’이 아닐까 한다.</p> <p>강릉시는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말 통과됨에 따라, 강원도 내 시 단위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더불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모사업에도 또한번 선정되어, 2022년 3월에 세번째 공동육아나눔터가 옥천동에 개소함으로써 인해 강릉시민의 아동 돌봄 부담이 한층 덜어졌다.</p> <p>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의 기본 운영방침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실과 퇴실 시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동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현재 강릉내 운영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3개소로 각 호마다 약간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p> <p>3호점은 특히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아동’의 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하며, 가족품앗이 활동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p> <p>이 밖에도 돌봄교실 아이들을 주로 이루는 초등학생 대상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초등학생 수업인 만큼 수업에는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없고,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토탈공예 중급 (초등고학년대상) , 아트사이언스 중급(초등고학년대상), 영어 중급(초등고학년대상) 이 있으며, 센터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프로그램이 추가 운영되기도 한다.</p> <p>맞벌이 가정이나 가족 품앗이 신청을 하지 않은 가정에도 공동육아나눔터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p> <p>특히, 해당 센터는 옥천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혼자서도 직접 센터를</p>					

	<p>찾아와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한다.</p> <p>옥천초등학교 재학생과 예비 신입생을 둔 가정에는 반갑고 든든한 시설로서 앞으로 더욱 사랑받을 것이라 생각된다.</p> <p>거리가 먼 동네라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호자가 센터로 직접 데려다 줄 수만 있다면,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다만 간식이나 식사는 전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각 가정에서 준비해 보내야 하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p> <p>센터의 이용을 위해서는 강릉가족센터 홈페이지에 보호자와 아동 모두 회원가입한 후 각 아이디에 따른 개인QR코드를 부여받은 후 입실과 퇴실 시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p> <p>강릉가족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s://gangneung.familynet.or.kr/center/">https://gangneung.familynet.or.kr/center/</a>)  강릉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수문길13번길 17-2 어울림플랫폼 B동</p>
<p>SNS 아이디</p>	<p><a href="https://blog.naver.com/ylem726/222957591027">https://blog.naver.com/ylem726/222957591027</a></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10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 미취학 아동 가정에 도움이 되는 기관 소개					
기사내용	<p>강릉은 최근 몇 년간 수도권등 타지역에서 원정 양육을 오는 인기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p> <p>강릉이 인기 있는 이유는 차로 10분만 나가도 바다와 산을 쉽게 즐길 수 있어 자연과 더불어 양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시적으로 아이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는 의견이다.</p> <p>이 글을 통해서는 지차체에산 등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시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p> <p>1. 강릉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2호점</p> <p>아이가 어릴 적 신랑이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돌이 마주 보고 앉아 끊임없이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다가도 현타가 왔던 경험을 한번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p> <p>아이가 절대 엄마랑 떨어지는 것을 기겁하게 싫어해서 화장실도 참고참다 몰아가며, 정말 화장실 가는 잠깐이라도 편히 갈 수 있게 엄마들이 모여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해 본 적도 있을 것이다.</p> <p>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 바로 그런 곳이 되어줄 수 있다.</p> <p>7세 이하의 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여,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교구를 이용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장소제공 외에도 음악 미술 책놀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p> <p>더불어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과 육아고민 등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p> <p>교동 모루도서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이용은 회원가입 후 가능한데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다면 별도의 준비없이도 방문시 현장가입이 가능하다.</p> <p>도서관 내에 있는 센터의 특성 상 월요일이 휴무이다.</p> <p>2. 강릉시립도서관 - 포남동 중앙도서관, 교동 모루도서관, 시청 내 책문화센터가 주된 시설이며, 초당동, 입암동, 포남동, 옥천동, 내곡동에 각각 위치한 작은 도서관도 있다. 책문화센터를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또는 유아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어, 연령대에 알맞은 여러 도서를 아이와 함께 고르고 책을 읽어주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루도서관 유아자료실 내에는 수유실이 마련되어있어 수유기</p>					

	<p>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모루도서관 이용을 추천한다.        홈페이지(<a href="https://www.gnslib.or.kr/">https://www.gnslib.or.kr/</a>)를 통해 자세한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다.</p> <p>3. 강릉교육도서관 - 노암동에 위치한 강릉교육문화관과 주문진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명주교육도서관이 있다. 운영주체는 강릉교육지원청이다.        두 곳 모두 유아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공간이용은 회원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도서대여는 회원가입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교육도서관은 미취학아동의 교육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전 모집기간공고를 확인하여 홈페이지 (<a href="http://lib.gwe.go.kr/kanglib/">http://lib.gwe.go.kr/kanglib/</a>)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p>
<p>SNS 아이디</p>	<p><a href="https://blog.naver.com/ylem726/222960589549">https://blog.naver.com/ylem726/222960589549</a></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11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 . 음악과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					
기사내용	<p>22년 12월 14일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는 꿈의 오케스트라 강릉의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가 열렸다.</p> <p>이번 연주회는 “10년의 도전과 성장” 이란 주제로 졸업생, 엔젤스 합창단, 사물놀이패와 함께, 모두가 알 수 있었던 ‘마법의 성’부터 꿈의 오케스트라강릉의 가치를 담은 창작곡 ‘하슬라의 꿈’ , 사물놀이와 잘 어우러진 ‘강릉대도호부’ 등 오케스트라단원의 연령대를 가늠하기 어려운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다.</p> <p>꿈의 오케스트라 강릉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강릉지역 꿈의오케스트라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올해로 운영 10년차를 맞고 있는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이다.</p> <p>함께하는 합주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목표로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템을 한국형으로 도입한 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는 강릉 외에도 전국 5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p> <p>이번 공연에서는 단원들의 연주 외에도 꿈의오케스트라 강릉이 10년동안 계속될수 있었던 데에는 각 단체장님들과 일반시민분들의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것도 알게 되었다.</p> <p>그리고 음악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강릉시내 아동청소년 가정의 관심과 참여도 지속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도 느꼈다.</p> <p>오케스트라에 입단할 수 있는 연령은 초등학교2학년부터 중학교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형은 일반전형과 사회적배려전형으로 나뉘고 자격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p> <p>문화소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배려전형은 악기연주능력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오케스트라활동에 의지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p> <p>일반전형은 악기 연주경력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선발우대사항이다.</p> <p>매년 2월경 강릉문화원홈페이지(<a href="https://www.gncc.or.kr/index.php">https://www.gncc.or.kr/index.php</a>)를 통해 모집공고를 하고 있으며,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할 수 있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ylem726/222960635297">https://blog.naver.com/ylem726/222960635297</a>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수현	기사작성 회차	12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 청소년 시설					
기사내용	<p>가족센터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중학생 이상의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다.</p> <p>강릉시 청소년 수련시설 포털 홈페이지(<a href="https://www.gn.go.kr/gnyouth/index.do">https://www.gn.go.kr/gnyouth/index.do</a>)를 통해 두 시설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p> <p>청소년 수련관은 교동 종합운동장 옆 독립된 3층 건물 전체 시설을 운영중이며, 솔향친구랑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지원한다. 자치활동의 대상은 강릉시 14세~19세 청소년이다.</p> <p>매년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원 모집공고를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참여한 청소년은 봉사활동점수를 부여받는 것 외에도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해 함께 기획하고 직접 활동하면서 배우고 느끼며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운영시간이 평일 오후 9시 까지, 주말 오후 6시 까지로 청소년의 방과 후 동아리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p> <p>그 외 초등학생부터 참여가 가능한 각종 강좌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p> <p>축구, 인라인 등 체육교육 바이올린 드럼 등의 각종 음악교육, 로봇코딩 등 학과과목 외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 폭넓은 진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p> <p>청소년 외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도 있다. 3층 도서관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등 방명록을 작성하고 1시간을 기본으로 이용가능하며 건물 밖 풋살장과 농구장은 강좌가 없는 시간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p> <p>주문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주문진읍 연곡면 노인회관 옆에 자리하고 있다. 올해 카페테리아 공사를 완료하여 주문진 청소년들이 전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쉴수 있게 되었다. 이 공간은 1층 절반에 해당하는 넓이에 음료와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넓은 테이블을 배치하였고, 보드게임과 대형 오락기도 마련하여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한다.</p> <p>주문진 청소년문화의 집 역시 초등학생이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통해 참여가능하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ylem726/222960675725">https://blog.naver.com/ylem726/222960675725</a>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1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혼례가치교육: 행복한 결혼을 위한 아이콘택트 2기 참가 후기					
기사내용	<p>행복한 결혼을 위한 아이콘택트2기 (웨딩케이트만들기) 참가 후기</p> <p>진행일시: 2022.8.25.(목)19:00~21:00</p> <p>진행대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커플, 신혼(예비)부부와 일반부부</p> <p>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p> <p>진행내용: 웨딩케이크 만들기</p> <p>후기: 강릉시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행복한 결혼을 위한 아이콘택트 2기 프로그램 (향수 만들기, 웨딩케이크 만들기)에 참가하였습니다.</p> <p>지금까지 강릉시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혼자만 참여하고 즐기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신랑과 함께 참여하여 더욱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p> <p>향수만들기 시간에 10가지 정도 되는 향중에 3가지를 선택해야하는데 신랑과 제가 똑같은 3가지 향을 선택하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이구나’를 느끼며 같은 선택을 했다는게 왜이렇게 기쁘지 모르겠습니다.</p> <p>1주일정도 지나 제가 만든 향이 처음 뿌렸던 것보다 더욱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웠던 그때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p> <p>2번째 시간은 웨딩케이크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p> <p>소수의 인원으로 진행되어서 인지 더욱 우리 둘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p> <p>핑크색 생크림으로 데코를 하면서 결혼식날 웨딩케이크를 자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웨딩케이크처럼 흰색 케이크위에 핑크색 생크림으로 데코를 해서 결혼식 때 생각이 납니다.</p> <p>퇴근 후 서로 각자 활동하던 저희 부부였는데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만들고 난 후 집에가서도 함께 케이크를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그날 하루의 고단함도 눈녹듯 사라집니다.</p> <p>아침마다 출근하기 전 루틴처럼 향수를 뿌리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강릉시가족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862868875">https://blog.naver.com/n1852/222862868875</a>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2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소리샘부부교실: 자동차극장데이트 참가 후기					
기사내용	<p>진행일시: 2022.9.26.(월)19:00~21:00                      진행대상: 강릉시에 거주부부 20쌍(40명)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진행내용: 배우자에게 감사와 사랑을 담은 편지를 주고받고 편지와 함께 찍은 부부 사진 인증하기</p> <p>소리샘부부교실(자동차극장데이트)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소리샘부부란: <b>소</b>통과 <b>이</b>해가 <b>새</b>싹는 부부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강릉시 가족센터 진행한 자동차극장데이트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분노의질주: 더 얼티메이트였고, 그때 강릉에도 자동차극장이 있다는걸 처음알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셋이서 보러갔었습니다. 이번에도 신랑은 아이와 함께 셋이서 가자고 했지만 저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부부만 입장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영화는 공조2입니다. 자동차극장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재미없는 영화를 보게되면 데이트도 시시해지고 재미없었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는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고나면 우울해지는 영화나 심각한 고민을 하게되는 사회이슈적인 영화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조1을 봤을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공조2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영화내용을 얘기하면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아는 사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니엘헤니는 너무 멋있다~! 현빈은 연기를 진짜 잘한다~! 강릉 자동차극장은 구정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7시 시작시간보다 15분정도 여유있게 일찍 도착해서 매점에서 팝콘이랑 쥐포도 사고 주파수도 맞추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동차극장에서 우연히 친한 지인을 만나서 영화를 보고 난 후 저녁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영화얘기도 하면서 주인공얘기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돌이켜보면 우리 부부에게 영화는 시간이 날때마다 극장을 찾아 다니며, 때로는 다운받아보며 영화에 대한 애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경험, 소통,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공조2 영화는 제 기억속에 아마 가장 오래남을 영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강릉시 가족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885530338">https://blog.naver.com/n1852/222885530338</a>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3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혼례가치교육(아이콘택트2기) 참가 후기					
기사내용	<p>진행일시: 2022.8.31.(수)19:00~21:00                      진행대상: 강릉시에 거주부부 4쌍(8명)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진행내용: 우리커플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기                      후기: 행복한 결혼을 위한 아이콘택트 2기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이콘택트 첫 번째 시간은 웨딩케이크 만들기였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커플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p> <p><u>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u>가 있습니다. <u>인정하는말, 함께하는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u>                      그 언어들 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나의 사랑의 언어 순위를 정하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u>선물</u>입니다.</li> <li>* 나의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u>인정하는 말</u>입니다.</li> <li>*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는.....</li> <li>* 나의 배우자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는....</li> </ul> <p>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점수를 메기고 순위를 정합니다. 결과를 통해 '나는 이렇고 상대방은 저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p> <p><u>인생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할 때는 남을 대접하라</u></p> <p>작은 실천부터 '나의 배우자에게 하루 한번은 이런걸 하겠어'라고 다짐해봅니다. 작은 성취 경험을 해봐야 더 큰 성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실행을 해서 큰 열매를 맺는것이지요.</p> <p>사랑은 성숙시켜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설렘이라고 생각하면 설렘이 다하는 순간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게 되어있습니다.</p> <p>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먼저 해줍니다.(봉사, 인정하는말 등) 어떤 걸 도와줄지, 기분좋은날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대접한대로 돌아옵니다.</p> <p>신랑이 잔소리처럼 늘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랑에게 고생했다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안쓰는 물건을 버리고 대청소를 하고 정리를 좀 하려고합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890462449">https://blog.naver.com/n1852/222890462449</a>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4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 가족센터-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혼례가치교육:커플공작소 참가 후기					
기사내용	<p>혼례가치교육:커플공작소 참가 후기</p> <p>진행일시: 2022.12.6.(화)19:00~21:00                      진행대상: 강릉시에 거주부부 20쌍(40명)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진행내용: 강릉시에 거주하는 부부 10명 커플 잔 만들기                      후기: 혼례가치교육:커플공작소 참가 후기</p> <p>혼례가치교육:커플공작소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커플공작소 프로그램은 무엇인가를 함께 만들면서 서로 의논하고 조언해주고 또 서로의 창의성에 반하여 서로를 칭찬해주는 좋은프로그램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야한다는것에 스트레스가 약간 있었는데 하다 보니 ‘그냥 대충 내가 만들고싶은데로 만들어보자’ ‘잘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임하니 어느새 스트레스는 온데간데 없고 그 시간에 집중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커플유리잔까지 생겨서 더욱 좋고 그리고 그 잔을 볼때마다 함께 만들던 시간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뒤돌아 생각해보면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만들기가 뭐 대수인가 라는 우습게 보고 있던 내 자신 그리고 그건 그냥 예쁜쓰레기야 라고 쓰레기취급하던 친구는 모를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가져간 진정한 뿌듯함과 자기만족감은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강릉시 가족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 벌써 이미 충분히 힐링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 나는 아직 부족해”                      2023년에도 또 참가할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960601116">https://blog.naver.com/n1852/222960601116</a>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5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 가족센터-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맛별이 가정 일가정양립사업-쿠킹클래스 참가 후기					
기사내용	<p>맛별이 가정 일가정양립사업-쿠킹클래스 참가 후기</p> <p>진행일시: 2022.11.16.~2022.11.30. 19:00~21:00                      진행대상: 강릉시에 거주부부 9가정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진행내용: 강릉시에 거주하는 부부 9가정 요리하기                      후기: 맛별이 가정 일가정양립사업-쿠킹클래스 참가 후기</p> <p>맛별이 가정 일가정양립사업-쿠킹클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동안 3번을 참가하였습니다. 강릉명주예술마당에서 다른 가족들과함께                      참가하였는데 처음에는 부부만 오는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함께와서 조금은 어수선                      하였지만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p> <p>첫 번째요리는 감바스&amp;파스타 그리고 두 번째요리는 한식밀반찬(소고기장조림, 오뎅                      볶음, 감자채볶음), 세 번째 요리는 고추잡채&amp;마파두부입니다.</p> <p>감바스&amp;파스타요리는 신랑이 거의 다 만들고 제가 요리 보조사 역할이였습니다.                      원래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한번 저희 신랑이 대단하다고 느낀 순                      간이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지만 아이도 함께 왔으면 참 좋았겠다라                      는 생각이 들면서 옆테이블에 초등학교2학년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갓난아이를 돌                      보는 엄마를 대신해 주도적으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스럽고 기특하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요리사가 시연을 하고 나머지는 만들어야하기때문에 전쟁같은 1시간동안 정신없이                      만들고 나면 양손가득 준비해주신 용기와 종이가방에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갑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강릉시 가족센터는 정말 저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존                      재입니다.</p> <p>여러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문화가족들도 만나게 되는데 다음번에는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싶습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960607307">https://blog.naver.com/n1852/222960607307</a>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6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 가족센터-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맞벌이 가정 일가정양립사업-원예치료 참가 후기					
기사내용	<p>맞벌이 가정 일가정양립사업-원예치료 참가 후기</p> <p>진행일시: 2022.9.14./ 2022.9.17. 19:00~21:00                      진행대상: 강릉시에 거주 맞벌이 가정(증명이 가능한 자)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진행내용: 강릉시에 거주하는 부부 8가정                      후기: 맞벌이 가정 일가정양립사업-원예치료 참가 후기</p> <p>맞벌이 가정 일가정양립사업-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동안 2번을 참가하였습니다. 강릉시 가족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가족                      소통 및 가족친화에 도모하고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맞벌이 가정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재직증명서, 명함 등)그리고 2회기 모                      두 참석 가능한 사람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p> <p>9/14일 내용: 우리가족 정원 9/17 내용: 우리가족 꽃바구니                      첫 번째 우리 가족 정원은 나무인형에 얼굴표정을 그리고 색칠을하고 나와 아이의                      모습을 투영한 인형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 그리고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1시간은 화분에 주목나무와 아이비 등 식물을 심었습니다. 한 화분 안에 있                      는 두 식물처럼 때로는 무관심하게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건 가족이라는것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p> <p>그리고 두 번째 꽃바구니 만들기 시간에는 가족이 많이 쓰는 단어를 기재하여 빙고                      게임을 진행하고 미니꽃바구니에 꽃꽂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2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아쉬웠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힐링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                      다.</p> <p>다음에도 원예치료 수업은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961501200">https://blog.naver.com/n1852/222961501200</a>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7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 가족센터-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New 맛남의 광장 참가 후기					
기사내용	<p>New 맛남의 광장 참가 후기</p> <p>진행일시: 2022.7.23.~2022.8.19. 19:00~21:00                      진행대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19세미만의 자녀를 둔 3인이상 가족(6가족)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진행내용: 강릉시에 거주하는 6가정                      후기: New 맛남의 광장 참가 후기</p> <p>다문화 가족 및 일반 가족들을 위한 다문화 요리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강릉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문화 퓨전요리와 세계나라의 디저트를 체험하며 다양한 나라의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저녁시간) 가족모두 참여가 가능한 가족대상입니다. 접수순으로 3가족씩 나눠서 진행/총10회기 수업</p> <p>장소는 요리는 명주예술마당과 디저트수업은 쉐프조이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수업중 한번은 요리, 한번은 디저트를 번갈아 가며 일주일에 두 번씩 만드는데 솔직히 조금 힘든 일정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p> <p>스위스식 감자전인 뢰스티도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체카레로 일본식카레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요리강사 선생님께서 쉽게 알려주시고 일일이 가정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도와주셔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나라 요리를 만들면서 설명도 같이 해주시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p> <p>그리고 쉐프조이에서 디저트를 만들면서 효모, 등에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맛있는 쿠키를 많이 만들어가서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머핀, 쿠키, 레몬마들렌 등 특히 양이 많아서 좋았습니다</p> <p>그리고 강릉시 가족센터가 좋은 것은 한 업체만 정해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강사진, 다양한 요리센터를 섭외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사람입장에서는 여러강사에게 배워서 점점 실력이 늘게 되고 정보가 상이하면 공부하여 스스로 찾아보게 되는 등 그런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961511880">https://blog.naver.com/n1852/222961511880</a>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8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p>&lt;강릉시 가족센터-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gt; 가족관계: 스트레스관리 몸과마음챙기기 프로그램 참가 후기</p>					
기사내용	<p>가족관계: 스트레스관리 몸과마음챙기기 프로그램 참가 후기</p> <p>진행일시: 2022.5.24.(수) 18:30~19:30                      진행대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학부모(15명)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진행내용: 관내 거주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15명)                      후기: 스트레스관리 몸과마음챙기기 프로그램 참가 후기</p> <p>강릉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p> <p>요가를 가끔 월데이 클래스로 참가하기는 하지만 요가인이라는 곳은 처음알게 되었고 시내에 위치해 있어서 주차가 조금 힘들었습니다.</p> <p>15명이라서 조금 많은 인원이여서 약간은 좁았지만 아로마 향기치료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모집대상요강을 알기 때문에 다들 학부모들이라 나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겠구나 싶어서 왠지모르게 마음이 오픈되었던 것 같습니다.</p> <p>다문화센터3층에서 하는 수업도 좋지만 직접 요가센터에서 수업을 하게 되니, 요가 매트, 요가볼, 폼롤러 등 도구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요가는 꼭 요가센터로 가서 체험하고 싶습니다.</p> <p>요가 동작이 조금은 고난이도라 힘들었지만 다행인 것은 시간이 짧아서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p> <p>학부모 스트레스라 하여 아로마오일을 준비해보았다는 강사님은 정말 센스쟁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p> <p>개인적으로 향기치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로마오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두드러기 등 이상반응이 일어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강사님께서서는 몸이 안좋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p> <p>다음에도 요가나 필라테스수업 등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에는 꼭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학부모인 시간도 얼마남지 않아서 학부모일 때 프로그램은 프로참석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p>					
SNS 아이디	<p><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961520812">https://blog.naver.com/n1852/222961520812</a></p>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9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 가족센터-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소리샘부부교실:우리부부 퍼스널컬러 프로그램 참가 후기					
기사내용	<p>소리샘부부교실:우리부부 퍼스널컬러프로그램 참가 후기</p> <p>진행일시: 2022.5.18.(수), 5.19(목) 19:00~21:00                      진행대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부부 10명(5쌍)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진행내용: 강릉시에 거주하는 부부 10명(5쌍)                      후기: 우리부부 퍼스널컬러프로그램 참가 후기</p> <p>강릉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강당에서 하는 우리부부 퍼스널컬러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p> <p>2번 참가를 하였는데 다른 부부들이 각자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p> <p>약간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배분을 하던가 참가부부를 좀 더 소수인원으로 해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p> <p>첫 번째 시간은 쿨톤, 워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퍼스널컬러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고 나에게 맞는 퍼스널컬러 진단을 하고 쿨톤화장법, 워톤화장법, 화장품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퍼스널 컬러란 사람의 피부톤과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찾는 색채학 이론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진단하여 계절에 맞는 색으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게 하는 것입니다.</p> <p>봄,여름,가을, 겨울로 나누어 각자 개인에게 맞는 톤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p> <p>선생님께서 강의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유익한 정보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p> <p>두 번째 시간은 천드레이프를 통해 거울을 보면서 그 앞에 의자에 앉아 천을 얼굴 밑에 대고 어떤 색이 더 나에게 맞는것인지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p> <p>요즘은 컬러리스트가 제작한 퍼스널컬러 진단사이트를 통해 딥러닝 학습 모델을 통해 피부를 진단하고 내 사진만 업로드하면 전체 퍼스널컬러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퍼스널컬러를 확인하는 이유도 어찌면 나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알고 우리 부부를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961528133">https://blog.naver.com/n1852/222961528133</a>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10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 가족센터-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초등 청소년 자녀들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 방법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참가 후기					
기사내용	<p>초등 청소년 자녀들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 방법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참가 후기</p> <p>진행일시: 2022.4.20.(수) 19:00~21:00                      진행대상: 초등3학년~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7가정)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진행내용: 자녀의 올바른 화장법 지도교육                      연령별 화장품 이용 시 주의사항</p> <p>초등3학년~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 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부모교육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옛날 사람이었나봅니다. 지금 중2된 딸아이에게 중학생이 무슨 화장이냐며 대학생 돼서 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교육을 받고 나서 아이에게 좋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를 보면 초등학생들의 화장품사용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실천하거나 교육받을 기회는 적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도 어느날 립앤아이 리무버를 다이소에서 천원에 샀다고 얘기하는걸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교육을 받은 후부터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후기를 읽어보며 화장품가게에 가서 같이 쇼핑을 합니다.                      아이에게 화장품 기프트콘을 선물하고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가라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으로 아이에게 메이크업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도 그 수업을 받은 이후로 더욱 자신감이 붙어서 점점 화장하는 기술이 늘어갑니다. 지금은 저도 아이에게 메이크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상의하달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가족 내 자녀의 위상이 변화 되었습니다.                      “ I SEE YOU”(나는 당신을 봅니다) 화장품사용방법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었지만 화장품이 매개가 되어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961647072">https://blog.naver.com/n1852/222961647072</a>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11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 가족센터-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봄맞이 우리집 정리수납 공간코디 프로그램 참가 후기					
기사내용	<p>봄맞이 우리집 정리수납 공간코디 프로그램 참가 후기</p> <p>진행일시: 2022.4.14.(목) 19:00~21:00(ZOOM온라인교육)                      진행대상: 5가정(선착순마감)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및 전화접수                      진행내용: 봄맞이 정리 수납 교육과 공간을 활용한 코디 방법 등                      후기: 봄맞이 우리집 정리수납 공간코디 프로그램 참가 후기</p> <p>온라인으로 진행한 봄맞이 우리집 정리수납 공간코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리수납전문가 수업을 들었지만 항상 본인이 하던 습관대로 일상생활은 돌아갑니다. 바꾸고싶어도 변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 수업을 듣는다면 언젠가는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마음을 바꾸고 정리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모아두고 ‘언젠가는 쓸거야’ 하는 생각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은 포화상태입니다.                      사실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건 당연합니다. 정리수납전문가분께서 효율적인 정리(수납)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옷, 양말등을 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방, 옷, 이불정리하는 방법 등 거는 의류정리, 접는 상의, 하의 정리, 침구정리, 썩크대 정리, 냉장고 정리 등등 그리고 나눔과 비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옷걸이에 겨울옷 거는 방법에 대해 나머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면,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TV프로그램에서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버린다는 것은 처음에는 두렵고 상실의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닳을 때 즉 비움을 실천하고 그 후의 내 주변 풍경을 보았을 때 쾌적하고 넓어진 집을 본다면 그리고 그 느낌을 안다면 비우고 채우는 것이 점점 쉬워질거라 생각합니다.</p>					
SNS 아이디	<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961629388">https://blog.naver.com/n1852/222961629388</a>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김희경	기사작성 회차	12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p>&lt;강릉시 가족센터-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gt; 오은영의 화해를 읽고 강릉시 가족센터에 대해 생각하며 후기</p>					
기사내용	<p>오은영의 화해를 읽고 강릉시 가족센터에 대해 생각하며 후기</p> <p>진행일시: 2022.12.16.(금)</p> <p>진행내용: 오은영의 화해를 읽고 강릉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고민</p> <p>후기: 오은영의 화해를 읽고 강릉시 가족센터에 대해 생각하며 느낀점</p> <p>“매일 잠들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상처의 시작은 ‘나’때문이 아니었어요”</p> <p>상처받은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용기</p> <p>우리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강의와 교육을 듣습니다.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p> <p>가족센터는 긴급, 일시적인 시간제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합니다. ‘가정경영아카데미’를 통해 가족 누구나 가족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없애고, 지역 내 이웃간의 돌봄영역을 확대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p> <p>저는 항상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제일 첫 번째고 모든 것의 시초이며 가정이 제대로 서야 각종범죄예방, 인성발달 등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p> <p>가정에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자식이 되어 우리는 어떠한 가족이고 가정일까를 생각해봅니다.</p> <p>결국 ‘부모와의 따뜻한 추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키우고 싶다는 내욕심을 버리고 세상사는 지혜를 쌓아가며 가지않은 길을 그리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오늘하루의 최선’을 다합니다.</p> <p>인생은 대부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안에 나도 모르게 그려놓은 ‘행복의 그림’에 의해 결정되었을 겁니다.</p> <p>‘내 행복의 그림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에 대한 나만의 기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뭐든 자신이 최상의 가치로 두는 것에 따라 살면 돼요. 그게 옳아요 스스로의 선택을 믿으세요 - 오은영의 화해 중 p303</p> <p>강릉시가족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2022년 한해를 돌아보면 나 자신을 위</p>					

	<p>해 혼자 힐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으며,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습니다.</p> <p>내가 선택하여 참여한 프로그램 모두 옳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하다,,,</p> <p>2023년에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매일 바쁘게 사냐고 묻겠지만 2023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p> <p>가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강릉시 가족센터는 사랑입니다</p>
<p>SNS 아이디</p>	<p><a href="https://blog.naver.com/n1852/222961617906">https://blog.naver.com/n1852/222961617906</a></p>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1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我们都向往和平(우리모두 평화를 갈망하다)					
기사내용	<p>战争，这两个字总是沉重和痛苦的。我们向往和平，期待和平，热爱和平。可是并不是我们所向往的都会实现，正如眼下的俄乌战争等等，世界上国家与国家之间或者国家内部之间争战不断，最直接的便是导致百姓流离失所，惶惶不安。每当看到电视或者报纸上人们无助的神情，孩童的泪流满面总是觉得心里很疼很难过。我们应该无比庆幸我们生活在一个相对稳定与和平的国家，不用经历战火纷飞和漂泊无定，所以我们更应该居安思危，更应该守护和平。</p> <p>有幸去游览了位于高城的统一展望台（고성통일전망타워）游客要比想象的多很多，老人，小孩，青年或许是因为参观的主题比较沉重肃穆，所以人们没有平时旅游似的热闹与活泼，大多数人们默默的拾级而上。展望台上我们可以看到对面的土地甚至是偶尔行驶的车辆，可是我们却无法触摸。虽然我是一名外国人，我也没有亲身经历过任何的战争，相信绝大多数人也同样没有，但是并不代表我们不能理解战争留下的痛苦和悲伤，我们都向往和平与安定，我们期待统一和未来。战争纪念馆里，老照片上的历史一幕幕摆在眼前，我们可以深深体会到那个时代的悲伤与不安，随着展台一步步走着像是走在当时硝烟四起的岁月，最后的尽头看到了满厅五彩缤纷的寄语。在这里人们选择自己喜欢的颜色的卡片，写上自己内心的话，然后把它挂在大厅里任何一个地方，像是许愿。我写下了：守护 和平。</p> <p>希望世界上没有战火没有硝烟，希望孩童时时面带笑颜，希望被迫分开的家人今后携手同行，希望我们能够守护和平。</p>					
SNS 아이디	페이스북-왕첸루 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2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自然江陵 ( 一 ) 강릉자연(1)					
기사내용	<p>江陵是一个步调比较平缓的城市，在韩国的东海沿岸依山傍水舒适自然。习惯了大都市的快节奏与高负荷压力的你，不妨来江陵给自己放一个假。</p> <p>江陵有很多自然景色值得我们去观赏，就比如镜浦湖。镜浦湖顾名思义就是像镜子一样清澈的湖，位于江陵的东北方是与大海相连接的自然湖泊。镜浦湖的沿湖大半边沿都种植了樱花树，在四月末落樱缤纷的季节会欣赏到江陵镜浦湖温柔如水的一面。在镜浦湖的边上有镜浦台，站在台上登高望远风景如画，在这里有这样一个传说：晚上在镜浦台喝酒会同时看到五个月亮，即天上一个，海中一个，湖中一个，酒杯中一个，还有对面心爱之人眼中一个。虽然是传说但是足以说明这里的风景着实让人沉醉。炎炎夏季时可以来镜浦湖边，因为沿海的原因这里并不是非常的炎热，可以选一处树影下的长椅，静静地看着眼前的波光淋漓和水鸟嬉戏，感受自己与自然的距离。秋日里天高气爽，在沿湖修建的慢跑带跑上一圈，或者是和家人一起乘坐多人脚踏车沿湖骑一圈，遇到美景停下欣赏亦是不可多得的休闲之暇。冬季皑皑白雪环绕下的湖水因为与大海相连不会结冰，偶尔在湖水里或芦苇丛中觅食的鸟儿成了摄影爱好者的宠儿。不止四季，晚上的镜浦湖同样美如画卷，平静的湖水能映照出沿岸闪亮的霓虹，牵手的情侣，已经彼此眼中的笑意。</p> <p>偶尔在一本书上看到过：一个人在物质世界里陷得越深，看到大自然时就会越觉得壮观。愿我们即便不能时时也能偶尔去感受这样的壮观与美好。</p>					
SNS 아이디	페이스북-왕첸루 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3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自然江陵 ( 二 ) 강릉자연(2)					
기사내용	<p>“自然”二字与生俱来就给人美好的想象。不管是磅礴大气飞流直下的瀑布，亦或是蜿蜒曲折淙淙流过的溪水，更有巍峨雄伟连绵不绝的山脉以及低矮山丘灌木林早晨的露水。自然总是迷人的。</p> <p>上次说过了最为地标性的江陵风景之一：镜浦湖。今天就来聊一聊江陵别的风景美地。首先是大海，作为一座面朝太平洋的沿海城市，大海无疑是她最为美丽的外裳。安静的时候，这片海像是一块闪闪发光多彩绚烂的蓝色宝石，有看不到尽头的深蓝色也有如泳池般的浅蓝色还有让人觉得温暖又活泼的孔雀蓝色。但是在狂风中，大海又是可怖的，她将海底的沙裹挟卷起，抛向空中砸向礁石碎成一片斑驳，她向人们展示着自己的力量，即使这样也不能让我们对她的爱减少一分，这便是大海的魅力：安静又蓬勃，内敛又宽广。与大海相称的便是沙滩边缘开始生长的松树林，在别的地方或许大海沙滩椰子树是标配，但是在江陵大海的守护者始终是成片茂密的松树林。在林间稍微宽阔的地方扑上软垫或是搭个简易帐篷坐下欣赏海的美，头顶间或跳过只只调皮的松鼠，眼前树影摇曳远处白浪翻滚，耳中松涛阵阵与海潮声声，最美不过。</p> <p>除了江陵近处的海，还有正东津。正东津之所以得名，是因为它是以前光华门正东方海边的一个码头。在这里以能在正方位观看日出而出名。沿海公路配上弯曲的松树以及无边的大海，可谓是风景如画。</p> <p>或许人生也如海潮有涨有退，而我们的胸怀亦应该如大海般不骄不躁，不急不缓。大自然果然鬼斧神工，令人感叹也令人陶醉。</p>					
SNS 아이디	페이스북-왕첸루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4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人文江陵 ( 一 ) 강릉인문(1)					
기사내용	<p>在韩国东海岸上背山面海的城市江陵，每年的五月初五端午节开始会进行为期半个月端午祭活动。不同于中国祭祀屈原的端午节，江陵的端午祭是祭祀山神的活动，不是特指某一天而是为期半个月。</p> <p>江陵端午祭是以祭祀大矣岭山神开始，在活动期间会进行各种巫法和祭祀典礼，并且有很多的韩国传统活动体验。比如：跳绳，假面制作，摔跤，荡秋千等等。在江陵的南大川河边两岸，为了活动的举行搭了长长的帐篷，每个帐篷里面都有不同的产品出售，小吃，衣服，玩具，装饰品，厨具等等种类繁多，热闹异常。来往游玩的人们也非常多，不止韩国本国的国民还有很多的外国人慕名未来。在北岸的中间有非常大的舞台，每天会有不一样的各种表演，韩国传统的舞蹈以及各国的文化表演，观众席场场爆满。这里没有首尔等大都市的高楼大厦和车水马龙，但是本地居民都非常热情，外来的游客很容易沉浸在庆典的喜悦里。</p> <p>한국에는 대관령을 넘어 바다를 끼고 있는 문화와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 강릉이 있다. 강릉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 단오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해마다 음력 4월부터 5월초까지 한달여간 단오제 행사가 대한민국 최대의 축제로 열린다. 중국의 굴월 제사인 단오절과 달리 강릉의 단오제는 지역 주민들이 대관령 국사성황과 국사여성황, 대관령 산신을 모시고 제의를 지내는 축제로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p> <p>강릉단오제는 음력 4월5일 조선조 관청이었던 칠사당에서 신주빚기를 시작하여 행사가 시작이 된다. 시민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신주미를 봉정하여 가정의 안녕을 기원한다. 대 제사를 시작으로 행사 기간 각종 무법과 제사를 지내며 한국 전통 행사 체험도 많다. 줄넘기, 가면 만들기, 씨름, 그네 타기 등등. 강릉의 남대천 강변 양안에는 행사 개최를 위해 긴 텐트를 쳤다. 텐트마다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간식, 옷, 장난감, 장식품, 주방기구 등 종류가 다양하고 시끌벅적하다.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아 한국뿐만 아니라 자국민들도 미래를 사모하는 외국인이 많다. 북쪽 기슭의 중간에 아주 큰 무대가 있는데 매일 다른 각종 공연, 한국의 전통적인 무용과 각국의 문화 공연, 관중석이 꽉 찼다.</p> <p>이곳에는 서울 등 대도시의 고층 빌딩이나 차수마룻이 없지만 지역 주민들이 매우 열정적이어서 외래 관광객들이 축제의 기쁨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왕첸루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5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人文江陵 ( 二 ) 강릉인문(2)					
기사내용	<p>背山面海的江陵除了风景美，也有人文美。说起江陵的人文就一定会首先想到乌竹轩。</p> <p>乌竹轩因为屋边周围遍布深色的竹子而得名，这里是韩国朝鲜王朝时期著名的女书画家，诗人申师任堂以及其儿子朝鲜时代著名学者和政治家栗谷李珣生活过的地方。乌竹轩建于朝鲜中宗时期，距今约500多年，属于韩国住宅中历史最悠久的木制房屋，乌竹轩内有栗谷先生的纪念馆，栗谷先生诞生的梦龙室，供奉栗谷先生的祠堂文成祠，还有自警门，四柱门，御制阁等等。</p> <p>除了乌竹轩还有船桥庄。船桥庄是1703年修建的住宅，据说当时船桥庄门前就是镜浦湖，因此进出都必须乘船。但是现在镜浦湖已经比当时缩小了近3倍，如今在船桥庄已经看不到镜浦湖了。船桥庄是由当时的富户李乃蕃及其子孙后代居住，曾被评选为韩国十大最美传统房屋之一。船桥庄内最有名的就是男主人居住的悦话堂，取分享喜悦与快乐之意。在悦话堂前面还有韩国传统房屋中难见的阳台，这是朝鲜末期俄罗斯公使馆作为礼物代为修建的。</p> <p>另外还有허균.허난설헌纪念公园。许筠是著名小说《洪吉童》的作者，他的姐姐许兰雪轩是当时著名的女诗人，可以在他们的故居体验韩国的传统茶礼。</p> <p>江陵的人文也期待您的体验。</p> <p>대관령 산자락 아래 바다를 품은 강릉에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인문미도 있다. 강릉의 인문이라면 오죽헌이 먼저 떠오른다.</p> <p>오죽헌은 저택 뒤뜰에 까마귀처럼 검은 대나무인 ‘오죽’이 자라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한국 조선시대 유명한 여성 화가이자 시인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인 조선시대 저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가 살았던 곳이다. 조선 중종 시대에 지어진 오죽헌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한국 주택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가옥에 속한다. 오죽헌에는 율곡 선생의 기념관, 율곡 선생이 탄생한 몽룡실, 율곡 선생을 모신 사당인 문성사, 그리고 자경문, 사주문, 어제각 등이 있다.</p> <p>오죽헌 말고도 선교장이 있다. 선교장은 1703년 지어진 주택으로 당시 선교장 문앞이 경포호여서 드나들 때 배를 타야 했다고 한다.하지만 지금은 경포호가 그때보다 3배 가까이 축소돼 선교장에서는 경포호가 보이지 않는다. 교장은 당시 부호였던 이내번과 그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한국 10대 가장 아름다운 전통가옥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교장 안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남자 주인이 사는 열화당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눈다는 뜻이다. 화당 앞에는 한국 전통가옥에서 보기 힘든 발코니도 있는데, 이는 조선 말 러시아 공사관이 선물로 대신 지은 것이다.</p>					

	그 외에 또 허균이 있다. 허균기념공원은 유명한 소설'홍길동'의 저자이며, 그의 누나 허난설헌은 당시 유명한 여류 시인으로 이들의 생가에서 한국의 전통 다례를 체험할 수 있다. 강릉의 인문도 당신의 체험을 기대합니다.
SNS 아이디	페이스북-왕첸루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6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作为外国人想说的话 (외국인으로서 하고싶은말)					
기사내용	<p>来到韩国生活已经十一年了，最初因为语言不通造成的各种障碍已经慢慢得到了解决。从一个国家来到另一个国家生活并不容易特别是作为嫁到另一个国家的女性而言更是艰难。</p> <p>可能是最初的自己想的太过简单，在真正嫁到这里生活在这里的时候才发现了自己的格格不入，或者说是文化差异。饮食的不同，生活习惯的不同这些其实都不算什么，毕竟是不一样的国家，对于已经有过在别国生活经历的自己并不是很难。但是预想之外的困难却是歧视，或者说是偏见与成见。因为历史的原因造成的一种固定难以改变的偏见。最开始我并不是很明白为什么在对方知道自己是中国人后一瞬间变换的眼神和语气，慢慢的就明白了因为历史的原因韩国人似乎并不是很喜欢中国人，当然只是一部分人们特别是上了年纪的人们。大概就像中国人也并不怎么喜欢日本人一样，特别是有过当时黑暗岁月经历的老人们，历史造成的影响是深远的也是不可估量的。所以我不再着急于改变对方的态度，只是用我的方式慢慢告诉对方，每个国家都有好人与坏人，每个国家的立场也都不尽相同，可是我们在相互的接触中能慢慢感受到对方的善意与真诚。</p> <p>生活在另一个国家确实不易，希望彼此能够多一些了解与真诚，少一些偏见和成见。</p> <p>한국에 와서 생활한 지 1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생긴 각종 오해와 불편함들이 시간이 흘러가며 따라서 서서히 해결되었다. 한 나라에서 낯선 다른 나라로 와서 살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부모형제 떠나 일가 친척이 없는 이국타향땅에서 결혼이민자로 산다는것이 더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다.</p> <p>처음에는 국제결혼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였다. 한국에 시집와서 정착을 하고 나서야 문화차이로 오는 서로 다른 생활들이 눈에 들어왔고 의사소통 문제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음식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는 사실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자신에게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예상 밖의 어려움은 차별, 혹은 편견과 선입견이다. 역사 때문에 생긴 고정적이고 바꾸기 어려운 편견때문에 처음에 나는 왜 상대방이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한순간에 바뀌는 눈빛과 말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역사 때문에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일부 사람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일 뿐이다. 아마도 중국인들도 일본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특히 당시의 어두운 세월을 겪은 노인들은 역사가 초래한 영향은 심원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일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이상 상대방의 태도를 서둘러 개변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방식으로 천천히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 각 나라마다 좋</p>					

	<p>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고 각 나라마다 입장이 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교류에서 상대방의 선의와 진정성을 천천히 느낄수 있다.</p> <p>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다. 서로 더 많은 이해와 진실, 편견과 선입견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왕첸루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7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想为我的子女说(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고싶은 말)					
기사내용	<p>今年是我在韩国生活的第十一年，我有一双儿女，一子一女刚好凑成了一个“好”字。女儿11岁，儿子9岁都在上小学。两个孩子都是活泼的性子，在学校和班级里都有几个不错的朋友。我似乎一直也并没有因为自己是外国人而担心自己的孩子在学校是否会遭遇到一些不太开心的事情，一直到我遇到了一位像我一样嫁到韩国的东南亚妈妈。这位外国妈妈的韩语水平不是很好，发音以及语言都不能很好的让人能马上明白她想要说的话。她有一个在上小学的女儿，女儿很内向不怎么爱说话。在与她认识之后，可能是因为同为结婚移民者的关系，她和我聊了很多，也让我吃惊了很多。她说，自己的女儿小时候很活泼的，可是不知道从什么时候开始就越来越不爱说话，让她的女儿改变的原因居然是因为她说外国人。同班同学不知道怎么就都知道了她的妈妈是东南亚来的外国人，继而竟然有些学生开始慢慢孤立她，甚至是取笑她有这样一个妈妈。而更加不能理解的是她的女儿讲事情告诉班主任后，班主任也只是不痛不痒的说了别的孩子几句。以至于班里的同学更加孤立她女儿。这位妈妈也给班主任打过电话，可能是自己不能很好的表达自己，那位老师只是敷衍的答了几句就挂断了。这件事情最后的结果是她带着女儿转去了另一个学校。</p> <p>听完了我吃惊不已，我似乎该庆幸自己的儿女并没有在学校遭遇到这样的对待。但是这件事也并不是个例，这似乎不是简单的国家或是地区偏见就能解释的问题，我想更多的是需要国家相应的教育机构引起重视。韩国的人口出生率一直走低，相信未来会有更多的多文化家庭诞生，将心比心那么这些多文化家庭的孩子们怎么样才能有一个更好更为公平的学习环境与生活呢？希望国家相关机构能够关注我们这样的一个群体，能够伸出帮助的手。</p> <p>올해는 내가 한국에서 생활한 지 11년이 되는 해이다. 나는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 큰 아이는 딸이고 작은 아이는 아들이다. 한자로 딸(女), 아들(子)마침 "좋은"(好)자가 된다. 딸은 11살, 아들은 9살 모두 초등학교에 다닌다. 두 아이는 모두 활발한 성격으로 학교와 반에 모두 괜찮은 친구가 몇 명 있다.나는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 아이가 학교에서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처럼 한국으로 시집 온 동남아 엄마를 만날 때까지 말이다.</p> <p>이 외국 엄마의 한국어 실력은 그다지 좋지 않다. 발음과 언어가 모두 좋지 않아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한다. 그분한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내성적이어서 말을 잘 하지 않는다.그녀와 알게 된 후에 같은 결혼이민자라서 그런지 그녀는 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를 많이 놀라게 했다.그는 자신의 딸이 어릴 때 활발하였지만 언제부턴가 갈수록 말을 잘 하지 않았</p>					

다고 한다. 그분의 딸을 변화시킨 원인은 뜻밖에도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았기 때문이란 다. 같은 반 친구들은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이어서 뜻밖에도 어떤 학생들은 서서히 그녀를 고립시키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에게 이런 엄마가 있다고 놀리기도 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아이가 담임선생님에게 이 일을 말한 후 담임선생님도 다른 아이에게 몇 마디 무미건조하게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반 친구들은 그녀의 딸을 더욱 왕따를 시켰다. 이 어머니도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자신이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했는지 그 선생님은 얼버무리기만 하고 몇 마디 대답하고 끝었다. 이 일의 마지막 결과는 그녀가 딸을 데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이다. 듣고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 일은 예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나 지역의 편견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국가의 상응하는 교육기관이 중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인구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탄생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고 공평한 학습 환경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국가 관련 기관이 우리 같은 집단에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바란다.

SNS  
아이디

페이스북-왕첸루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8	기사게시 방법	페이지북
주제	美食江陵(강릉미식)					
기사내용	<p>说到美食，大概是每个地方有每个地方的特色，江陵也不外乎此。其中最后特色的要算土豆粉团汤，荞麦凉面，还有草堂豆腐了。</p> <p>土豆粉团汤 ( 감자옹심이 ) 听这个名字就知道这是用土豆制作的美食。江陵的种植地多为沙土所以非常适合土豆的生长，因此这里的土豆要比别的地方的土豆更加软弱和香甜。把土豆洗净去皮后用特制的擦泥器把土豆擦成泥状，去除多余水分团成小圆球放到提前煮开秘方熬制的汤中几分钟过后一碗好吃的土豆粉团汤就出锅了撒上碎海苔和芝麻，热呼呼的吃下肚别提有多舒服了。</p> <p>还有荞麦凉面 ( 막국수 ) 喜欢荞麦特别的香味的朋友一定不要错过。虽然荞麦凉面最早来自春川，但是如今提起荞麦凉面很多人会给江陵点个赞。荞麦凉面顾名思义是有荞麦粉和面粉按一定比例制成的圆面条，不像一般冷面那样极细极细的。煮好的面条团在碗中加上带着冰碴子的汤，一勺特质辣酱，最上面放一些黄瓜丝和半个鸡蛋。在炎热的夏天，吹着海风，吃上一碗荞麦凉面整个人都是舒爽的。</p> <p>江陵草堂洞最有名的就是豆腐，豆腐中最有名的就是手磨豆腐火锅 ( 손두부 )。这里的豆腐与别处不同使用过滤后的海水制成。豆腐好不好吃关键在于水质，江陵的环境好，海水清澈干净，这就是草堂豆腐好吃的关键。把未压制成豆腐的豆腐花放在锅里加入高汤和辣酱，还有香菇肉片等等，咕嘟咕嘟的煮上一锅，吃上一口草堂豆腐特有的香甜味道在嘴里散开，会让人眉眼都染上笑意。</p> <p>江陵除了这些还有很多别的美食在等待大家一起分享。</p> <p>강릉에는 유명한 향토 음식이 있다. 특색이 있는 음식로는 감자옹심이, 막국수, 초당 순두부 등이 있다. 강릉은 토양은 토사가 많아서 감자가 더 포근하고 달콤하여 강원도 감자가 유명하다.</p> <p>감자옹심이의 주재료인 감자는 식사대용으로 좋은 식품이다. 칼륨이 풍부해 음식을 짜게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수분 조절을 하고,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해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칼륨은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감자옹심이는 감자를 갈아 물기를 짜낸 뒤 가라앉은 녹말가루와 섞어서 새알처럼 빚어 끓는 육수에 넣어 끓여 먹는다. 요즘에는 새알로 빚지 않고 수제비처럼 얇고 크게 떼어 넣어 감자수제비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p> <p>그리고 또 다른 향토 음식으로는 막국수를 빼놓을수 없다. 메밀의 특별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막국수는 춘천에서 처음 나왔지만 이제는 막국수 하면 강릉에'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많다.막국수는 말 그대로 메밀가루와 밀가루가 일정한 비율로 들어간 동그란 국수로 일반 냉면처럼 매우 가늘고 가늘지 않다.삶은</p>					

	<p>국수 뭉치는 그릇에 얼음이 든 국, 특질 고추장 한 숟가락, 맨 위에 오이채와 달걀 반 개를 얹는다. 무더운 여름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막국수 한 그릇을 먹으면 온통 상쾌하다.</p> <p>강릉 초당동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두부이고, 두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순두부 전골 (손두부) 이다. 이곳의 두부는 다른 곳과 달리 여과 된 바닷물을 사용해서 만든다. 두부가 맛있는지의 관건은 수질에 있다. 강릉은 환경이 좋고 바닷물이 맑고 깨끗한 것이 초당두부가 맛있는 포인트이다. 누르지 않고 두부로 만든 순두부를 냄비에 넣고 육수와 고추장, 그리고 표고버섯 편육 등을 넣고 부글부글 끓여 한 입 먹으면 초당두부 특유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눈가에는 음~ 이 맛이야라는 행복한 표정이 나도 모르게 피어오른다.</p> <p>강릉에는 이 외에도 많은 특색이 있는 음식들이 있다. 강릉에 와서 맛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중한 추억을 쌓아보기를 바란다.</p>
<p>SNS 아이디</p>	<p>페이스북-왕첸루 검색</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9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江陵의咖啡之旅(강릉의 커피여행)					
기사내용	<p>说起咖啡，可能绝大多数人们会觉得是大城市人们的最常饮品。可是江陵的咖啡店应该是算全国最多了。为什么呢？我们一起去探秘。</p> <p>박이추老师生于日本，二十多岁开始一直在经营牧场，并且往返于韩国日本之间。三十六岁的时候他想要生活在都市，就结束了自己的牧场生活开始了学习咖啡制作。并在1988年开了第一家自己的咖啡店，三年后正式更店名为“보헤미안”。亲自炒制咖啡豆，亲自研磨，亲自冲泡，朴老师在咖啡的制作中享受着自己的快乐。可是在都市的喧嚣下朴老师更希望有一个安静的地放静静品味咖啡，2000年在平昌高速休息站开了分店，2002年在江陵镜浦台附近开了另一家分店，即至如今江陵已经有四家“보헤미안”。</p> <p>朴老师总是说：制作咖啡这件事，没有尽头没有最好，需要一直创新和挑战，只有一直走下去和享受其中的过程。通过朴老师出师的咖啡师很多，朴老师在一定程度上带动了江陵整个咖啡事业。2009年开始的一年一度的江陵咖啡节也是咖啡店在江陵盛开的一个原因。</p> <p>还有一个悄悄带动江陵咖啡产业的隐形明星就是在안목海边的咖啡自动贩卖机。不知什么时候出现的这台机器，受到了很多人的欢迎，大家都觉得这台机器制作的咖啡是别的地方没有的美味，因此慕名而来的人们越来越多，现在在안목海边有一条长长的咖啡海边之路，海边各式各样的三四层咖啡店比邻而立，颜色造型上简约的，夸张的，艳丽的，低调的应有尽有，里面的饮品种类也是繁多不同，吸引着来江陵旅游或者在海边寻找美味的人们。</p> <p>坐在自己喜欢的咖啡店里听着缓缓的音乐，望着不远处蔚蓝的大海，品着手中苦苦又甜甜的咖啡，大概也是人生中一件乐事呢。</p> <p>커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도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강릉의 커피숍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비밀을 캐러 가자.</p> <p>박이추 선생님은 일본에서 태어나 20대부터 줄곧 목장을 경영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갔다. 서른 여섯 살 때 그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목장 생활을 접고 커피 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8년에 첫 번째 자신의 카페를 열었고, 3년 후에 정식으로 "보헤미안"이라는 가게를 여는하였다. 직접 원두를 볶고, 직접 갈고, 직접 타서 만드는 박 선생님은 커피 제조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셨다. 그러나 도시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박 선생님은 조용히 커피를 음미하기를 더 원했다. 2000년 평창 고속휴게소에 지점을 열었고, 2002년 강릉 경포대 부근에 또 다른 지점을 열었다. 즉 지</p>					

	<p>금까지 강릉에는 이미 4개의 '보헤미안'이 있다.</p> <p>박선생님은 항상 커피를 만드는 일은 끝이 없고 최고가 없으며 항상 혁신하고 도전해야 하며 그 과정을 계속 견고 즐기는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 박선생님이 양성한 바리스타가 많다. 박선생님은 강릉 커피 사업의 선두자이다. 2009년부터 1년에 한번 열리는 성대하게 열리는 강릉커피축제도 영향력이 있다.</p> <p>강릉의 커피 산업을 슬그머니 이끌었던 또 하나의 히든 스타가 바로 해변에 있는 커피 자판기다. 어느새 등장한 이 기계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모두들 이 기계가 만든 커피가 다른 곳에는 없는 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재 해변에는 긴 커피 해변길이 있다. 해변에는 각양각색의 3, 4층 커피숍이 이웃에 서 있다. 색깔 조형은 심플하고 과장되며 화려하고 조용하고 유익하다. 그 안의 음료 종류도 다양하여 강릉을 여행하거나 해변에서 맛있는 음식을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다.</p> <p>좋아하는 커피숍에 앉아 카페음악을 들으며 멀지 않은 곳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일상속에서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커피 한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p>
<p>SNS 아이디</p>	<p>페이스북-왕첸루 검색</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10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강릉시가족센터					
기사내용	<p>作为一个在韩国生活了十一年的外国人，我很感谢강릉가족센터对于我的帮助和支援。最开始来到韩国不会韩语的我一直和丈夫用英语交流，结婚不久怀孕之后我在朋友的帮助下在中心申请了结婚移民者韩语学习的课程。课程的进行方式是老师来我的家里教我韩语，一次两个小时，一周两次。所以对于韩语一窍不通的我开始从基础慢慢学起。老师很有耐心，一遍一遍地纠正我的发音，教我简单的韩语童谣，讲解韩国的礼仪文化让我受益颇多，我的韩语水平也开始从零基础慢慢的好起来。在我家女儿和儿子幼儿园时期，我在中心申请了儿女的韩国文化课教授活动，这是因为作为外国人我没有办法像韩国本土的妈妈一样细致自然的和孩子们说韩语，聊童话故事，为了让孩子们更好的学习母语我申请了这项活动。同样是老师来家里和孩子们一起互动两个小时，一周两次。在互动学习的过程中，老师根据孩子的实际情况教授韩语和算数，以及一起读书。这是我不能为孩子们做的，我很感谢中心的帮助。</p> <p>现在孩子们上了小学，我们参加了中心提供的家庭料理课，和孩子们一起洗菜，调味，跟着老师制作料理。以及各种的家庭沟通学习课，通过课堂的机会我们彼此说出自己的心里话，让父母与孩子的心能更加接近。还有很多户外家庭体验活动，和孩子们一起去丛林公园，植物园等等，通过丰富的各种活动让父母和孩子能更好的交流沟通。</p> <p>강릉가족센터帮助我从一开始什么都不会，到后来慢慢学会了适应另一个国家的生活，并且在养育孩子的过程中也给予了很大的帮助与关心，非常感谢。</p> <p>한국에서 11년을 살아온 결혼이민자로서 저에게 보내주신 도움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p> <p>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할 줄 몰랐던 저는 남편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한 후에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수업의 진행 방식은 선생님이 저의 집에 와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두 시간,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제 발음을 한 번 한 번 바로 잡아 주셨고 간단한 한국어 동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의 예절 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저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 제 한국어 수준도 제로 베이스에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과 아들이 유치원 시절에 저는 센터에서 자녀의 한국 문화 과목 교수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 본토의 엄마처럼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한국어를 하고 동화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모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활동을 신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집에 와서 아이들과</p>					

	<p>함께 두 시간, 일주일에 두 번 소통한다. 대화 위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아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한국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함께 책을 읽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해 줄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센터의 도움에 감사해요.</p> <p>현재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우리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정 요리 수업에 참가하여 아이들과 함께 야채를 씻고 간을 맞추며 선생님을 따라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석을 하였다 .그리고 각종 가정 소통 학습 수업,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서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소통을 하다 보니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또한 강릉시 가족센터는 야외 가족 체험 활동, 아이들과 함께 정글 공원, 식물원 등에 가서 풍부한 각종 활동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더 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p> <p>처음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지만 차츰 다른 나라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배웠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과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p>
<p>SNS 아이디</p>	<p>페이스북-왕첸루 검색</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11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双语教学(이중언어교육)					
기사내용	<p>                         我的孩子们很喜欢和在中国的外公外婆的视频电话，但是很可惜的是他们不会说中文，需要我在旁边一直翻译，我的父母不止一次的要求我一定要教孩子们学中文，我也知道中文的重要性，可是总是不能培养起学习的习惯。往往是开始两三天之后就因为这样那样的事情中断了学习，由于我的丈夫也不会中文，在家里我们之间交流都是用韩语所以想要教孩子们说中文更是难上加难。                     </p> <p>                         当时正好강릉가족센터有一个双语活动我就报名参加了，想学习看看到底怎样才能在家里自然的教孩子们说中文。第一节的时候我们学习了双语的重要性，在多文化家庭里大多数都是母亲一方是外国人，孩子们自然就比别的孩子更加容易的学习另一种语言，可是也有很多家庭的妈妈像我一样没能教会孩子们自己国家的语言，归根结底是作为母亲的我不够重视，妈妈国家的语言在于外公外婆沟通的时候还有孩子们理解妈妈国家文化的时候有非常重要的作用。所以在纠正了我自己对于双语的错误观点之后，我们跟着老师学习开始慢慢学习如何让孩子理解汉语，理解汉字，以及为了提高孩子的学习兴趣可以给孩子们制作贴纸表，表现优秀的时候贴上一枚笑脸贴纸，等所有的表格都贴满了会给他们一件他们想要的玩具或者零食。还有一起通过卡片游戏说中文，通过拼图说中文等等，每次学习完了回到家之后我都会和孩子们一起复习跟老师学过的东西，孩子们都非常的配合。                     </p> <p>                         虽然双语课程只有两个月的时间，但是通过这两个月的学习我认识到了双语的重要性也学习到了如何更自然的和孩子们一起说中文。                     </p> <p>                         나의 아이들은 중국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의 화상전화를 매우 좋아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이들은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내가 옆에서 계속 번역해야 한다.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꼭 가르쳐야 한다고 신신당부름 한다. 나도 중국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항상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없다.이런저런 일로 2, 3일 만에 공부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도 중국어를 못해 집에서는 우리 끼리 한국말로 대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기가 더 어렵다.                     </p> <p>                         이때마침 강릉가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중언어사업이 강릉시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중국어를 가르쳐야 할까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다. 교시에 우리는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대부분 어머니 쪽이 외국인이다. 아이들은 자연히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의 엄마들은 저처럼 아이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지 못한다. 결국 엄마인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는거에 대해 크게 중시하지 못했다. 엄마 나라의 언어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소통할 때 그                     </p>					

	<p>리고 아이들이 엄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이중언어 관점을 수정한 후,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 중국어, 한자 이해 방법,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기 위해 스티커 표를 만들고, 웃는 얼굴 스티커를 붙이고, 모든 서식이 짝 차면 그들이 원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게임으로 중국어 단어 말하기, 퍼즐로 중국어 말하기 등등 매번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복습하는데 아이들이 곧잘 따라 하였다.</p> <p>2개 국어 수업이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두 달 동안 공부하면서 2개 국어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아이들과 중국어를 더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법을 배웠다.</p>
<p>SNS 아이디</p>	<p>페이스북-왕첸루 검색</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왕첸루	기사작성 회차	12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我们一起做料理(우리함께요리하기)					
기사내용	<p>                         我的女儿今年四年级了，她开始对于料理有了小小的关注，在一此她成功的跟着网络视频制作成了一个小糕点之后，我报名参加了강릉가족세터의料理课。                     </p> <p>                         课程分为两个部分，一个是日常料理，一个是点甜制作。这两个部分孩子们都很感兴趣。日常料理课中，由于我的儿子9岁，正是不能安静的待着的年纪，所以他主动的承担了料理课程中洗完的事情，女儿和我一起制作料理，在制作的过程中需要用道具切食物的部分是我负责，剩下的调料配比，搅拌翻炒等等都是女儿一手承包，看着小小的人儿用着生疏的动作翻炒锅中的食物，还有儿子卖力的洗完，我的心里暖暖的。通过日常料理课，我们一起完成了土豆粉团咖喱，芝士牛肉披萨，玉米肉卷等多道菜，吃着自己做出的料理，两个孩子笑的非常开心。在甜点制作课程里，因为不需要用到刀具，所以更多的时候是两个孩子在跟着老师学习，我只是辅助。比如打散鸡蛋，筛面粉，搅拌，往模具里面挤制作好的面糊等等，虽然在家里我们也一起制作过蛋糕，但是家里的工具有限，而学习甜点的地方是一个宽敞齐全的糕点店，孩子们的兴趣自然更加浓厚，在烤箱里传出阵阵糕点的香气的时候，我们嘴里不由的感叹出一句：“好香啊！”通过甜点课程我们一起制作了巧克力小蛋糕，柠檬玛德琳，脆皮月饼等等甜点。把包装好的甜点送去爷爷奶奶家的时候，他们脸上待着骄傲的笑。                     </p> <p>                         料理课也不单单是让我们学会了几道料理和甜点的制作，而是提供了一个父母和孩子们可以自然沟通，相互协作的机会，对于家庭的成长给予了很好的帮助。                     </p> <p>                         나한테는 4학년 딸 아이가 있다. 딸내미는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한번은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간식을 성공적을 만들어냈다. 솜씨가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도 맛도 맛있었다. 나는 아이가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행복해 보여서 강릉시 가족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요리수업에 등록했다.                     </p> <p>                         수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정식 요리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디저트를 만드는 수업이었다. 이 두 가지 수업을 아이들은 모두 매우 흥미를 느꼈다. 일상 요리 수업에서 9살짜리 아들은 자유분방하여 요리 수업에서 야채를 씻은 일을 자진해서 맡았다. 딸은 나와 함께 요리를 만들었다. 만드는 과정에서 칼로 음식을 썰어야 하는 부분만 내가 맡았다. 나머지 양념장을 만들고, 요리를 볶거나 위험하 않는 일은 딸아이가 모두 도맡아했다. 어린 아이들이 서툴지만 열심히 냄비의 음식을 뒤적거리려는것을 보고 대견스러웠다. 특히 개구쟁이 아들이 열심히 채소를 씻고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다 뿌듯했다. 요리수업을 통해 웅심이카레, 치즈소고기피자, 옥수수고기말이 등 여러 요리를 함께 완성하고 직접 만든 요리를 먹으며 두 아이는 성취감에 환하게 웃었다. 디저트 만들기 수업에서는 칼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p>					

	<p>두 아이는 선생님이 시키시는대로 곧잘 따라했다. 오히려 내가 보조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계란을 깨고 밀가루를 체로 쳐서 반죽하고 찰주머니에 넣는것까지만 도와줬다. 비록 집에서든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만든적이 있지만 집의 도구는 제한되어있다.하지만 디저트를 배우러 간 곳은 넓고 모든 도구가 갖춰져 있는 제과점이다. 아이들의 취미는 자연히 더욱 농후해졌다. 오븐에서 직접 만든 디저트들의 구수한 향기가 솔솔 풍겨와서 코끝을 간지럽혔다. 맛있는 냄새에 우리는 입으로 감탄했다."정말 향기롭다!"디저트 수업을 통해 우리는 초콜릿 케이크, 레몬 마들렌, 바삭한 월병 등 디저트를 함께 만들었다. 포장된 디저트를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배달할 때 그들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p> <p>&lt;만남의 광장&gt;요리 수업은 단순히 몇 가지 요리와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소통을 통해서 협력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가족애가 더 끈끈해지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수 있어서 좋다.</p>
<p>SNS 아이디</p>	<p>페이스북-왕첸루 검색</p>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1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건강) 걷지 않는 사람들					
기사내용	<p>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걷는걸 꺼려 하기 시작 했다.  동네 슈퍼엘 가도, 목욕탕엘 가도,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도 모두 자가용을 이용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걷지 않고, 자동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걸어 보았을까?  지난봄 큰 아이가 친구와 함께 목표한 살을 빼지 못하면 벌칙으로 수원에서 서울 휘경동까지 걸기로 했다고 하더니 두 녀석 다 목표치를 이루지 못했나 보다.  3시간에 걸쳐 종아리에 파스까지 붙여가며 힘들었다는 인스타의 글을 보았다. 그래도 이젠 제법 인왕산을 뛰어오르는 걸 보니 역시 사람은 습관이 중요하다는걸 새삼 느끼게 된다.  나는 걷는걸 좋아한다.  많이 걸어도 이만보 안쪽에서 걷다보니 좀 더 걷고 싶은 욕심에 안목 해변에서 주문진 시장까지 걸은 적이 있었다. 그날 오전 시간을 걷는데 다 쏟아붓고, 먹은 점심은 정말 꿀맛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 강릉시에서 '워크온' 앱을 활용하여 "강릉여지도걷기" 챌린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입후 지금까지 참가하고 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그러나 막연히 혼자 하기엔 포기하기도 쉬운, 운동이기에 강릉시에서 하는 걷기 챌린지는 동기부여도 되고, 걷기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적극 추천한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글을 보았다. 걷는다는 것은 단지 이동의 수단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이 아닐까 생각 한다.  가장 단순한 운동법인 '걷기'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 실천해보자</p>					
SNS 아이디	인스타그램(sangim0403)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2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추석 명절					
기사내용	<p>시끌벅적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하루입니다.</p> <p>결혼 후 23년째 맞이하는 추석 코로나로 2년간 명절다운 명절을 못 지내다가 올해 추석은 정말 많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다녀왔습니다.</p> <p>시댁의 성묘길은 총11기의 산소를 다녀와야 해서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p> <p>장소도 강릉과 삼척으로 이동을 해야 해서 차례를 지내자마자 빠르게 움직여도 저녁이 될 즈음 강릉에 다시 도착하게 되는 그런 성묘길 이지만 마지막 행선지인 갈남향 산소길은 대나무숲길과 멀리 바라보이는 푸른 바다의 풍경이 피곤함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주어 너무 좋았습니다.</p> <p>후대를 생각하여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산소를 한군데로 모으고, 정리하고 있는 사연들을 쉽게 접하는 요즈음 그래도 전 조금 힘들지만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아직은 좋습니다.</p> <p>올해 추석 전 tv에서 간편한 차례상 표준안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p> <p>그중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우와”하며 감탄사를 내뿜었지만 ~ 어차피 식구들이 먹어야 하는데 저렇게 차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p> <p>여자들에게 있어 명절이 말 그대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p> <p>그래도 몸은 힘들지만 그동안 못 만났던 친지분들 만나 서로의 안부를 여쭙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운 올해의 추석은 나름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p>					
SNS 아이디	인스타 sangim0403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3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나빌레라 한복 만들기					
기사내용	<p>2주전 아는 선생님께서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p> <p>문화예술 프로그램 하나를 신청해서 함께 하자는 ~~~ 수업 기간이 10주의 수업이라 결석 없이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살짝 걱정도 되고, 망설임이 있었는데 한복을 만든다는 소리에 “예” 같이해요~~하며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다.</p> <p>한복!</p> <p>생활한복이지만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옷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다. 요즈음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나면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강릉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의 “나빌 레라” 라는 프로그램에 그렇게 나는 참가하게 되었다.</p> <p>우리나라의 전통한복</p> <p>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참 단정하고 예쁜 옷이다.</p> <p>그런 예쁜 옷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여년 이상 입은 기억이 없다. 한복을 참 좋아했었다. 이뻐서도 좋아했지만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나와도 몸의 80%는 가려줄 수 있는 옷이기에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빌 레라” 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최선희 선생님은 한복의 다양성과 예전과는 다르게 변해가는 한복의 모습을 잘 알려 주셨다.한복은 우리의 전통 의복이지만 시대와 함께 변화해 가고 있다.</p> <p>명절에 입고, 예복으로 입던 그런 한복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이 깃들여진 나만의 한복. 이번 작업을 통하여 내가 표현하고 싶고, 입고 싶은 한복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옷을 지을 수 있는 꿈을 가져 본다.</p>					
SNS 아이디	인스타 sangim0403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4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가족여행을 꿈꾸다					
기사내용	<p>가족이 모여 하루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던 가 아이들이 어렸을 땐 여행가자 가자 노래를 부르며 “그래 가자” 하며 호기롭게 길을 나서기도 하였는데 각자 대학생이 된 두 녀석의 스케줄을 맞추기도 힘들고, 나와 아이 아빠의 시간도 녹록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 올 여름은 지인들의 해외여행, 국내여행 등 여행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다. 내가 바라던 여행은 해외여행도 국내여행도 아닌 동네 한 바퀴였다. 비행기 타는 것도, 오래 운전 하는 것도 싫어지는 나이 안반 데기 꼭대기에 올라 돛자리 하나 펴 들고 여름 밤하늘의 별들과 은하수를 보 는 것, 고랭지 배추밭의 초록 초록을 바라보며 안구 정화를 시키고, 구름위의 땅 안반 데기 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면 족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이들이 바빠 못 내려온다는 소식에 혼자 조용히 집을 나왔다. 노암터널을 지나 월화다리를 건너 명주동까지 걸었다. 가끔 걷는 명주동 골목길의 집들과 담들은 나에게 침과 추억을 동시에 안겨준다. 걸다가 담벼락에 적힌 시구절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래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좋아 하는지 너희는 몰라도 된다. 너희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롯이 나의 것이니 그런데 우리 별 보러 가지 않으려?</p>					
SNS 아이디	인스타sangim0403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5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Road to Word Culture ‘세계 문화’ 프로그램을 참가하다					
기사내용	<p>2022년 10월 11일 강릉시 가족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세계문화체험 학습이었습니다.</p> <p>총 4차시에 걸쳐 진행 되는 수업이었고, 제가 참여한 이 날은 3차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참여 하였고, 18명의 가족들이 6모둠으로 나뉘 앉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p> <p>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하여 학습을 한뒤 체험을 하는 재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체험 할 나라의 수도는 워싱턴이며 화폐단위는 달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멕시코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p> <p>선생님의 질문으로 시작 된 수업은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업이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미국으로 연방정부와 북아메리카 48개주와 알래스카, 하와이의 2개주가 합해진 50개의 주정부가 합하여 미합중국이라는 설명과 성조기의 13개의 붉은줄 50개의 별에 대한 설명, 청교도인들이 영국으로부터 떠나 정착하게 된 이야기. 화폐단위와 자유의 여신상, 러시모어산, 흰머리독수리, 햄버거 등 설명만 있었다면 지루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틀린그림찾기를 이용해 흥미롭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의 센스 있는 수업 방식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끔씩 던지는 질문에 집중하다가 나도 모르게 “저요저요” 하며 손을 드는 내 모습에 살짝 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가족들은 할로윈. 추수감사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할로윈 사탕놀이와 할로윈케익을 만들기 시작 했는데 모든 가족들이 솜씨가 너무나 멋졌습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초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초컬릿으로 거미줄과 얼굴표현을 한 마쉬멜로우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날 엄마랑 함께 참가한 7살 흥#진 친구는 엄마랑 함께해서 더 즐겁다며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보였습니다.</p> <p>오늘 참여한 가족들 모두 즐거운 추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다문화의 감수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미래의 인재들로 거듭나는 다양한 수업들과 참여도가 높아지면 좋겠습니다.</p>					
SNS 아이디	인스타 sangim0403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6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부루마블 세계여행을 떠나자!					
기사내용	<p>10월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헬로(友)우 세계를 다(多)담다 페스티벌 “부루마블...세계여행”이 개최 되었다.</p> <p>지역내 다문화 가족의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 먹거리 부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p> <p>행사 식전에 도착하여 다양한 나라의 음식마당 에서 반미샌드위치, 분짜, 페스츄리 빵으로 점심을 대신하고, 다문화 인식개선 포스터 수상작들과 강릉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홍보물들을 읽어보았다.</p> <p>청소년들의 다문화 인식개선 포스터 수상작들은 학생들의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변화가 느껴질 정도의 놀라운 작품들이었다.</p> <p>자~ 이제 세계 전통놀이 부루마블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보자!</p> <p>필리핀의 잭스톤 놀이는 우리나라의 공기놀이와 비슷했는데 작은 고무공을 튕기고 오돌토돌한 공기를 잡는 쉽지않은 놀이였으나 나름 한번에 통과하고, 중국으로 이동하였다. 중국의 팔각견 놀이는 팔각견 중앙에 손가락을 넣고 빙글빙글 돌리면 되는데 돌리다 보면 중심에서 손가락이 벗어나 휘감겨 버려 어려웠다.</p> <p>일본의 하네츠키 놀이는 배드민턴처럼 하고이타 라는 나무채를 이용하여 깃털을 되받아치는 놀이인데 통통 잘 받아치는 나의 능력을 발견하기도 하였다.</p> <p>그 다음은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즐겨하는 세팍타크이다. 세팍타크는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인 세팍타크로의 원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기차기와 많이 비슷했다.</p> <p>깃털 끝에 흔들림 없는 무게감이 느껴 졌는데 제기차기를 잘하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 했다. 의상 퍼즐게임, 세계수도 퍼즐게임, 우리나라의 구슬치기, 사방치기도 신났었고, 일본의 와나게, 다루마오토시, 켄다마 등의 번외 게임도 있었다. 아프리카의 짐바 놀이는 대나무와 탁구공을 이용 서로 협력하여 공을 이동시키는 놀이인데 원래는 물동기와 물을 이용하여 물을 모으는 놀이란다. 여행하는 동안 모았던 도장으로 선물을 준다 하여 운영본부로 향했다. 뽑기를 통하여 각각의 다른 선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즐겁고, 신났던 세계여행을 종료하였다. 오늘의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다문화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문화 인식개선과 서로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넓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p>					
SNS 아이디	sangim 0403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7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적 정의에 대하여					
기사내용	<p>회복적 생활교육을 들었다.</p> <p>회복적 정의는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응보적 정의와 상반되는 정의이다.</p> <p>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 안에서도 갈등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p> <p>회복적 정의의 가장 핵심은 피해자와 피해상황의 회복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점이다.</p> <p>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 되는 피해와 영향을 직면하도록 돕고 그 피해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p> <p>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엘마이라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모임을 통하여 회복적 정의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p> <p>두 청소년이 동네의 자동차들 타이어를 펑크내고, 부순 사건이었는데 경찰에 붙잡히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p> <p>당시 보호 관찰관이었던 마크 얀츠는 판사에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 치유 방법으로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판사가 수락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의 불안감 해소와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처벌이 아닌 가해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가해자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p> <p>만약 이들이 죄에 대해 처벌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였을 때 가, 피해자의 관계는 한 공동체 안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어 버리곤 한다.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인지하고, 회복해야 하는 주체이고, 자발적이고, 진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다.</p> <p>자신이 행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고, 듣고, 느낄 기회가 있어야 한다.</p> <p>엘마이라 사건은 공동체의 중요성도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관계의 회복은 서로 직면하지 못하면 바뀔 수가 없다.다양한 갈등문제를 마주하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수용하여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일 앞으로 처벌이 아닌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배려와 존중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본다.</p>					
SNS 아이디	sangim0403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8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2022년 <강릉 전국생활문화축제>에 참가하다.					
기사내용	<p>2022년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강릉 명주예술마당 및 명주동 일원에서 전국 생활문화축제가 열렸다.2014년 서울 코엑스를 시작으로 9회째를 맞이하는 생활문화 축제는 2019년부터 지역 순회로 매년 가을에 열리고 있는 축제이며, 올해 코로나 이후 생활문화 현장에서 열리는 강릉 전국 생활문화축제는 문화로 잇는 일상의 행복 ‘일상이:지’라는 주제와 슬로건으로 생활문화란 우리에게 일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번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생활 문화인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프로그램 ‘만남이지’생활 문화인들의 생활예술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시작이지’지역 생활인들의 일상을 지역 골목에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골목이지’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생활 문화인들을 위해 활동내용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 ‘랜선이지’와 강릉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사계로 표현한 기획전시 강릉 생 일상 생활 문화사진 전시, 새 활용 체험, 공방 체험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p> <p>나는 그림책을 읽고, 토론과, 책놀이를 공부하는 그림책 동아리 ‘라라북’으로 ‘시작이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p> <p>강릉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활동가그룹 ‘이지가지’ 공모사업으로 구성된 라라북 동아리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단 선생님들과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일상 속에서 강릉의 자연을 벗 삼아 그동안 책을 읽고, 활동했던 모습들과 북아트의 결과물들을 전시하고,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동아리의 일상을 시민들과 전국에서 방문한 많은 생활 문화인들과 함께 공유하며 우리 모두 주인공인 일상 속의 축제를 경험하였다.</p> <p>가을이 내려앉은 명주동 골목길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골목전시와 강릉 할매들과 함께하는 명주할매 요리체험등 강릉만의 특색있는 지역주민들과 생활 문화인들의 교류와 소통, 상생을 통하여 이번 축제는 슬로건처럼 일상에서 이미 알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나누고 함께했던 소통의 장이었다.</p> <p>앞으로도 지역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생활문화와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활동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우리 일상의 삶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p>					
SNS 아이디	sangim0403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9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세계는 왜 싸우는가?					
	<p>강릉의 마을교육공동체 ‘날다 학교’에서 개최한 ‘전쟁과 사람 세계는 왜 싸우는가’ 민주시민포럼에 다녀왔다. 20여년간 분쟁지역 전문 프리랜서 김영미PD, 난민인권활동가이신 박진숙님 태국의 미토스 루르젤님 그리고 날다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 시민들이 함께 한 포럼에서는 30여분의 김영미PD님의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이 되었다. 세계각지의 분쟁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의 삶에 그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p> <p>김영미PD의 이야기 중에 분쟁지역 대부분의 전쟁은 당사자들이 table 위에서 서로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이야기 한다.</p> <p>국제협약을 통하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이를 무시하는 나라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변화 시켜 나갈 미래의 주인공이므로 교육이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미래다. 공감되는 말이였다.</p> <p>소말리아의 현 상황은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서 다니질 못하다보니 글도 사라지게 되고, 이 아이들의 가장 큰 꿈이 해적이 되는 것이 라는 말이 충격적이었다.</p> <p>잠시 우리나라의 과거 일제의 한글에 대한 말살정책이 떠올랐다.</p> <p>태국의 미토스님은 WEAVE의 대표를 맡고 계신다.1990년 설립된 WEAVE는 미얀마 난민 지원기관이다. 여성들에게 수공예품을 제작하게 하여 공정무역제품으로 수입을 얻고,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난민뿐만 아니라 현주민의 공동체 능력강화, 회복탄력성과 여성의 교육권, 성 평등, 아이와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존엄성이 있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박진숙님은 2006년 콩고난민 여성들을 만나면서 난민들과 인연을 맺었다. 이들에게 불어로 한글을 가르쳤고, 이들과 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를 세워 고유의 문화자원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 자립을 추구하고 교육하는 단체를 이끄셨다. 우리나라는 국제 난민협약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인듯 싶다. 한국사회가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 막연한 공포와 혐오가 난민 혐오로 이어졌고, 난민을 집단화해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했다. 부정적 판단이 아닌 알려는 노력을 해보기를 당부했다. 난민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이다. 난민, 인권, 세계 분쟁지역의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해 들으며 미래세대로서 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가치관에 관해 이야기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평화와 인권에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였다.</p>					
SNS 아이디	sang0403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10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강원도 막장을 아시나요?					
기사내용	<p>2022년 11월29일 식생활교육 강릉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식생활문화개선교육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하였다.</p> <p>오늘은 숙성된장 막장 만들기 체험을 하였는데, 장이라 하면 간장, 된장, 고추장을 통틀어 말한다.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음식이자 단백질의 주공급원이다.</p> <p>우리나라에서 장이 발달하게 된 중요한 조건으로 콩의 원산지이며, 향아리문화, 국토의 3/2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조건들이 좋은 미생물을 많이 만들고, 잘 발효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p> <p>장의 역사는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고구려조에서 “고구려 사람들은 장 발효에 뛰어나다”라고 했고, 메주 냄새를 고려사람 냄새라는 기록이 남아있다.</p> <p>우리나라 각 지역의 별미 장들이 있는데 서울의 어육장, 충청도의 비지장, 경상도의 시금장, 전라도의 집장, 그리고 강원도의 막장이 있다.</p> <p>된장은 메주를 소금물에 띄워 숙성 후 장 가르기를 통하여 된장과 간장으로 나누어 만들어 진다. 그러나 오늘 만든 막장은 찰 보리로 지은 보리밥에 엿기름물을 붓고 끓여서, 식혀, 만든 보리죽에 메줏가루와 소금, 고춧가루를 잘 버무려 섞어 만든 장으로 15일에서 30일정도 숙성 시킨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이다.</p> <p>된장은 간장을 뽑아낸 후 남은 것으로 만들지만 막장은 메줏가루를 갈아 직접 담가 먹기 때문에 맛도 영양가도 더 높다. 손이 아프도록 저어 만든 오늘의 막장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망을 씌워 자연 숙성을 시켜야 한다.</p> <p>요즘은 점점 슈퍼에서 가공된 장류들을 쉽게 접하는 현실이다.</p> <p>전통장류들이 재료 선정도 까다롭고, 오랜 시간과 과정이 힘들고, 아파트에서 보관하기도 쉽지 않아서 인 것 같다.</p> <p>우리의 조상들은 장을 한번 담그려면 시기, 물 선택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월 말(馬)날인 오(午)일 또는 그믐 손 없는 날, 우수, 입동, 춘. 추분, 삼복일에 장을 담그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어 장 담그기 좋은 날이라 했을 정도다.</p> <p>요즈음 기후, 환경 등 모든 것이 변하다 보니 장맛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래도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방식으로 발효된 깊고, 구수한 맛의 장류들의 맛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지킴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내년 정월 장 담그기 좋은날에 10년 만에 다시 한번 장 담그기에 도전장을 내밀어 본다.</p>					
SNS 아이디	sangim0403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11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
주제	나는야 농사짓는 어설픈 농부					
기사내용	<p>엇그제 배추 한아름을 선물 받았다. 나에게는 주말마다 가는 나의 놀이터가 있다. ‘동동이네 농장’이렇게 이름을 지은지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농사의 경험도, 지인도 없는 내가 무작정 땅을 사고, 농사를 시작하고, 5번의 겨울을 맞았다. 죽으면 없어질 몸이라고 생각하고, 식구들이 먹는 음식 건강하게 먹자고 시작했는데 그동안 많은 힘이 들었다. 농사짓는 분들이 보면 한심하다 말할 정도의 밭일 것이다. 농약, 비료 없이 그저 흙의 힘, 하늘이 내려 주시는 빗방울과 바람, 햇살만으로 농사를 짓다보니 수확량도 많지 않고, 밭도 매일매일 풀과의 전쟁이었다.</p> <p>그뿐이라~~ 매년마다 차려내는 고라니의 밥상은 우리 밭 연중행사. 사람들은 3년만 지나면 포기 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왜 사서 고생이냐고 이야기 했고, 열굴 망가진다고 만류 하는 이들도 있었다. 농약을 써야한다, 제초제를 뿌려라 등등다~ 나를 아껴서 해주는 말이었으리라..밭이 깨끗하지도 않고, 풀도 많고, 힘은 들었지만, 풀 한포기의 소중함,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 바람이 고맙고, 햇살이 고맙다.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함을 깨달았다. 고라니가 나의 밭을 찾아 영망을 만들어도 그것 또한 감사하다. 매년 찾아오는걸 보니 우리 밭에서 나오는 먹거리가 맛있나보다 생각하게 된다. 매해 봄이 돌아오면 밭을 갈고, 비닐을 씌우고, 씨앗을 심는다.</p> <p>환경을 생각한다면 비닐은 지양해야 하는데 나의 몸뚱아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 비닐과 부직포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작물을 심고, 키우고, 수확한 아이들은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수박, 참외, 오이, 가지, 여주, 호박, 배추가 있었다. 그중 올해 제대로 수확물을 얻지 못한 것은 고구마와 배추다. 배추는 몽땅 고라니의 밥이 되었고, 고구마는 순을 정리 하지 못해서인가 달린 양이 정말 너무 너무 없었다. 엇그제 밭에 가서 비닐을 벗기고, 부직포를 벗기고, 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의 텃밭이 비워지고 있었다. 텅 빈 밭을 보고 있자니 추운 겨울 어찌 지낼지 고라니가 걱정 된다. 3시가 넘어가자 나무에 해가 걸리면서 싸늘해진다. 서둘러 정리하고 차로 밭걸음을 옮기는데 앞집 할머니께서 배추를 한 아름 안겨주신다. 배춧국 끓여 먹으라고 주신 배추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주신 배추로 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찜도 싸서 먹고, 지인들에게 한 포기씩 신문지에 둘둘 말아 건넨다. “국 끓여 먹어~~배춧잎이 얇아 전 부치기에도 좋아” 아무소리 없이 들고 가주는 지인들이 고맙다. 이제 내년 계획을 세워야겠다. 파릇파릇한 봄을 기다리며~~</p>					
SNS 아이디	sangim0403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이상임	기사작성 회차	12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
주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파티					
기사내용	<p>2022년 12월 11일 강릉시 가족센터 3층 대강당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파티가 열렸다. 필리핀 결혼 이민자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KABAYAN 성탄절 파티였다. 필리핀은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교도여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명절중 하나이다. 강릉에는 현재 70여 가구의 필리핀 다문화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의 축제에는 50여명의 가족들이 참여하였다.</p> <p>1부에는 가족들이 모여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와 공예품들을 함께 만들었고, 2부에는 장기자랑과 전통게임, 그리고 전통음식을 함께 나누며 파티를 즐겼다. 풍선 놀이, 자루경주( Luksong sako) 놀이, 나무막대기에 과자와 장난감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아이들이 뛰어 잡는 파비틴 (Pabitin) 놀이와 함께 춤을 추며 장기자랑도 하였고, 경품추첨을 통해 선물도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바라보는 나에게도 미소가 번질 정도였다.</p> <p>필리핀의 전통 음식도 함께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p> <p>판싯 (Pansit)은 생일날에 주로 먹는 음식이라 하는데 필리핀 국수로 장수와 건강을 의미하는 음식이고, 비빙카 (Bibingka) 라는 전통 구운 라이스 케이크, 빌로빌로 (Bilo-bilo) 라는 우리나라의 죽과 같은 디저트, 마하 블랑카 ( Maja Blanca ) 라는 코코넛 푸딩 디저트 등 쉽게 맛볼 수 없는 필리핀의 음식들과 치킨, 떡, 브라우니 , 과일 등 먹거리 또한 풍성한 파티였다.</p> <p>행사 진행을 하였던 가족센터 통번역지원사 Gutierrez Glenn 님은 3년 만에 여는 축제라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시면서 웃음 가득한 모습이셨고, 필리핀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 시즌은 9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시며 코로나로 모이질 못해 그동안 너무 아쉬웠다고도 말씀해 주셨다.</p> <p>필리핀의 최대 명절이라 하니 고향이 더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p> <p>오늘 이 크리스마스파티를 통하여 결혼이민자분들과 가족들 모두 서로 서로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필리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이 행사가 나에게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p>					
SNS 아이디	sangim0403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1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매콤한 김치					
기사내용	<p>저는 베트남 사람이지만 김치를 무척 좋아합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음식 중에 무엇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나고 할 때 가정 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누군가 맛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먹음직합니다.</p> <p>김치는 영양 많고 건강한 식품입니다. 추운 겨울 싱싱한 채소를 먹지 못할 때 김치를 해서 비타민과 유산균을 먹으며 건강을 지켰다니 놀랍습니다. 김치를 만들 때 넣는 젓갈과 비슷한 것이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바로 느억맘입니다. 새우나 작은 생선을 소금에 절여 독에 담아서 뚜껑을 닫고 밀봉해 땅속에서 발효시킵니다. 2개월 정도 지나면 갈색의 진한 액체가 됩니다.</p> <p>한국에서는 젓갈을 김치할 때 넣지만 베트남에서는 느억맘을 소스처럼 찍어 먹습니다. 월남쌈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p> <p>다. 김치를 먹다보면 열정적으로 사는 한국 사람의 성격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맵고 짠 김치는 시원하고 매콤하고 화끈합니다. 한국 사람도 역동적이고 싫은 거 좋은 거 감추지 않고 에너지를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정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함께 화를 내며 공감해 줍니다. 이제 웬지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면서 즐겨먹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p> <p>처음에는 한국에 왔을 때는 낯선 환경이 어색했습니다. 문화, 생활 ,음식 등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강물처럼 흐르듯 흐를수록 빨리 지나가면서도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먹어도 김치랑 같이 꼭 먹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목이 메지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p> <p>강릉시 다문화센터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 했습니다. 그 중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주는 ‘김장 담기’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석 했습니다. 김장한 다음에 안개처럼 하얗게 퍼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소한 돼지고기 수육을 배추 잎에 올려놓고 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치 덕분에 매년 좋은 추억 쌓으며 겨울 내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p> <p>아직도 ‘김장’ 담그는 과정 서툴고 맛있게 김치를 담그지 못하지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 어머님처럼 손맛으로 김치를 담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정지혜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2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신기한 한국 날씨					
기사내용	<p>한국 날씨는 봄, 여름,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날씨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은 열대우림 지역이라 홍수만 대비하면 되지만, 사계절이 있는 곳은 홍수, 폭설을 다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이 굉장히 빨리 오는 기후 특성 때문에 습하고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의류도 봄,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옷을 다 사야 합니다. 실내온도 조절을 위해 냉난방 장치를 모두 구비해야 하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p> <p>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봄이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 산과 들이 온통 푸르러지지요. 한 겨울에 눈 속에 뒤덮여 있어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풀이 신기합니다. 눈이 녹고 농사 준비를 위해 그 자리에 거름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진동하는 소똥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강가에 버들강아지풀도 생기고,나뭇가지마다 꼭 방울이 피어날 것처럼 매달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봄이 시작됐구나 생각합니다.</p> <p>때로는 생각치 못한 추위가 덮쳐 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몸과 마음으로 움츠리게 만들지요. 이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초봄이 지나 따듯해지고 꽃이 필 때쯤 다시 날씨가 추워지는 현상입니다.</p> <p>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때 봄이지만 저한테 너무나 춥게 느끼면서 지나갔습니다. 아침,저녁은 서늘하고 낮에는 따듯하고 꽃들이 이곳 저곳으로 아름다운 피어났습니다. 향기도 은은하면서 꽃밭에 잠깐 여행에 갔다 왔습니다.</p> <p>여름은 너무 덥고 습하면서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히게 덥다가 갑자기 하늘을 구멍이 뚫린 듯이 비가 짹짹 내려요. 그러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치죠. 장마 기간은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어요.</p> <p>무더운 날 가족들이랑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서 온몸을 모래 속에 파 묻기도 하고 물속으로 몸을 담구고 있어도 좋습니다. 무더위 여름 날씨 기간에는 오랫동안 맑은 날씨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뜨겁던 여름도 열기가 식습니다.</p> <p>가을이 오면 선선합니다. 점점 추워지고 낮의 길이도 짧아 지면서 겨울이 됩니다. 하얀 눈이 펄펄 내리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요. 가을은 공기가 맑고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천고마비"의 계절로 표현을 합니다. "살랑살랑 가을 바람을 불어오면서 농촌의 들녘은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가을걷이가 끝난 들판에 쌓아놓은 벧단을 보면 제가 다 뿌듯합니다.</p> <p>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들이 들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황량하고 쓸쓸한 기분도 듭니다. 나뭇잎 떨어지고 아쉽지만 신비한 가을에 헤어져야 합니다.</p>					

겨울 날씨는 너무 춥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에 온 세상이 하얀 드레스 입는 것처럼 산뜻하며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에도 비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하고 눈이 같이 내린 날에는 무거운 빗방울이 불꽃놀이처럼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의 한국 날씨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삼한 사온" 현상입니다.

"삼한 시온"이란 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은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는 겨울 날씨였습니다. 4계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을 바로 "가을입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오면 등산에 올라가면서 알록달록 단풍들이 구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향 베트남의 날씨는 한국처럼 뚜렷하지 않지만 "건기와 우기"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건기"의 장점은 건조하면서 햇빛이 강하면서도 말린 음식을 곰팡이 안 나게 오래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건조하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어 농사를 잘 안 되고 날씨가 더 덥다가 더 습합니다. 우기의 장점은 무더운 여름날에 비가 한 번 오지 않으면 오후 활동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럴 때 비가 한번씩 와주면 날씨가 풀리고는 합니다. 단점은 비가 계속 내리면 움직여도 불편하고 날씨가 덥고 습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오면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날씨는 제게 신기했습니다. 그런 날씨에 적응하느라 저도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그런 날씨가 한국 사람들을 빨리빨리 부지런히 살게 만드나 봅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 되어 가나 봅니다. 부지런히 살고 있으니까요.

SNS  
아이디

페이스북-정지혜 검색

# 즐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3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배우기 어렵지만 재미 있는 한국어					
기사내용	<p>베트남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했다. 대표 음식이 '김치'라고 많이 들어봤지만 과연 맛이 어떤지.... 딱 한 번이라도 맛을 보고 싶었다. 한국에서의 겨울은 춥다고 했는데 어떤 추위일까 알고 싶었다. '겨울 왕국'이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포근한 솜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변한 다는데 어떤 모습인지....궁금했다. 하얀 눈 경치를 구경하고 싶고 눈사람을 직접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p> <p>그래서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었고 더 알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책을 샀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글씨를 쓰려고 해도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 되니까 .....한국어를 배울 수 밖에 없었다. 고향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라 한국에 오고 나서 공부한 내용과 발음이 차이가 많이 났다. 한국에서 살아가려니 알아야 할게 천지여서 어려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p> <p>앞으로도 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한국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배워야 한다. 예를들어 문화,습관,일상 생활에 관한 것도 공부해야 된다. 처음엔 한국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다. 가족들이랑 손짓발짓으로 대화를 했다.</p> <p>한국어를 배우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갔다. 낯선 환경이었기에 한국어를 배우러 갈 때 시아버지께서 차를 운전하면서 태워 주셨다. 내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가셨다. 늘 시아버지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가다 보니 길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녔다. 항상 내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 한 이야기가 많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답답한 점도 있고 어렵기도 했다.</p> <p>빗물처럼 주룩주룩 막 눈물을 쏟은 적도 있었다. 그래도 한국어는 어렵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재미있게 느껴졌다. 한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p> <p>첫째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다. "훈민정음" 이라고 하는데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하는 뜻을 담고 있다. 훈민정음 은 신비로운 문자라도 부르곤 한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남의 나라 글자 한문을 빌려 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쉽게 알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 한문은 우리말과 서로 통하지 않아 배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글자였다.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 쉬운 새로운 문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세종대왕은 백성의 불편을 덜어 주고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것이다.</p> <p>두번 째는 한자에 비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는 바로 "한글" 이라고 한다. 세종대왕 덕분에 국민들 모두가 깨우치기 간단하고 쓰기 편리한 한글을 쓰게</p>					

	<p>되었다.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재밌다.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직접 보고 배워 보니 재밌다.</p> <p>한 단어 한 단어씩 다양한 뜻을 담기고 있었다. 나도 한국어를 계속 배우며 어려운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 왔다. 물론 시간이 없었지만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말을 하는 동안 나도 한국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하고 싶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정지혜 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4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햇밤줍기					
기사내용	<p>올해도 시간은 썩썩한 바람처럼 지나갔다. 어느새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가을이 다시 찾아 왔다. 하늘은 푸르게 높은 맑은 가을이 되었다.</p> <p>가을이 되니 낮보다 밤의 길이가 길어졌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음을 아침저녁 선선한 날씨로 실감할 수 있다. 하늘은 높고 맑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농부들은 풍성한 결과물을 수확하는 때다.</p> <p>뉴스에서 밤나무에서 햇밤의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9월 18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아이들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움직였다. 버스를 타고 걸으며 햇밤을 줍기 위해 산으로 향했다.</p> <p>밤나무가 있는 홍제동 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밤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을 받은 신선한 햇밤이 엄청 많이 떨어져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p> <p>멀리서 보니 밤송이는 뽀족뽀족한 고슴고치 가시처럼 보였다. 밤송이가 벌어지면서 떨어진 알밤은 산위로 올라갈수록 밤알 크기가 점점 커졌다. 아기 주먹손만큼이나 큰 햇밤도 획득했다.</p> <p>밤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많이 열려서 내 마음도 뿌듯했다. 밤송이에 밤알들이 꼭 차 있었다. 토실토실 잘 여물어서 밤 풍년이였다.</p> <p>햇밤 줍는 곳 근처에 있던 감나무 밑에서 돛자리를 폈다. 아이들과 맛있게 점심 먹기도 했다. 이번에 주워 온 햇밤을 찌서 먹으니 포슬포슬했다. 담백한 밤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밤은 삶거나 구워서 막어도 맛있다. 특히 겨울철 밤거리에 군밤 장수가 파는 군밤은따뜻하고 잘 익어 먹으면 고소하고 달큰해서 간식으로 최고다.</p> <p>특히 이번 추석에는 시어머니랑 예쁜 송편도 빚었습니다. 잘 익은 밤을 소로 넣고 꼭꼭 눌러 빚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가을 햇밤 줍기로 나만의 추억이 하나 더 늘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정지혜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5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설날					
기사내용	<p>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음식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밥 주식이면서 찹쌀로 만드는 떡 드은 우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는 설날이 되면 떡국을 끓여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떡국 한 그릇을 먹어야 나이도 함께 먹는다는 설과 풍족해지라는 의미 때문이지요.</p> <p>한국에서 떡국을 먹듯이 베트남 설날에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쌀로 만든 반쫀( banh chung) 과 반 바이 ( banh day)라는 두 개의 떡이 있습니다.</p> <p>반쫀은 12시간 동안 삶아서 만든 음식입니다. 원통형식으로 둥근 모양으로 만듭니다. 모양에도 의가 담겨 있습니다. 네모난 모양을 땅을 뜻하고, 둥근 모양은 하늘을 뜻합니다. 베트남인들은 설날 아침을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나쁜 일이 생기다면 일 년 간 매우 심한 어려움과 불행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설 전날에는 한 해 동안 일어난 불행을 모두 털어버린다는 의미로 밤에는 불꽃놀이를 합니다. 설날에는 집집마다 반드시 수박을 준비합니다. 수박을 잘랐을 때 빨갭게 익었으면 복이 가득하다고 합니다.</p> <p>한국에 와서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바닷가 쪽에 가서 해돋이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어둠을 뚫고 솟아 나오는 빛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p> <p>해돋이를 보러 와 떠오르는 해를 보고 나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다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 모두 나와 비슷한 마음과 바람을 품고 있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p> <p>한국에서는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친척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흩어져 있다가 설날에는 가족들이랑 먼 친척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p> <p>베트남도 명절이 오면 가족과 친척들 모두 모여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한국과 비슷합니다. 과일, 고기 같은 여러 반찬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p> <p>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설날 밥상 앞에서는 오순도순 행복했습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정지혜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6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교육열이 높은 한국 문화					
기사내용	<p>어느 나라든 그 곳만의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했던 점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문화는 바로 ‘높은 교육열’ 아닐까요? 그래서 조기교육 시키지 않는 엄마는 열정적인 엄마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 하면 좋겠지만 늘 건강하고 밝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찾아가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p> <p>아이에게 또래 친구들이 점점 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까?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였습니다. 아이한테 앞에서 엄마의 성공할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뭐든지 옆에서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어제 밤늦게 본 &lt;공부가 머니&gt;가 한참동안 마음을 쓸쓸하게 울적하게 만들었습니다.</p> <p>저는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딸이 있고 중학생이 되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도 그랬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학원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상황을 존중해 주고 그 아이가 원하는 활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둘째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과목 중에서 오빠가 제일 잘했던 것은 바로 ‘국어, 영어, 사회’ 과목입니다. 학교에서 평가할 때 최고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p> <p>그런 오빠를 보고 자라서인지 둘째도 나름 자기가 활동을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너무 좋아해서 연필을 쥐고 자음, 모음 한 자 씩 토박토박 따라 그리면서 한글도 많이 알게 되면서 소리를 내면서 자신 있게 책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책 속에 있는 단어를 공책에 옮겨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글자도 그림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ㄱ’을 써 보자 ‘ㄴ’을 써 보자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즐기면서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는 엄마의 욕심으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게 되어버릴까 봐요.</p> <p>저도 앞에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이런저런 학습지 시키는 엄마들은 볼 때 한 번씩 마음은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짐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아이와 함께 했던 갖가지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랑 함께 소중한 추억 거리를 많이 만들면서 제 소신을 지켜 가려고 합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정지혜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7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6학년 괜찮을까?					
기사내용	<p>전래동화의 기승전결처럼 결국 “그러해서 잘 살았답니다” 식의 식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여하튼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봐 주세요.</p> <p>초등학생이라 해도 4학년 이후부터 6학년까지 ‘사춘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변의 엄마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그 말은 맞았습니다. 사춘기는 드디어 찾아 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올해 여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일찍 찾아 온 사춘기는 아이를 변하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당시에는 무엇을 해도 참 잘 했다고 기특하다고 많이 칭찬해 주었습니다.</p> <p>그런데 5학년이 시작되니 공부도 억지로 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엄마로서 욕심을 부려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준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잔소리도 안하고 지켜봤습니다.</p> <p>아이 입장에서 보니 매일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 동안 힘들었겠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생겼습니다. 저 역시 또 다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p> <p>큰아이는 크느라고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 스스로 다시 열심히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슬럼프도 있을 수 있지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겁니다.</p> <p>그냥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격려하고 지나치지 않게 조언해 주는 든든한 가족과 함께 열심히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정지혜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8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외국인 엄마					
기사내용	<p>사람들은 누구나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저의 고민은 ‘언어’였습니다.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두 가지를 실천 했습니다. 첫째, 공부를 선택 했습니다. 처음에 낯선 나라 한국에 첫발을 들여놓은 제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중요했습니다. 말이 먼저 통해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국어처럼 한국어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학이나 한자처럼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p> <p>둘째, 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p> <p>저는 결혼 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부터 꿈에도 그리던 나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하루 24시간을 일 년 365일을 함께 지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행복하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힘들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제게 기쁨을 주었습니다.</p> <p>아이는 젖을 떼고 무럭무럭 자라 걷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갔습니다. 7세가 되었을 때 엄마인 저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에게 공부 방법도 가르쳐 주고 현명한 길로 결정해 주어야 하는 초보 엄마인데 수많은 옆집 엄마들의 높은 교육열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과도한 정보 때문에 오히려 혼란의 구렁이에 빠졌습니다.</p> <p>앞으로 경쟁하며 이겨내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였을 때의 감동을 다 잊은 것처럼 밀어내고 당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p> <p>이제 12살 아들과 7살 막내 딸 남매 키우고 있는 저에게 딸은 정말 아웃풋이 잘 나오는데 그에 비해 아들은 .....뭔가 부족한 듯 말이 안 통여서 걱정이었습니다. 다소 짧은 문장지만 본인 스스로 말 한 마디 한 마디 내 뱉을 때마다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만 했습니다.</p> <p>아이들이 잘 자라 준 것은 저에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매니저로 저는 정말 위기상황이었거든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커가는 아이에게 공부란 ..... 학습이란 저에게 너무나 큰 과제 같기도 했습니다.</p> <p>아이들이 책 읽기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 주려고 하면 아이는 겨우 한 페이지 넘길 때 글도 모르면서 자기가 읽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책 한 권 읽어 주기가 힘들었던 아이한테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공부를 봐 주면서 보람된 점은 우리 아이의 장점과 단점은 알아가고 장점은 부각 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p>					

	<p>앞으로도 그러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나와 아이의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해 줄 것입니다. 아이의 공부 실력을 더 높게 올려 줄 수 있을까 의심이 되네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판단 후 선택하는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할 것 같습니다.</p>
<p>SNS 아이디</p>	<p>페이스북-정지혜검색</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9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추석					
기사내용	<p>어느 순간 아침·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많아지고 선선해지는 기운이 확 느껴지네요. 계절이 바뀌는 시간, 가을이 옵니다. 계절이 바뀌니 어느 덧 추석맞이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p> <p>신기한 점은 베트남에서도 추석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베트남과 한국의 추석은 정말 많이 다르답니다. 다가오는 한국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과 베트남의 추석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까요?</p> <p>한국과 마찬가지로 음력 8월 15일 베트남도 추석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추석 명절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한국의 추석은 멀리 사는 가족들이랑 한 곳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을 나누는데 베트남의 추석은 한국처럼 큰 명절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추석은 한국의 '어린이날'처럼 아이들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이들은 달을 향해 달리기도 합니다.</p> <p>한국의 추석은 또는 한가위, 음력 8월 15일로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을 맞이하는 달의 명절입니다. 추석 때 먹는 송편은 햅쌀로 만들기도 하지만 올벼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올벼쌀이라는 게 덜 익은 벼를 훑어서 찌서 말리는 쌀입니다.</p> <p>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1년 중 가장 풍성한 시기로 풍년 농사에 감사하여 아침에 일찍 거두어들인 햇곡식과 과일을 조상께 올리고 이웃과 음식을 나눕니다.</p> <p>이웃집에서 송편을 가져오면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똑같이 송편을 담아 보냈습니다.</p> <p>조상께 감사한 마음과 다음 해 한 해 더 풍년 되길 바라면서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여자들은 달밤에 강강술래 놀이를 했습니다. 추석에는 널뛰기, 제기차기, 윷놀이, 씨름 등의 놀이를 합니다.</p> <p>베트남에 추석이 있지만 한국처럼 큰 명절이 아니고 쉬는 날이 아닌 평일입니다. 가족들이랑 모이는 것은 아니고 직장인들은 정상 출근을 하고 학교도 당연히 수업을 합니다. 베트남은 정식 어린이날이 따로 있습니다. 6월1일입니다. 어린이 미래에 대해 생각해서 1년 중에 하루를 정해 어린이날을 기념합니다.</p> <p>한국과 다르게 베트남의 추석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날의 개</p>					

	<p>냘이라고 봅니다. ‘어린이날’로 여겨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이 날만 큼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과 선물을 준비하고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냅 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를 선물해 주고 아이들은 각자 선물 받는 것들은 가 지고 길거리로 나와 뛰어 놀며 또 한 번의 어린이날은 즐겁습니다.</p> <p>추석 날 어린 아이들은 등불을 만들어 밤이 되면 가지고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여러 모양의 종이 등불을 들고 복을 치고 가면 자기 스스로 다니면서 다른 손에는 월병을 들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바로 음식입니다. 베트남 추석의 대표 음식은 월병(뽀 좡투)입니다. 단맛이 나며 보통 동 그란 모양인데 팔 또는 녹두 앙금이 속에 들어있거나 소금에 절인 노른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추석빵에 새기는 문양은 꽃·돼지·잉어 등 다양합니다.</p> <p>아직도 저는 베트남의 추석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재 미있게 놀았던 놀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어린 날 제가 겪었던 추석의 추억이 생각한 때가 많았습니다. 어린 때에는 부모님께 자꾸 졸라서 제가 갖 고 싶은 장난감을 사 달라고 했던 추억에 떠올라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기에 더욱 슬펐습니다.</p>
<p>SNS 아이디</p>	<p>페이스북-정지혜검색</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10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영어 학원에 갈까 ? 말까?					
기사내용	<p>아이가 초등 2학년이 되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영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거나 누구는 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영어교육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학원 여기저기 찾게 되었습니다.</p> <p>아직 영어 학원에 한 번 가지 않은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좋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3학년 학교에서 하는 영어교육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어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p> <p>아이는 3학년이 되면서 무엇보다 일주일 2번 있는 화요일, 목요일 영어 수업 시간이 기다렸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 다른 아이들의 영어 공부 이야기도 전해 듣고 함께 나누며 때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도 받고, 때로는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위로로 받을 수 있어서 더 소중하게 수업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p> <p>저는 아이가 유학어학원이나 영어학원처럼 단시간에 성과물들이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오래 끓여 깊은 맛을 내는 푹배기 음식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영어의 깊은 참맛을 느끼는 그 날까지 기다리며 응원해 줄 겁니다.</p> <p>평소 학원을 다니는 것에 대해 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학원을 다녔으면 아이나 저나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매일 매일 조금씩 영어공부를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더불어 아이는 영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p> <p>매일 일지를 쓰면서 뭔가 쌓여가는 느낌이 듭니다.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성취감도 점점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자리 돌아와 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p> <p>결국 아들의 마음을 믿고 영어 학원에 보내지 않았던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고생 끝에 지금까지의 노력을 뽐낼 때가 왔습니다. 영어를 하면 영어의 자유를 느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입니다. 영어를 하기 싫어서 꽤 부리던 우리 아들에게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걸 보면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기다렸더니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p> <p>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저도 생각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 때부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생각도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과</p>					

	많은 일들을 겪어 왔지만 포기하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NS 아이디	페이스북-정지혜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11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					
기사내용	<p>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아이의 재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 했습니다. 미술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을 보낼까? 태권도장에 보낼까? 운동을 시킬까? 고민했습니다. 남자 아이니까 운동을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이 바로 엄마 마음인가 봅니다. 요즘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재능이 보이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지도를 많이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찾아 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 아닐까요?</p> <p>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일 혼자서 등·하교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면 본인 자신을 믿고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꼭 배우고 싶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저런 약속을 하면 학교에서 있는 축구부 가서 신청하고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 아들이 축구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싶었습니다.</p> <p>그렇게 2학년부터 지금까지 방과후 축구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계속하니 힘들텐데도 재미있다고 축구 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전보다 축구하는 것도 더 좋아했고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몸무게 6kg 정도 감량했습니다.</p> <p>이제 중학교에 가면 축구를 쉬어야 될 것 같다고 축구 말고 공부를 위한 다른 학원을 가면 어떨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아이는 축구가 좋다고 더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풋살화를 신고 유니폼을 입고 다른 학교랑 경기도 나가서 뛰면 싱글 벙글 웃는 아이를 보면 좋아하는 게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을 찰 때 넘어질까 걱정도 되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수업 들을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p> <p>그래서 저는 이기는 것도 좋겠지만 쳐도 괜찮은 것 같아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배울게 너무 많은 우리집 어린 아이입니다. 그 동안 아이가 재미있게 축구 훈련을 받는 동안 저도 훈련까지 받은 느낌었습니다. 축구는 많은 부분들을 성장시켜 주는데 그 중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공 하나만 가지고 그에 통해 아아들 자신감이 생각하는 힘과 행동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골 넣기 전까지 달리고 또 달려 열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올해에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참가하는 경기를 빠짐없이 아들이랑 소리를 지르면서도 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p>					

	<p>축구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 아들이 언제나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축구를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즐겁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이보다 욕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다치지 말고 실 컷 뛰어 다니며 친구들이랑 재미나게 공을 차고 왔으면 좋겠습니다.</p>
<p>SNS 아이디</p>	<p>페이스북 - 정지혜검색</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정지혜	기사작성 회차	12	기사게시 방법	페이지북
주제	독서는 나의 힘					
기사내용	<p>저는 책을 좋아하고 뭐든 알고 싶어 공부하고 글을 쓰는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주변에 저랑 비슷하게 책을 빠진 사람들도 있겠지요. 제가 왜 책을 좋아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p> <p>첫째,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하려면 먼저 엄마가 어느 정도 알고 같이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책을 읽어 줄 때 아이들이 약간 졸린 눈이 됩니다. 그래서 집 말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 재미 있었습니다. 책을 잘 읽는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p> <p>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꺼내서 마음에 담아 놓고 다른 사람이 읽는 책을 요리보고 저리 봅니다. 아이들과 음식을 꼭꼭 잘 씹어 먹듯 책을 보자고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우리들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오늘은 마음이 어떤지, 한 주간 어땠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p> <p>엄마인 내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있어 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잘 놀았지만 정말 심심했었던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할 수 있어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이들도 참 고생이다 싶어 미안했습니다.</p> <p>둘째, 책을 읽고 나서 후기를 남기는 게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기에 글쓰기가 재미있고, 유익하면서도 맛깔나게 써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p> <p>며칠에 걸쳐서 집안에 흩어져 있던 책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이 느낀 감성을 솔직하게 적거나, 혹은 길게 쓰지는 못 하더라도 짧은 소감이라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기를 나중에 다시 읽으면 “그 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 책에 대한 생각도 변화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p> <p>저는 늘 변함없이 책을 좋아합니다. 책을 읽고 기록하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면 한번이라도 책을 더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이 생깁니다. 책을 읽고 기록하는 것 말고도 꾸준히 기록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기록하면 어제보다 눈꼽만큼 씩이라도 발전하는 오늘의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록한 것을 보면 이만큼이나 해 온 게 아까워서라도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p> <p>책을 읽을 때 연필로 생각나는 대로 적거나 표시하고, 책을 읽고 수첩에 간단하게</p>					

	<p>후기를 씁니다. 책을 읽고 이런저런 기록을 하는 이유는 책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메모하며 책을 읽으면 나중에 글을 쓸 때 책을 한 번 더 읽은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통해 나 자신의 가치, 관심사 등 다양한 영역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p> <p>셋째,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책을 좋아하면서 읽는 모습을 보여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펼쳐놓은 보니 언제 끝날지도 모를 글입니다.</p> <p>직장에 다니면서 책까지 빨리 읽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 못 하고 책을 한 권 읽는 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책을 읽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며 배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p>
<p>SNS 아이디</p>	<p>페이스북-정지혜검색</p>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1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이주여성들의 친정					
기사내용	<p>한국 사회가 글로벌 시대로 들어서며 따라서 국제결혼이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족들이 해마다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결혼이민자들을 하루 빨리 한국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게 할려고 강릉시에서는 2006년 시범 사업으로 &lt;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gt;를 운영하였다. 필자는 지금의 강릉시가족센터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해온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다.</p> <p>2006년 강릉시 여성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강릉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lt;결혼이민자가족센터&gt;를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릉 문화원의 소속으로 1층에 자그마한 사무실이 전부였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 없이 드라마, 케이팝 등으로 꿈의 나라였던 한국에 입성한 터라 국제결혼이 가져다주는 문화 차이와 언어의 장벽은 넘어야 할 크나큰 산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lt;결혼이민자센터&gt;에서는 한국어 교육, 직업체험, 한국문화 이해하기, 요리교실, 관노가면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하였다. 또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수업을 참여할 수 없었던 이민자들과 강릉의 지리를 잘 모르는 이주여성들을 위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나서 재능기부를 하였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와 여러 가지 도움과 복지혜택 등으로 오늘날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p> <p>한국어가 서툴러 의사표현이 어려웠던 이민자들은 서로 다른 모국어로 나라별로 대화를 하였고 수업이 있는 날은 그야말로 장날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정선 5일장보다 더 시끄러운 국제 장날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지금의 &lt;가족센터&gt;까지 이끌어주신 최은해 센터장님의 헌신과 노고에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다.</p> <p>한국어와 한국 예절에 대해 미숙했던 이주여성들을 다루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을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그때 당시에는 통번역사 쌤들도 안 계셔서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했었다. 그때 당시에는 직원도 없이 최은해 센터장님이 홀로 이주여성들을 담당하셨는데 한국어를 잘 몰랐던 우리들은 최은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늘 귓등으로 들었고 서로 다른 모국어로 떠들어대기 일쑤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은해 선생님이 센터로 오시기 전에 여러 명의 쌤들이 오셨었는데 힘드시다고 사직서 제출하기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악천후 같은 환경에서도 묵묵히 우리들을 이끌어주셔서 2007년에는 정식으로 &lt;강릉시결혼이민자센터&gt;를 개소를 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주여성들의 인식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p>					

부모형제 떠나 고향 떠나 낯선 한국땅서 살아가기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랑 의사소통도 어려웠고 남편하고도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 일쑤였다. 이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단연 자녀들의 교육이었다. 아이들의 성장단계에 맞춰서 제대로 된 육아가 어렵다 보니 이중언어는 아이들에게 혼돈을 가져왔고 언어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가족센터는 발 빠르게 다문화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내세워 이중언어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나라 언어와 문화들을 배울 수 있게끔 독려를 하였다. 또한 미취학 자녀들에게는 학습지 등을 지원하여 한글과 수학 등을 가리켜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학업성적에 지장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였다.

다문화자녀들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연령에 따른 각종의 직업 체험과 청소년 심리상담, 문화체험 및 캠프 등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성장통을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격려와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 주는 곳이 우리들의 친정 <강릉시 가족센터>이다.

<강릉시 가족센터>가 우리들한테는 익숙함때문에 고마움이 무더져 가는 엄마의 품 같은 장소이다. 힘들 때면 언제든지 가서 하소연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제일 먼저 엄마 품을 찾듯 찾아간다.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도 늘 그렇듯 부모님들의 자식을 위해서 베풀듯 항상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등대가 되어준다. 이러한 든든한 지원자인 친정이 있으므로 오늘도 용기 내여 슬기로운 기자단 일원이 되어 우리들의 친정식구들인 <강릉시 가족센터> 센터장님과 직원 일동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부족한 글 솜씨로 고마움을 전달하려고 한다.

- 부록 -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마움도 쉽게 사그라져간다. 익숙함이 주는 평온한 생활이 고마움을 무더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코로나 시대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더 농축되어 간다. 이러하듯이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는 우리들의 친정인 <강릉시 가족센터>를 다 같이 더욱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길 바랄뿐이다.

SNS  
아이디

페이스북-조설화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2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건강한 가족					
기사내용	<p>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가족들이 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 두 글자가 주는 함의 &lt;深意&gt;는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포근하고 행복한 동지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듯 유년시절에 받은 사랑과 서로 다른 성장과정에 따라서 가족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희비로 엇갈리게 될 것이다.</p> <p>나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이라는 큰 나 큰 아름드리나무 그늘 아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근심 걱정 없는 나날들을 보냈었다. 이런 내가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함과 동시에 나에게는 책임져야 할 나만의 가족이 생겨났다. 결혼 전의 나는 온실 안의 화초였다면 결혼 후의 나는 햇빛과 비바람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잡초가 되었다. 가족이란 때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강인하게 나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성장통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로 생겨나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나에게는 참 많은 직책이 있다. 한 집안의 며느리, 인생을 약속한 동반자,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 딸, 등등 여러 가지 직책이 생겨나고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명예가 되어 때로는 &lt;나&gt;라는 존재 자체도 까먹고 맡은 바 역할을 완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힘들고 지칠 때면 자연스레 부모님의 그늘이 그리워지기도 한다.</p> <p>우리들의 부모님 인생은 어떠한가? 예전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모름지기 더 고단했을 것 같다. 오로지 자신을 감아먹는 노력과 희생으로 가정생활을 윤택하게 꾸리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했었다.</p> <p>어린 시절, 도시락 한가득 산딸기를 따와서는 우리 자매들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었다. 이 맛있는걸 어떻게 안 드시고 집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여쭙어봤더니 우리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시다며 웃으셨다. 요즘처럼 쉽게 고기반찬을 먹을 수 없었던 시절, 엄마는 항상 아빠와 우리 밥그릇에만 살코기를 듬뿍 주시고는 당신은 항상 남은 비계만 드셨었다. 엄마는 느끼한 비계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고기가 귀하니 하나라도 더 우리들에게 먹이려고 살코기는 남겨두고 남은 비계는 버리기 아까우니 드셨단다. 나의 천진난만했던 유년시절 이면에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숨어 있었다. 부모님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전철을 밟고 싶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였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지금의 나도 아빠, 엄마처럼 내 새끼의 입에 먼저 맛있는 거 들어가면 행복하다. 지금도 나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 부모님들이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희생을 원하지 않을 뿐이다 건강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묻는 싶</p>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건대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행복한 가정,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 배려심이 많은 가정 등등 다양한 답변을 할 것이다. 이러한 모범답안 같은 가정을 위해서 얼마큼의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님 고된 일상에 치여서 정작 중요시해야 되는 내 가족은 구석 한 편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익숙함 때문에 또는 편안함 때문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건강한 가족은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가족들 간의 서로 상호작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 속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재미난 이야깃거리로 추억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

< 강릉시 가족센터 >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소통이 적은 현대인들에게 가족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부 역할 강화, 가족관계 개선, 가족 의사소통, 가족 갈등과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교육 상담, 가족 돌보 프로그램, 가족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다르 듯 건강한 가족 또한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한 형태가 아닌 어느 한 사람만의 희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에 생기는 끈끈한 가족애로 만들어진 가족이야말로 그 어떤 세찬 풍량이 일어도 견고하지 않을까 싶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화려한 외형보다 기초가 튼실한 내면이 단단한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내일도~노력을 하려고 한다.

SNS  
아이디

페이스북-조설화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4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만남의 광장					
기사내용	<p>2020년 우리는 전례없는 코로나19라는 팬더믹을 겪었다. 갑작스레 찾아 온 이 불청객은 우리들의 일상을 뒤바꾸어 놓았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수업을 하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요상한 바이러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 증상에 대해 보도를 하고 주변인들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소식이 들려 올때마다 아이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 공포로 다가왔다. 이러한 전염성 바이러스를 처음 겪는건 아니지만 신종플루때처럼 곧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거라는 믿음을 가볍게 뒤엎고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어두운 터널속에서 갇혀 지내야만 하였다.</p> <p>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깔깔깔 웃고 뛰어다니고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뜻하지 않게 치료약도 없는 코로나 19 대 유행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염성을 낮추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것 말고는 할수 있는게 별로 없었다. 수개월 동안 하루종일 집 안에서만 생활을 했던터라 나도 아이들도 지칠때쯤에 사막에 오아시스같은 소식이 전해져왔다.</p> <p>&lt;강릉시 가족센터 &gt;에서는 코로나때문에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니 비대면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수 있게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단다. 아이들은 신이 난 나머지 깡충 깡충 뛰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개학도 못하고 한 학기내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 바깥 활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리도 좋아할까 싶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하니 아려왔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짜여진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 중 &lt;만남의 광장&gt;은 센터에서 밀키트를 제공을 하고 온라인으로 요리강사님의 수업을 시청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에 만들기를 좋아하는 울 막내는 한껏 들떠서는 조잘조잘 이것저것 캐묻는다.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같이 조리를 해서 먹는다니 도통 믿기지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나는 기나긴 하루를 아이들과 요리 수업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한끼를 해결해본다. 우리들의 일상을 뒤바꾸어 놓았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수업을 하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요상한 바이러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뉴스에서는 연일 코로나 증상에 대해 보도를 하고 주변인들이 코로나 확진이라는 소식이 들려 올때마다 아이들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p>					

공포로 다가왔다. 이러한 전염성 바이러스를 처음 겪는건 아니지만 신종플루때처럼 곧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거라는 믿음을 가볍게 뒤 엮고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어두운 터널속에서 갇혀 지내야만 하였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깔깔깔 웃고 뛰어다니고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뜻하지 않게 치료약도 없는 코로나 19 대 유행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오로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염성을 낮추고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는것 말고는 할수 있는게 별로 없었다. 수개월 동안 하루종일 집 안에서만 생활을 했던터라 나도 아이들도 지칠때쯤에 사막에 오아시스같은 소식이 전해져왔다.

<강릉시 가족센터 >에서는 코로나때문에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니 비대면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수 있게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단다. 아이들은 신이 난 나머지 깡충 깡충 뛰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개학도 못하고 한 학기내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 바깥 활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리도 좋아할까 싶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하니 아려왔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짜여진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 중 <만남의 광장>은 센터에서 밀키트를 제공을 하고 온라인으로 요리강사님의 수업을 시청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에 만들기를 좋아하는 울 막내는 한껏 들떠서는 조잘조잘 이것저것 캐묻는다.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같이 조리를 해서 먹는다니 도통 믿기지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나는 기나긴 하루를 아이들과 요리 수업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한끼를 해결해본다.

SNS  
아이디

페이스북-조설화 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4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꿈Drem드림프로그램					
기사내용	<p>코로나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2년여 만에 대면 수업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lt;강릉시 가족센터&gt;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아이들이랑 참석을 했던 터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야말로 오랜 가뭄에 갈증이 나서 현기증이 날 때쯤 내리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을 한다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알람 소리가 이리도 즐겁고 국악을 듣는것마냥 흥겹기까지 하다. 여러 프로그램 중 작은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 꿈 (Dream) 드림"이라는 포스터를 보고 하고 싶다고 졸라댄다. 물 만난 고기처럼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서 신청을 해달라고 애교를 떨면서 끄뻑 끄뻑인다. 이리도 신날까?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이 거의 없었던 터라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럴까 싶은 생각에 안쓰럽다.</p> <p>"꿈(Drem) 드림"프로그램은 관내거주하는 초등학교3-중학교 3학년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들 대상으로 진로탐색체험과 성장지원 활동이다. 총 10회기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들이 전문전인 심리 상담 및 진로, 취업 컨설팅으로 연계 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중 2회기는 부모하고 자녀관계 증진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를 하여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특히 만들기를 좋아하는 우리 집 꼬맹이는 전기차, 오르골 등등 만들어 가져와서는 한껏 들떠서는 본인의 솜씨를 자랑하며 역시 나는 손재간이 있다며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니 나도 흐뭇해진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친화 프로그램들이 &lt;강릉시 가족센터&gt;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 많은 강릉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따스함과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보길 바란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5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나와 배우자의 성격과 심리 알아보기>					
기사내용	<p>강릉시 가족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lt;나와 배우자의 성격과 심리 알아보기&gt;에 수업 신청을 하여 참석하였다. 네 쌍의 부부가 참석하였고 프로그램 시작전 심리검사 및 성격검사와 부부만족도 검사가 이루어졌다.</p> <p>수업 첫날, 서로 초면이기도 하지만 집단 부부 상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개인적인 사생활을 오픈 해야 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강사님께서 첫 시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면에 내재 되어있는 욕구가 불충족될시 불만과 갈등의 싹이 싹트게 된다는것을 알려 주셨다.</p> <p>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과 자라 온 환경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다섯가지 욕구가 존재 한다고 한다. 그리고 또한 이 욕구중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욕구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 다섯가지 욕구에는 이러한것들이 있다. 사랑과 소속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생존의 욕구, 자유의 욕구, 힘의 욕구가 있다. 이중 서로 상충되는 다른 욕구를 가지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하는 생각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리고 의견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인것 같았다. 이래서 평생을 배우도 다 못 배우는것이 지식이고 배움의 길은 이래서 무궁구진하다고 하는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p> <p>낮설고 어색한 분위가 금새 나의 가족은 어떤 욕구인지? 또는 어떤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 열린 토크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총3회기로 이루어진 수업 내용은 모두 보람찼다. 나도 모르고 있던 나의 기질과 성격 검사가 이루어지면서 부부가 살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부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로 갈등을 겪고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점에서 남자들끼리에 공통점들이 보였고 여자들 또한 공통점을 보였다. 집단 상담의 좋은 점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 문득 깨달게 되는것들이 있고 서로의 공감대 형성도 잘 된다는 것이다.</p> <p>이 수업을 참석하고 느낀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지금과 같은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석을 한적이 있었는데 참석인 중 한분이 남편분을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를 바라보</p>					

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는 뭘 의미하는지 감을 잡을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장소에서 그분의 그 한마디가 뇌리에 스치면서 얼마나 현명한 사람 인지를 알게 되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소중한 인연은 절대로 없는것 같다.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듯 각진 모서리를 갈고 또 갈아서 둥글게 만들어 주변인들과 더불어 사는 다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삶이 인생이지 싶다.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 잘 낳던, 못 낳던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인정 받기를 원하고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이 존중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가 일쑤이다. 입으로는 성직자처럼 그럴듯 하게 듣기 좋은 소리 한 가득 늘어놓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의지대로, 원하는대로 상대방을 끌고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본인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도 자신한테 제일 편한 방법이니까. 하지만 이들중 누군가가 자신의 의사를 거부하거나 반기를 들면 서운한 감정이 들고 마음의 불편함 마저 생기게 된다. 이러한것들로 인해서 불만과 불평이 나를 따르게 되고 계속해서 해결이 안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의 깊이가 깊어지게된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기적일수 밖에 없는 존재인것 같다. 누구나 우선적으로 중요한 상대는 자신일것이다. 내가 나를 아낄줄 알아야 상대방이 아낄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나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모든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낼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한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수가 있으니 이기적으로 느껴질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 어느 누가 자신의 삶을 운택하게 살고 싶지 않는 이가 있을까? 그렇지만 너무 자신의 욕구에만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 외로운 기러기 처럼 되기쉽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욕구도 충족 시키면서 상대방의 욕구도 존중해주고 배려할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것이 중요한 점 인것 같다

SNS  
아이디

페이스북-조설화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6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이중언어 사업					
기사내용	<p>강릉시 가족센터에서는 영유아 및 초등자녀(만12세미만)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울수 있는 《이중언어조성사업》 프로그램이 인기 프로그램중 하나이다.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엄마 나라 언어를 노출을 시키므로 아이들로 하여금 이중언어를 좀 더 쉽게 배울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다문화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장점이겠다.</p> <p>어린 시절부터 엄마로부터 한국어 아닌 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생활속에서 엄마하고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없이 배울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lt; 강릉시가족센터&gt;에서는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 언어를 배움으로써 엄마 모국에 대한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울수 있게 되었다.</p> <p>일거양득이라는 단어가 이럴때를 일컨나보다. 아이들이랑 놀이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애착관계도 형성이 되고 두 가지의 언어를 습득할수 있게 되니 말이다. 놀이 교구 교재도 제공이 되고 놀이 방법 등 글자를 활용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가르쳐준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같은 나라 맘들이 육아를 하면서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정보 교류를 할 수도 있다. 모국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려웠던 부분, 본인들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멋지다. 학구열은 한국인 엄마뿐만 아니라 외국인 엄마들도 뒤쳐지지않는것 같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버선 발로 달려나가서 그 어떤 역경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조설화 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7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부루마블 세계 여행 다녀 온 후 소감					
기사내용	<p>2022년 10월 22일, 강릉시 대도호부 관아에서 &lt;부루마블 세계 여행 &gt; 행사가 개최되었다. 헬로(友)우 세계를 다(多) 담다라는 이 페스티벌은 여러나라의 문화와 음식등 작은 세계 잔치가 열렸다.</p> <p>우리 나라 지역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로 구성이 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일 민족이었던 한국 사회가 각국에서 온 외국인으로 인해 언어 교류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으로 인한 불가피한 오해들이 종종 생기곤 한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특수성은 가족내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에서도 함께 어우러져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난제는 항상 사회적으로도 숙제로 남아 있다.</p> <p>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 차이는 소통하는 장벽이 되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가로막고 있다. 행사장의 &lt;다가가면 친구가 되고 문을 열면 이웃이 되고 화합을 하면 하나가 돼요&gt;라는 문구처럼 때에 따라서는 단점이 장점이 되듯이 서로 어울려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 말로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다문화 인식개선 다양한 포스터 문구들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 한 구석이 무겁다. 죄를 짓고 사는것도 아닌데 차별 아닌 차별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얀 도화지에 여러가지 색상 물감이 섞이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불편할수도 있고 자칫 밋밋하기만 한 도화지에 수채화를 그린것마냥 어우러져서 더 멋진 한폭의 그림으로 탄생을 한다. 모든것에는 시간이 필요로 한것 같다.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지금과 같은 행사로 인하여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다 보면 다문화가 더는 낯설지 않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조설화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8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결혼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건					
기사내용	<p>정든 고향 떠나 이국 타향 한국 생활을 시작한지 20년 세월이 흘렀다. 한국은 이제는 더 이상 타향이 아닌 제 2의 고향이 되었다. 태어나서 자란 곳보다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저 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처럼 무수히 더 많이 남아 있다.</p> <p>20년이라는 세월은 어찌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게 인간관계인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로 살아간다는게 말처럼 쉽지만 앓고 지금도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간혹 의혹이 들때도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이던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할텐데 왜 그리도 선진국, 후진국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차별하는지 말이다. 이미 부모, 형제 떠나서 일가 친척 하나 없이 남편 하나 믿고 언어도 다른, 문화도 다른 나라에 와서 내가 가진 모든것들을 뒤로 하고 새롭게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서 생활을 하는것만도 피곤한 일이다. 물론 누가 등 떠밀어서 타국 생활을 하는거는 아니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불일치는 소통하는데 있어서 분명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지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뒷담화가 제일 힘들었다. 그나마도 참을수가 있는데 다문화 자녀란 이유로 차별을 받는거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과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다문화 자녀들은 엄마가 제대로 된 양육을 못해서 성장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뉘앙스의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왜 꼭 다문화 자녀라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지 이런것 자체가 차별 대우라고 생각을 한다.</p> <p>한국 국적을 귀화를 한지도 20년 세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이 아닌 모국인 ○○○ 나라 사람이라고 불리운다. 정작 모국인 ○○○ 나라 국적은 포기를 해서 더 이상 그 나라 국민으로써 그 어떤 권리도 이행을 할수가 없는데 말이다. 그럼 우리와 같은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으며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유령 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이것이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아닐까 싶다. 한국인도 아니고 모국 ○○○인도 아니고 우리들의 나라는 어디일까?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 따가운 눈총, 이상한 눈초리에 벗어날수 있는지 알고 싶다. 세계는 하나, 우리는 하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조설화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9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가족~~만남					
기사내용	<p>창가에 빗 방울이 후두둑 떨어진다. 며칠 내내 심술궂은 아이처럼 찌푸리고 있던 날씨가 드디어 비가 내리려나 보다. 멍하니 유리창에 맺힌 비 방울이 또르르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썩아~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굵직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린다. 여름 내내 가뭄에 갈라 터진 땅이며 텃밭에서 이물어진 채소들이 오아시스를 만난 양 환희에 젖어 금세 축축하게 스며들어 생기를 더해준다. 점점 더 거세지는 빗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어느덧 추억의 한 자락으로 나도 몰래 스며들었다</p> <p>낫설기만 했던 한국땅을 밟은 지 어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날도 지금처럼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모든 것이 생소하기만 하고 낯선 풍경에 어색함과 서먹함만이 있는 이국 타향에서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우두커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같은 장소, 같은 풍경이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와 다른 새로운 고민과 조금은 더 성숙해진 나의 모습일 것이다.</p> <p>나는 종종 인연이란? 필연이란? 이 두 글자가 주는 함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곤 한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삼만리 떨어진 타국땅의 남편을 만났을까? 이것이 인연이고 꼭 만나야만 될 필연이고 운명인 건가?라고 혼자서 자문을 한 적이 있다. 나와 남편의 만남은 숙모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인연의 시작되었다. 바야흐로 눈 내리던 그 겨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p> <p>2002년 12월 중국의 겨울은 매우 혹독하다. 영하 30도는 넘는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다. 매서운 날씨 때문에 숨을 내쉴 때마다 코에서 하얀 김이 달싹거렸다. 이날도 어느날도 다름없이 출근하여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고 부랴부랴 서둘러 퇴근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청아한 방울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다.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헐레벌떡 가쁜 숨을 몰아 쉬면서도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역력한 숙모가 한마디 하시면서 들어오신다. 알고 보니 괜찮은 신랑감이 생겨서 하루 종일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 걱정도 되고 해서 허겁지겁 매장으로 달려오셨단다. 아침에 급하게 출근한 터라 전화기를 집에 두고 온 것이 화근이었다. 곧이어 신랑감에 대한 정보들이 숙모의 입에서 줄줄줄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온다. 기대에 잔뜩 부풀어 오른 숙모가 정작 내가 무덤덤하게 듣고만 있고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자 애가 타신 듯 한 술 더 뜨신다. 숙모한테 나랑 비슷한 또래의 딸내미가 있는데 약혼하지 않았다면 사윗감으로 삼았을 거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내 눈치를 살피신다. 결혼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거니와 더욱더 국제결혼에 대해서</p>					

	<p>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헌데 지금 숙모가 구구절절 칭찬하는 상대가 한국 남자란다. 별다른 감흥도 없이 멀뚱멀뚱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웬간히도 급하신 것 같으시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나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벌써 약속 장소를 잡으시고서는 약속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초조함을 내비치셨던 것이다. 이렇게 숙모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맞선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조설화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10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가족 - 인연의 시작					
기사내용	<p>밖은 여전히 함박눈이 펄펄 내린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주위가 온통 하얀 동화 나라에 온것만 같이 반짝였다. 바람에 새하얀 눈이 가루가 되어 불빛에 은빛을 내며 흩날리리고 있다. 이런 날은 연인이랑 손 잡고 소복이 쌓인 쌀가루 같은 눈발에 발자국을 남겨야 하는데 나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님을 만나러 터덜터덜 숙모의 뒤를 따랐다. 썩 내키지 않았지만 평소에 딸처럼 챙겨주는 숙모이기에 굳소리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님을 만나러 따라나섰다.</p> <p>잔잔하게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 다 달아서 숙모 하고 둘이서 슬그머니 카페 안을 염탐하였다. 숙모도 나와 같이 그 훌륭하다는 신랑감 얼굴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여럿되는 남자들 중에서 단연 이목을 끄는 남자 한 명이 보였다.</p> <p>핑크색 셔츠에 생전 처음 보는 하회탈로 만든 타이를 매고 있는 남자한테 나랑 숙모의 시선이 쏠리면서 저 남자 괜찮다고 속닥거렸다. 별다른 기대를 않고 웨이터한테 맞선을 볼 상대의 이름을 말하니 안내를 해주는데 두둥~ 심장이 벌렁벌렁 나대기 시작한다. 숙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어때 내 말 맞지?) 란 표정을 지으면서 내 손을 으스스하게 잡는다.</p> <p>아니~세상에~ 이럴 수가~ 방금 전 숙모 하고 속닥거렸던 상대가 오늘의 맞선남이라니~ 이런 황재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뱃 고동마냥 요동치는 가슴을 다독이며 인사를 하는 목소리가 작은 울림으로 살짝 떨린다.</p> <p>중저음의 맞선 남의 목소리가 매혹적으로 들려오고 이 남자 한마디 한마디가 뇌리에서 펄펄 불꽃이 되어 피여 오른다. 온몸에 퍼지는 야릇한 감정과 숨어있던 연애세포들이 마그마처럼 샘솟아나면서 정신은 아득히 저 멀리로 가버린 지 오래됐다.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뭘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긴장하고 콩닥거리는 가슴은 곧 설레임이라는 파도가 되어 감정 바다 깊은 곳에서 홀로 헤매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초반 사랑에 대한 환상과 갈망에 온갖 상상의 나래를 종종 펼치던 나한테 이렇듯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맞선 남의 한마디가 즉흥적으로 가슴 깊은 곳으로 사랑이라는 화살촉이 와서 꽂혔다. 한 번뿐인 인생 사랑하는 여자랑 원 없이 사랑하고 모든 마음과 열성을 다해 사랑하면서 살 것이라고 가슴에 와닿는 말만 속속들이 했다.</p> <p>첫인상에서 반이 넘어가고 남자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듯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도 신기하고 표현이 서툴렀던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사랑이라는 단어는 쉽게 언급을 할 수가 있었던 단어가 아니었다.</p> <p>카페에서의 짧은 만남은 아쉬움 그 자체이고 결국은 우리는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p>					

	<p>하였다.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 흩날리는 눈은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해서 내리는 축복 같았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온도 차이는 극명하게 상반된 느낌이었다.</p> <p>매서운 겨울날의 함박눈은 포근하기 그지없었다. 아무고 걸지 않은 눈밭에 우리 둘만의 발자국을 남기며 쑥스러워 입 밖에 내보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단어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반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새 우리들의 손은 먼저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하나로 맞잡고 걷고 있었고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었다.</p>
<p>SNS 아이디</p>	<p>페이스북-조설화검색</p>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11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슬기로운생활기자단					
기사내용	<p>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을 마흔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에야 알것 같다. 처음 한국 땅을 밟고 혼자 우두커니 창가에 서서 낮설기만 한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러한 낮설음이 곧 익숙함으로 다가올 시기가 올까라고 생각했던것 그때가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 동안 알게 모르게 받은 스트레스를 어디에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기장에 낙서처럼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혼자만의 보고 쓰는 공간에 두서없이 끄적이고 글을 적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흥분했던 마음도 글을 통해서 가라앉았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적에는 일기장을 꺼내서 한번씩 지나간 일들을 들춰보곤 하기도 한다.</p> <p>언제부터였을까? 나도 모르게 글에 대한 욕심히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다. 처음에는 글의 맥락이 없이 두서없이 적던 글들이 차분하게 적어져 갔고 자료가 되어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다시 되짚어 보기도 하고 좋았다. 어느 순간부터 글쓰기가 나의 생활에 스며들어서 나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다. 글쓰기를 제대로 배워 보고 싶었다. 작년에도 강릉시 가족센터에서 &lt;슬기로운생활기자단 &gt;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보고 망설였다. 기사를 쓰고 에세이를 쓰고 자신이 없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를 할 것만 같아서 올해는 큰 용기를 내서 막바지에 신청을 하였다.</p> <p>걱정 반,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lt; 슬기로운 생활기자단 &gt;수업을 참석을 하고 나서 나의 걱정이 기우였다는걸 알게 되었다. 교수님의 재치있고 재미난 수업에 흡수가 되어 정해진 횟수가 다가올수록 아쉬움만 늘어갔다. 수업에 참여 하신 분들의 글쓰기 능력에 놀랐고 사람마다 같은 주제로 한 다양한 표현 방법이나 문장 구성력에 또 한번 감탄을 하였다. 수업에 참여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p> <p>글쓰기에 대한것을 배우면서 작은 소망 하나가 생겨났다. 지금의 쓰고 있는 일상생활을 기록하고 쓰다보면 나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낼수 있는 문장 구성 능력을 키워서 나만의 자서전을 써서 누구도 아닌 나 자신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지금보다 더 세월이 흘러서 머리가 희끗해지고 하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 -조설화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조설화	기사작성 회차	12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문화차이					
기사내용	<p>‘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홀로 아리랑의 노래 한 소절에 등장하는 동해바다에 대한 궁금증과 지평선 너머에 대한 환상으로 유년시절을 보냈었다. 파아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바다 저편에서 님 찾아 삼만리 한국 땅을 밟았다.</p> <p>처음 也有人文美남편을 만났을때 중후한 모습에서 따뜻함을 보았고 나의 모든것을 안아줄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임을 느꼈다. 이렇게 남편에 대한 느낌과 믿음 하나로 인생에 승부수를 걸고 온 나한테 마치 그 사람에 깊이를 가늠하기라도 하듯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었다.</p> <p>이때의 나의 처지는 허허벌판 외로이 서있는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움직였다. 지금까지 몸에 밴 중국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하였다. 모든것이 낯설고 생소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등푸른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히 살아 움직였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문화차이를 정복하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금부터 나의 좌충우동 한국 생활 적응기를 적어보련다.</p> <p>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때 일이 생각이 난다. 남편 친구가 맛있는 밥을 사준다고 매운 음식을 먹을수 있냐고 물어왔었다. 매운걸 곧잘 먹는터라 좋아한다고 흔쾌히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간 곳이 해산물 요리를 하는 식당이었다. 처음 보는 음식이 매콤한 냄새를 풍기면서 한 접시 푸집하게 나왔다. 해물찜이었다.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매콤하니 구수한 풍미에 한 젓가락 냉큼 집에 입어 넣었다. (으악~) 이걸 매콤을 벗어나서 혀가 아릴정도로 뜨겁고 매워서 영혼이 가출할 지경이었지만 차마 뱉어내지는 못하겠고 억지로 삼킬려니 목이 타는듯했다. 상상이상의 매운맛이 입안을 강타를 하여 정신이 다 혼미하다. 사약을 먹는 기분으로 겨우 삼키고 맛있다고 하니 눈치없이 자꾸 준다. 은근슬쩍 남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눈치 없이 한 술 더 떠서 먹여준다.</p> <p>남편친구가 갑자기 낯선 생활에 불편함이 없냐고 물어봤다. 뜨겁고 매운 음식때문에 정신이 다 혼미해질 지경이었는데 뜬금없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순간 남편과 남편친구는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 하였고 눈 화장을 열심히 한 터라 검은 눈물이 흐르면서 순식간에 팬더로 변신을 하였다. 남편친구는 자신의 질문때문에 우는줄 알고 송곳방석에라도 앉은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p>					

	<p>있었다. 남편 또한 나의 샘 솟는듯한 눈물을 닦아준다는것이 흠터미 속에서 텅굴다 온 아기 고양이처럼 알록달록 검은 자국만 만들어 놓았다.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웃픈 상황속에서 겨우 진정을 하고 너무 매워서 그런다고 하니 그제서야 웃음이 빵 터져서 너무 놀라서 집에 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셨단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옛 이야기거리가 되고 지금도 남편 친구분이 종종 그때의 얘기를 하시면서 웃음꽃을 피우곤 한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조설화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1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The 11th Multicultural Family Hanmaeum Sports Festival					
기사내용	<p>Though I have lived in Gangneung for several years and had seen posters of this Multicultural Sports Day, I never had the inclination to attend. Well, maybe I am the only one who thought that way, but the thought of language and the cultural difference made a multicultural sports day seem awkward and kept me uninterested for years. Then, came COVID 19. And after more than two years of quarantining and social distancing, the news of multicultural sports day was a breath of fresh air and piqued my interest. Plus, I thought that my kids would certainly love playing outside and need mor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others in diverse ways.</p> <p>I signed up with the Gangneung City Family Center and on the date, I drove with my two daughters to the venue at Gyungpo Lake. The parking lot was unusually full, indicating that there was a good turnout of participants for the event. Many families were already sitting on the grass, and I was surprised to see that several city officials were attending the opening ceremony. After the opening ceremony, sandwiches were handed out to the families who had signed up. A group of senior volunteers handed out lunch, sandwiches, and a box of chocolates, that were packaged in quaint bags made from newspaper. The event continued with 3 rounds of team sports. Though we were randomly placed in teams and there was no assigned captain, the team sport easily created a magical atmosphere of unity so the participants naturally took care of their fellow teammates, ensured the safety of little ones, and gave everyone a chance to participate. The Gangneung City Family Center even had substantial prizes prepared for both the winning and losing teams. That was an unexpected treat.</p> <p>Next, there was a corner for kids to try their luck and win a raffle prize. Well, be prepared to get the “Sorry, no prize” card like my kids got. It’s all a part of the fun. And finally, there was the walk around the lake and a 1pm deadline. I didn’t realize how challenging the one-hour walk would be with two young elementary school girls. But it was a good opportunity</p>					

to work on their grit while providing a physical challenge. The presence of other kids along the way helped to boost their energy. And stopping at the checkpoints along the way and talking to the volunteers there was refreshing as well. The volunteers gave us a reminder of proper plastic bottle recycling: remove the outer plastic wrapping, crush the bottle and replace the lid on the bottle, then, they stamped our Sports Day card and gave us a small gift and water along the way. We made it back exactly at 1pm, right in the nick of time to qualify for a prize for completing the course. My kids were quite excited to get a reward at the end of overcoming their burdensome walk.

All in all, it was a fun day. I left grateful to all the volunteers and workers at the Gangneung Family Center who invested a lot of time in planning and executing this event. From the senior citizen volunteers who made shopping bags from recycled newspapers to the checkpoint attendants waiting happily in the sun, and all the other workers taking care of the program behind the scenes. Their big and small sacrifices created a day of joy and unity for many families. I'm already looking forward to next year's sports day. And perhaps you will join in too.





SNS  
아이디

thomastanishasalmon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2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Culture Festival for Gangwondo Residents(강원도민문화 페스티벌)					
기사내용	<p>On Saturday, November 19, a Culture Festival for Gangwondo Residents was held at the Gangneung IYF Center. Many were in attendance including Young Joo Bae, vice-chairman of the Gangneung City Council, Jin Yong Kim,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Gangneung City Council along with 5 other members of the Gangneung City Council.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 19 pandemic almost 3 years ago, it's been the first event of its kind which made it even more meaningful and significant.</p> <p>The event included a cultural concert followed by outdoor food booths. The concert hall had a warm, friendly atmosphere and seated over 500 guests with social distancing seating. The opening performance was by the Green Silver Band. It was somehow inspiring to see senior citizens get together to make music and deliver rhythm and enjoyment to the audience. Next, an endearing performance by the Sol Sol Dance Team, a multicultural grou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ir dance was entitled "Ham-sa-shi-oh" and was a comical rendition of a traditional Korean wedding scene. Next was an energetic Jamaican modern dance put on by the Lincoln House Gangneung School. It was so authentic and as a Jamaican myself I was thrilled by their performance. Another unexpected treat was an appearance by pop singer, Rio Montana. His smooth voice won over the hearts of everyone in the audience. Vice-chairman Yong-joo Bae delivered a congratulatory speech warmly received by all.</p> <p>One of the highlights of the day was a touching play about a mother's unwavering love for her daughter and a daughter who learns to reciprocate that love and overcome the challenges of taking care of her mom who suffers from dementia. The amusing yet solemn play was followed by a Korean dance from the Silver University members. The organizer of the event, Director Hee-Jin Kim, gave an encouraging message on how to renew your life and live with a positive mind. The concert concluded with a lively American dance performance. After which</p>					

the festivities were taken outside to booths of already deliciously prepared food that everyone enjoyed.

All in all, it was a lovely fall afternoon. It was a perfect day for city councils and Gangwondo residents to gather and have a meaningful time and exchange of culture.



SNS  
아이디

thomastanishasalmon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3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Christmas Cantata (크리스마스 칸타타)					
기사내용	<p>The year 2022 passed by seemed to pass by in the blink of an eye. As the end of the year approaches the streets have begun to light up with end-of-year Christmas decorations. And just in time to deliver that warm Christmas cheer is the annual Christmas Cantata put on by the Gracias Choir. Gracias Choir was the winner of the 2015 Marktoberdorf International Choral Competition in Germany and is truly a world-class choir. The Christmas Cantata was performed all over the USA and has made its way back to Korea. During the month of December, there will be over 30 performances nationwide and fortunately, Gangneung is one of their stops just a few days before Christmas day. It's been 3 years since we had a chance to see their live heartwarming concert and many Gangwondo residents are looking forward to the performance.</p> <p>The first act is a musical that depicts Judah, Israel 2000 years ago and the birth of the Messiah who would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This musical brings home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while wrapped in the beauty of music. Before the start of the next act, the little Santas, a kids dance team, appear with an endearing Christmas dance executed with amazing precision. Act two is a humorous yet touching stage of a modern Christmas family setting. It reminds us of the true meaning of family and how precious the people around us are. In the final act, there is a spectacular performance from the full Gracias Choir and orchestra. The beautiful Christmas carols, the music, voices, and costumes are magnificent. The Gracias Choir truly delivers joy to you.</p> <p>The Gracias Choir Christmas Cantata leaves the audience happy and full of Christmas joy and cheer. It's a performance many look forward to at the end of the year. If you haven't seen it this year you still have a chance to catch their show in a few other cities. If not this year, it's worth putting on your bucket list for next year.</p> <p>올해 2022년이 눈 깜빡한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거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길거리는 연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매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공연하고</p>					

	<p>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2015년 세계 최고 권위의 합창제인 ‘독일 마르크트 오버도르프 국제합창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 받은 세계적인 합창단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공연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한국에서 공연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30회가 넘는 전국 순회공연이 열릴 예정으로, 강릉에서도 12월 19일 칸타타를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그라시아스의 훈훈한 라이브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많은 강원도민들은 공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p> <p>1막은 2천 년 전 유대와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오페라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2막은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족의 사랑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유머러스하면서도 감동적인 무대입니다. 막과 막 사이에 꼬마 산타들이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댄스를 선보이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막에서는 전체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의상들은 화려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p> <p>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관객들을 행복하게 하고 크리스마스 기쁨과 환호로 가득 채웁니다. 매년 연말에 많은 관객들이 기대하는 공연으로 올해 관람이 어렵더라도 2023년 버킷리스트에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p>
<p>SNS 아이디</p>	<p><b>thomastanishasalmon</b></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4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김장날					
기사내용	<p>s the year draws to a close in Korea, you can notice an abundance of red peppers, baechu cabbage, red buckets, red gloves, etc. It's a unique sight for foreigners but it's a clear sign that it's time to make kimchi for the upcoming year. And it's an important time in Korea's traditions and culture. In my country, there is no side dish like this that we prepare the previous year and last throughout much of the upcoming year. Kimchi is a big part of every Korean meal. It is known to have many health benefits and it's quite tasty, though it might be an acquired taste for some.</p> <p>This year I had a unique experience for kimchi-making day at my kids' elementary school. I am not very good at reading all the paperwork that my kids bring home. But my kids were excited to tell me that there was a special multicultural program to make kimchi at their school. They were very enthusiastic so, I signed up for the program. On the last day of November, I went and participated in the kimchi-making sponsored by the education board through the school. Several moms gathered and set up two kimchi stations with already salted kimchi and the premade seasoning. True to Korean hasty culture, we seasoned the cabbages with the red pasty sauce and packaged them in bottles. It was a simplified version of the kimchi day but it was a good time to interact with other moms and school vice principal and teachers. Thanks to Gyodong Elementary School for being proactive and providing this cultural program.</p> <p>한국에서 한 해가 저물어감에 따라서 고추, 배추, 빨간 양동이, 빨간 장갑 등이 풍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은 외국인들에게는 특이하지만 다가오는 해를 위해 김치를 담글 시기가 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서 중요한 기간입니다. 자메이카에서는 다가올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반찬을 준비하는 풍습이 없습니다. 김치는 모든 한국 음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김치는 많은 건강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꽤나 맛있습니다. 올해 저는 우리 아이들의 초등학교에서 김치 만드는 날을 위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집에 가지고 오는 모든 알림 장을 잘 못 읽지만, 아</p>					

이들은 학교에서 김치를 담그는 특별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신이 나서 말해줬습니다. 애들이 매우 적극적이어서 저는 김장 경험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학교를 통해 교육청이 후원하는 김장에 참여했습니다. 몇 명의 학부모들이 모여 미리 소금에 절인 배추와 미리 준비한 양념으로 두 개의 김치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문화에 맞게, 우리는 배추를 양념 양념하고 통에 담았습니다. 김치의 날을 간소화한 것이었지만 다른 학부모들과 교감,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신 교동초등학교에 감사드립니다.



SNS  
아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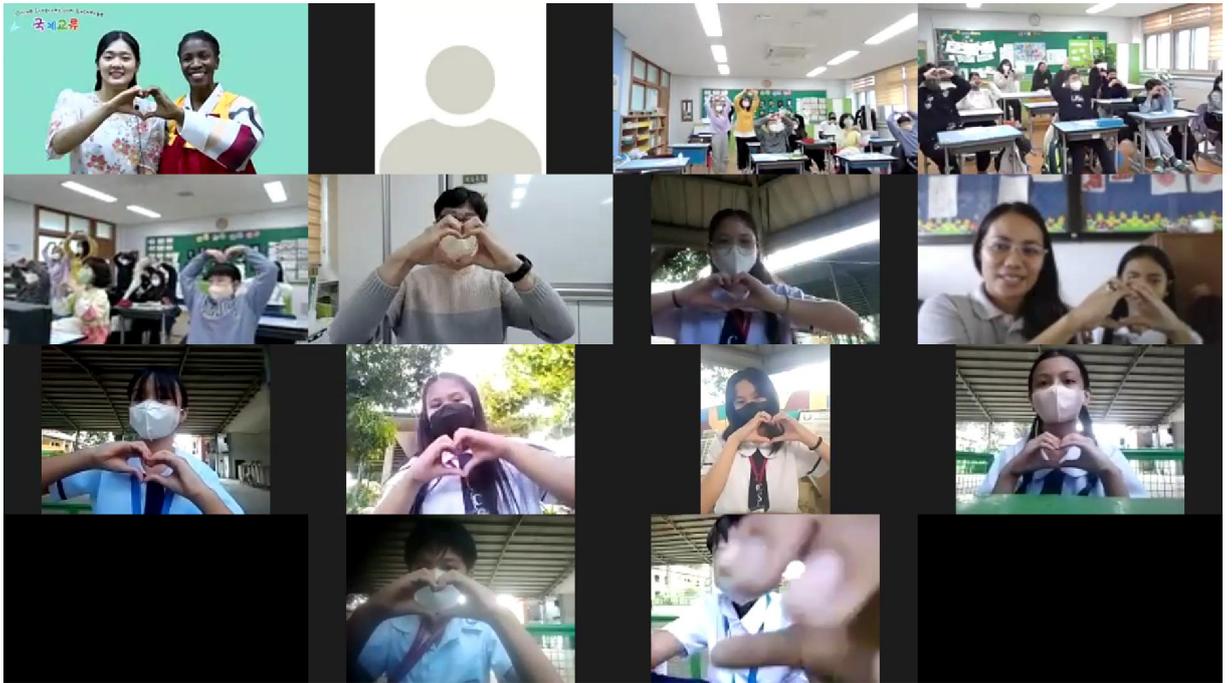
thomastanishasalmon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5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Online International Exchange Class(온라인국제교류수업)					
기사내용	<p>The 2nd online international exchange class with Calica Central School in the Philippines, hosted by Dochon Elementary School in Yanggu with programs organized by the non-profit organization 'Malgneum Personality Education Center', was successfully completed.</p> <p>In preparation for this second class Dochon Elementary sent gifts of Goryeo celadon puzzle pieces and gong-gi games to the Philippines. The online zoom program was then held for three days from December 6th to 8th, with 60 students. On the first day of class, the student head from each school greeted one another and then introduced the school and the surrounding area through video. Finally,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breakout rooms to introduce themselves and interact more closely with each other. On the second day, Dochon Elementary School introduced the Yanggu White Porcelain Museum, and Calica Central introduced Yabut River Resort, one of the best tourist attractions in Calica. Utilizing the gift of the Goreyeo porcelain, the students had hands-on experience making a porcelain model. On the last day, students introduced the traditional game of both countries, a traditional Filipino game called Sipa and the Korean game, Gong-gi. The exchange concluded with a friendly, fun game of Jeopardy where both schools could test their knowledge of each country and review what they had learned over the three days.</p> <p>This international exchange class came about due to the severe restrictions caused by COVID-19 but is still useful now and in the future in allowing students to expand their understanding of culture, people, and places while establishing proper multicultural values.</p> <p>비영리단체 '맑음인성교육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필리핀 캘리카센트럴스쿨과 함께하는 제2회 온라인 국제교류수업이 양구에 위치한 도촌초등학교의 주최 하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p> <p>도촌초등학교는 두번째 수업을 위해 고려청자 퍼즐 조각과 공놀이 선물을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약 3일간 온라인 줌 프로그램으로 6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수업 첫날에는 각 학교의 학생회장이 서로 인사를 하고, 영상으로 학교와 주변 지역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 학생들</p>					

은 서로 자기소개와 교류를 했습니다. 둘째 날 도촌초등학교는 양구백자박물관을, 캘리카센트럴은 캘리카 최고의 관광명소 중 하나인 야벳리버 리조트를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은 고려청자 선물을 활용해 도자기 모형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학생들은 양국의 전통 놀이인 시파(Sipa)라는 필리핀 전통 놀이와 한국의 놀이인 공기(Gonggi)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학교 학생들이 각 국가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고 3일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Jeopardy 게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국제교류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른 문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올바른 다문화적 가치관을 가지기에 현재와 미래까지 매우 유용합니다.



SNS  
아이디

thomastanishasalmon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6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Kids Career Class - Pâtissier(초등 진로교실-파티쉐)					
기사내용	<p>While many of us still say the Multicultural Center, the name has been changed for quite some time. The new name is the Gangneung City Family Center. The Gangneung City Family Center has several programs for all families. The most recent program that my family had the pleasure of participating in was an elementary student career class: pâtissier (초등 진로교실-파티쉐). Most children have many dreams that change several times in their lifetime. Currently, one of my daughters' dreams is to be a chef. So, this career class was an exciting opportunity for them.</p> <p>The program ran for 3 Saturdays straight from November 26 to December 10. The first class was fitting with the end-of-year season, making Christmas cookies and ginger breadman. The students used milk chocolate, white chocolate, apple jam, and other condiments to decorate Christmas tree and gingerbread man shaped cookies. The second class was the highlight for the little attendees; decorating your own Christmas cake with sand cream, strawberries, etc. In keeping with the Christmas theme, the kids made a Santa cake. In the third class, they made Tiramisu cupcakes. It was made of several layers of sponge cake dampened with chocolate milk and whipping cream mixed with cheese, then decorated on top with cocoa powder and white chocolate beads.</p> <p>My kids had raving reviews for the programs and their teachers. They are looking forward to attending a wider variety of programs in 2023. A big thanks to Hyang Ran Lee and all the other coordinators of the program.</p> <p>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문화센터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바뀐 지 꽤 되었 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강릉시 가족 센터입니다. 강릉시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가족이 즐겁게 참여했 던 프로그램은 초등진로교실-파티쉐 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생 동안 여러 번 바뀌는 많은 꿈을 꾸니다. 현재 제 딸의 꿈 중 하나는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진로수업은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기회였습니다.</p> <p>프로그램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주 동안 토요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 다. 첫 번째 수업은 연말 시즌에 맞춰 크리스마스 쿠키와 진저 브레드맨을 만드는</p>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사과잼 등의 조미료를 사용하여 크리스마스 트리와 진저맨 모양의 쿠키를 장식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참석자들에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이들은 생크림, 딸기 등으로 직접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꾸몄습니다. 크리스마스 테마에 맞춰 아이들은 산타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티라미수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콜릿 우유에 적신 스펀지 케이크와 마스카르포네치즈를 섞은 생크림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코코아 가루와 화이트 초콜릿 구슬로 장식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 진로교실 프로그램과 담당하신 선생님들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2023년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향란 선생님과 프로그램의 다른 모든 코디네이터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SNS  
아이디

thomastanishasalmon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7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It's All in the Mind (인성이 중요해)					
기사내용	<p>Character education is important to learn from an early age. Now, even in the convenience of our home elementary school kids can interact with other kids and teachers and learn to develop a strong positive character with the monthly online mind education programs provided by Malguem Character Development Center.</p> <p>The November edition of the strong heart class was held on November 26 with about 40 participants. Participants, elementary students from first to sixth grade, were divided into 3 groups based on age. Each group began with an Icebreaker, an easy fun quiz to familiarize students and teachers with each other and break the ice. Next, was the Grow your mind corner. Through a story of a boy who started playing games at night by saying, just one more time,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learn why and how to develop self-control. The participants had a chance to reflect on the story and enthusiastically presented what they gained from it. The last section of the program was an English activity playing north south east west game in English.</p> <p>Overall, students were happy with the program and learned a useful lesson in character building as well as getting a chance to practice English naturally. Students are looking to the face-to-face character camp this January 9 and 10 at Pyeongchang Youth Center.</p> <p>인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집에서 편리하게 또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교류하면서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맑음인성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월간 온라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강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p> <p>11월 26일에 마음튼튼클래스의 11월 판은 약 4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초등학교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였는데 연령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그룹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서로 익숙하기위해 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기위해 쉽고 재미있는 퀴즈인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자라요 시간이 였습니다. 밤에 게임을 시작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참가자들은 왜 자제력을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지 배웠 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야기에서 얻은 것을 열정적으로</p>					

	<p>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은 영어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동서남북 게임을 하는 영어 활동이었습니다.</p> <p>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만족했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인성 유용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다가오는 1월 9~10일 평창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대면 인성캠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p>
SNS 아이디	<b>thomastanishasalmon</b>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8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Character Building for Kids - Self-control(어린이를 위한 인성교육 - 자제력)					
기사내용	<p>Seoul train station in 1960 vs 2022 are vastly different. Seoul train station in the 1960 depicts a basic station build for the purpose of carrying people and goods from one place to another. However, the Seoul train station in 2022 is a very fancy complex that serves many more purposes than transporting people and goods. There is a performance area, rooms for conferences, food courts etc. This is all made possible through growth in the economy. As our economy grows our desire also grows. If desire grows beyond self-control, however, big problems can aris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adequate self-control. Through the story of a young boy resolution we can clearly see the need for self-control and then discover how to foster self-control.</p> <p>6th grader, Juhyuk, had a habit of saying just one more, just one more game. Eventually he fell into phone games. At night, he hid under his blanket and played games till early morning. Soon, he was not able to get to school classes on time or stay awake in his classes. Though he tried to make a strong resolution to change his habits, he could not overcome his addiction to games. Finally, after having counseling with a teacher, he realizes he can't do it on his own and the solution comes from accepting the help and guidance from those around him, his teacher, and his mom. He teacher suggests that he comes to school and have classes there, though the other students are still doing online class. He follows his teacher's advice and begins to develop self-control.</p> <p>It's important to develop self-control in kids from early. Self-control is not something that most can build on their own. Like Juhyuk, when we accept the wisdom and guidance of teacher, parents, mentors etc. that's one step closer to building self-control.</p> <p>1960년과 2022년의 서울역은 매우 다릅니다. 1960년대의 서울역은 사람과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의 서울역은 사람과 물건을 수송하는 뿐만 아니라 많은 목적을 제공하는 매우 화려한 곳입니다. 공연장, 회의실, 푸드코트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경제 성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욕구도 증가합니다. 그러</p>					

	<p>나 욕구가 자제력을 넘어서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자제력을 기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린 소년의 결심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제력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자제력을 기르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p> <p>6학년 주혁이는 한 번만 더, 한 게임만 더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혁이는 폰 게임에 빠졌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 숨어서 이른 아침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학교 수업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수업 시간에 깨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결심했지만 게임 중독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과 선생님, 엄마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들이며 해결책을 찾는다. 다른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 선생님은 주혁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것을 제안합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따르고 자제력을 기르기 시작합니다.</p> <p>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자제력을 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제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혁이처럼 선생님, 부모님, 멘토 등의 이해와 지도를 받아들일 때 자제력을 키우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p>
<p>SNS 아이디</p>	<p>thomastanishasalmon</p>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9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The World of the Heart(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기사내용	<p>Everybody in this world knows how to turn on a water faucet. Everyone knows how to use a fork when eating food. However, most people don't know very much about the world of the heart: why do I feel rage: why do I have a pickier personality than someone else; or why do I always have nothing but complaints. Most people do not know about these things. However, when people learn these things, they completely change. Their hearts become comfortable, and they become people who are capable of surpassing others. When we learn about the world of the heart, even if pain and hardships come, we can overcome it. If you learn the world of the heart, you elevate your mind.</p> <p>To succeed, you need to learn foreign languages and have lots of specialized knowledge, as well as the proper licenses. However, the most needed thing in this world is an open heart. If you open your heart, change happens automatically. Happiness and joy are not felt with your hands or eyes. They are felt with the heart. Illiterate people cannot read books, and people who have never studied music cannot read sheet music or play instruments. Likewise, if you have not learned the world of the heart, you cannot enact happiness in it, no matter how good your instrument. Likewise, you cannot cook joy, no matter how great your ingredients are.</p> <p>Opening your eyes to the world of the heart will allow you to understand why and how the heart is so amazing. If you had a Mercedes Benz at home, you would not park it in the yard just to look at it. You would learn how to drive no matter what it takes and drive that car around everywhere. Our hearts are made to be infinitely more precious and sophisticated than a Benz. However, people do not know how to navigate their heart, and in turn, neglect it. This causes the heart to rust and become sick. Learning the world of the hear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p> <p>Do you think the world of the heart is important to learn about? What are the benefits of learning about the world of the heart.</p>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수도꼭지를 어떻게 돌리는지 압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내 마음에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왜 까다로운지. 나는 왜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됐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능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고통이 와도 고통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알면 정신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려면 외국어 실력도 키워야 하고 전문지식도 많이 알아야 하고 자 격증도 취득해야 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은 열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행복이나 기쁨은 손이나 눈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느끼는 것입니다.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없고, 음악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악보를 읽고 악기를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 있어도 행복을 가질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기쁨을 요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세계에 눈을 뜨면 마음이 너무 신비하게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나 예술작품도 사람의 마음과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벤츠 자동차가 집에 있다면, 마당에 세워두고 구경만 하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운전을 배워서 타고 다니겠지요? 우리 마음은 벤츠 자동차보다 훨씬 가치 있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운전할 줄 몰라서 그냥 방치해두니까 마음이 녹슬고 병듭니다.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것은 그 어 것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SNS  
아이디

thomastanishasalmon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10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The Role of the Heart(마음의 역할)					
기사내용	<p>A person who cannot see is labeled as blind. But there are those who are blind to the world of the heart. That's because they never once saw what their hearts looks like. This means that they have never understood why their heart was in pain, or in sadness.</p> <p>It is possible for us to see our physical image in a mirror, but we do not know about the mirror of the heart. We are usually kind to ourselves but if we could look objectively into the heart, we can discover that our heart is very strange, there are all kinds of wicked things. People despair easily and sometimes think, "I'm better off dead." Some times, they have a lustful heart. People also receive a heart of jealousy and hatred towards others. The proverbial untamed horse resides in us all. And as it drags your life around. The case, a lot of the times is that because your heart is untamed, wrongful thoughts arise in your heart, which you follow leading to despair and disappointment.</p> <p>Many germs enter a person's body every day. Germs even exist in clean water. Yet, regardless of this, we are not always sick or living with pain because the white blood cells in our blood devour these germs. If white blood cells combat germs, we live healthy lives. But if they lose the fight, the body in which you moved so freely suddenly becomes a breeding ground for all sorts of germs. Likewise, sadness, hatred, fear, die trust, and wicked thoughts continually invade our hearts. If you can overcome these thoughts, your heart becomes greater and wider. You can also place an exponentially higher value on your life. On the other hand, if you are unable to overcome the thoughts you have, you are destined for pain. Dark, filthy hearts will grab hold of your heart.</p> <p>People who have given up their fight against hardships in their hearts cannot experience the happiness that comes afterwards. If they don't know that they have the power to overcome their hardships, they fall into despair and surrender on their own accord. They sometimes take extreme measures, too.</p> <p>You must take care of your heart, just like you take care of your body.</p>					

You have the tools to take good care of your heart if you just learn about the world of the heart.

실제 사용을 못 보는 사람을 시각장애자라고 하는데 마음의 세계에도 시각장애자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왜 고통스러운지 내가 왜 슬퍼하는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로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마음의 거울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마음이 진짜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후 하게 봐줘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별의별 악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실망이 자주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죽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음란한 마음도 들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야생마 처럼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존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인생을 끌고 다닙니다.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매일 수많은 병균들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깨끗한 물에도 병균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늘 병에 걸려서 고통하며 살지 않는 것은 우리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병균들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백혈구가 병균과 싸워서 이기면 건강하게 살지만, 싸움에서 지면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몸이 병균의 거처로 바뀝니다. 마음에도 슬픔, 미움, 두려움, 불신, 악한 생각 등이 끊임없이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면 더 넓고 큰 마음을 갖게 되어 삶의 가치를 더욱 느낄 수 있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고통에 빠지고 어둡거나 더러운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도 어려움과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은 그 뒤에 오는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몸을 관리하듯 마음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배우면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SNS  
아이디

thomastanishasalmon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11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rt and the Body(마음과 몸의 관계)					
기사내용	<p>The body and the heart are very different. We can see our bodies with our eyes, but we can't see our heart. The body requires many things to survive. For the body to function, it must consume food, and the body cannot become too hot or cold. Also, the body is limited by space and time. The heart, however, is not. The heart can be anywhere at any time, regardless of the situation. The body needs to get on an to fly to the United States, but the heart can fly wherever it wants to. Even though you're in Korea, your heart can take you to another country so you can meet your friends. And even though your body may be locked up somewhere, the heart can long for your family far away and it can enjoy itself while thinking of happier times.</p> <p>When you know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body and the heart precisely and you use them accordingly, then your life becomes balanced and happy. On the other hand, our balance becomes broken when we do no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the heart and body. That's when you end up suffering and in pain. The problems happen if you force your body to do the things that your heart should be doing, or vice versa</p> <p>For example, when you have a bad habit, if you just try to fix your behavior, it's not going to work and it's going to be painful in the end,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will eventually give up. People then continue to live life with a mindset to give up and surrender, which is a set up for great failure. Honestly, the body acts in a certain way because the heart has fallen into something wrong. Therefore, if your heart breaks free from that dark place first, your actions are automatically repaired. However, if you don't learn about this world of the heart, if your body ends up in a place like prison, your heart also becomes incarcerated. If your body experiences sickness, then your heart becomes diseased and starts to die.</p> <p>If you want to stay in good health, the first thing you need is nutrients. Secondly, you need the right amount of exercise. And thirdly, you need</p>					

to rest and get good sleep. It's the same with the world of the heart. Through mind education, you have to receive the nutrients for the heart. Overcoming your burdens instead of avoiding them is like exercise for the heart. Our bodies can lie down on a comfortable bed in order to rest. But rest in the heart is only possible when you are with people you can trust and depend on. When you know how to distinguish the body from the heart, you have what it takes to use your heart correctly. That's the formula for really making your life flourish.

몸과 마음은 매우 다릅니다. 몸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움직이려면 밥도 먹어야 하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또한 몸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몸은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 곳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다른 나라의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이 어딘가에 갇혀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는 가족을 그리워할 수 있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성질과 차이를 정확히 알아서 각기 맞게 사용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조화로우며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마음과 몸의 성질에 대해 모르면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 균형이 깨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음이 해야 할 일을 몸에게 맡긴다거나 몸이 해야 할 일을 마음에게 맡긴다면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습관이 있을 때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어 고통스럽기만 하고, 나중에는 포기하여 되는 대로 살아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잘못된 데에 빠져 있어서 몸이 그렇게 행한 것이기에 마음을 먼저 그곳에서 건져내면 행동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이러한 마음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몸이 감옥에 갈 때 마음도 감옥에 갇히고, 몸이 병들 때 마음도 병들어 죽어 갑니다.

일반적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첫째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안한 수면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마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마인드교육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피하지 않고 부딪치는 것은 마음의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편안한 침대 위에 누워 휴식할 수 있는데, 마음의 휴식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부분을 알고 잘 사용할 때 우리 삶이 온전하게 펼쳐집니다.

SNS  
아이디

thomastanishasalmon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토마스 타니샤	기사작성 회차	12	기사게시 방법	인스타그램
주제	The Blind Man and the Lame Man(소경과 앓은뱅이)					
기사내용	<p>A long time ago, a blind man fell into a mud pit. He did everything he could to get out of the pit, but he couldn't do so. Then, he heard another person on the other side of the pit. The blind man was completely stunned. He cried out, "Who's there? I'm blind and I can't see. I've been struggling for hours here. Please help me get out of here."</p> <p>"I'm sorry, but I can't help you," the other person replied.</p> <p>"What do you mean you can't help me? Please have mercy on this blind man and take me out of this mud pit." I wish I could take you by the hand and lead you out, but I am a lame man and cannot walk. I'm just sitting here, waiting for someone to help me, too."</p> <p>Right then, the blind man had a good idea. "You're a lame man, but at least you can see, right?" he asked.</p> <p>"I can see, but I cannot walk. How could I lead you out of here?"</p> <p>"Well, I can't see, but I have strong legs. So, get on my back. I'll be your legs and you can be my eyes. And we'll get out of here."</p> <p>The lame man climbed on the blind man's back and told him which way to go. The blind man was thankful to this lame man guiding him the way out. Likewise, the lame man was thankful to the blind man, for carrying him on his back all the way to safety.</p> <p>Even though the lame person can't walk, and the blind person can't see, and neither of the two can escape the mud pit on their own, it became possible when the two became one. This is how it is with our bodies and our hearts. The body is like the blind man, it has the strength to walk, but it cannot see therefore, it can't find its way. The heart is like the lame man. Although it can see very well, it does not have the legs to move. When the heart and body unite and become one, a person can live a happy life.</p> <p>We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body and heart. If we use them well together, it's just like the blind man and the lame man who put their hearts together to get out of the mud pit. The heart can lead the body to overcome all kinds of difficulties. The heart definitely exists,</p>					

but it cannot do anything on its own. It must be expressed through the body.

옛날에 어느 소경이 길을 가다가 진흙탕에 빠졌 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애 를 썼지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 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뉘시오? 나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몇 시간 전부터 여기서 헤매고 있소. 제발 나를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소."

"아니, 어째서 도울 수 없소? 제발 앞 못 보는 이 사람을 붙잡히 여겨 진흙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오."

"내가 당신 손을 잡고 진흙탕을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면 오죽 좋겠소만 나 는 앓은뱅이라 견질 못하오. 나도 여기 앉아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소."

그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앓은뱅이지만 눈은 밝지 않소?"

"눈이야 밝지만 견질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인도할 수 있겠소?"

"나는 보진 못하지만 다리는 튼튼하니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시오. 나는 당신의 눈을 의지하고 당 신은 내 다리를 의지해서 이 진흙탕을 나가면 쉽지 않겠소?"

앓은뱅이가 소경의 등에 업혀서 갈 방향을 말해 주었습니다. 소경은 그렇게 갈 길 을 가르쳐 주는 앓은뱅이가 고마웠고, 앓은뱅이는 그렇게 자신을 업고 안전한 곳으 로 데려다 주는 소경이 고마웠습니다.

앓은뱅이는 견지 못하고 소경은 보지 못해 두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는 진흙탕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합하니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렇 습니다. 몸은 소경과 같아서 걸을 힘은 있지만 눈이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마 음은 앓은뱅이와 같아서 잘 보지만 움직일 다리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 해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다른 부분을 알고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소경과 앓은뱅이가 서로 마음을 합해 진흙탕에서 벗어난 것처럼, 몸 이 할 수 없는 것을 마음은 할 수 있고 반대로 마음이 못하는 것을 몸이 해서 얼마 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SNS  
아이디

thomastanishasalmon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1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그리운 해찬솔 하모니 합창단					
기사내용	<p>해찬솔 하모니 합창단에서 처음 오디션 보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노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래부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p> <p>한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친구를 통해서 다문화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저와 같은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다문화합창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뻐요.</p> <p>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고 각국에서 온 다문화친구들을 만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창단에는 필리핀 친구들이 가장 많았어요. 필리핀 친구들은 열정 많고 노래도 잘해요. 베트남 친구들은 젊고 춤을 잘 추었어요. 일본친구들은 좀 수줍어하지만 예의 엄청 발라요. 중국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저는 좀 외롭지만 다른 나라친구들이 저에게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금방 친해졌어요.</p> <p>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간식 먹고 합창단 친구들 생일파티도 같이 축하했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합창단 따라서 강릉 춘천 부산까지 공연을 많이 다녔고. 회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해야되서 단체활동 할수가 없게되자 우리 합창단 활동도 중단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규정이 풀리면 다시 합창단 모집해서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강릉에서 세계합창대회가 열리는데요. 그 소식 듣는 순간 더욱 해찬솔 합창단이 그리웠어요. 하루라도 빨리 노래 연습하고 큰 합창대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2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바이러스보다 깊은 “情 ( 정 ) ”					
기사내용	<p>코로나19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변친구들이 하나 둘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걸릴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p> <p>아직도 기억이 선합니다 8월6일 제가 일하고 있을때 저의 딸이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눈이 아파요”라고 말했어요 “눈이 아프다고? 병원 가야지” 라고만 대답했어요. 일 얼른 마치고 딸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며 안약을 처방했어요. 약을 받아서 귀가했고 그 다음날 딸의 머리에 열이 좀 있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쯤 제가 온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몸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혹시 코로나 걸린거 아닐까” 의심했어요. 일요일이라서 약국 문 안 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얼른 약국가서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했습니다. 생각대로 온가족 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고 격리기간중 밖에 못 나가고 집에는 음식물 등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 실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실장님은 “고생많습니다. 집에서 잘 쉬고 격리 끝난후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코로나 걸렸다고 나무랄 줄 알았는데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p> <p>중국친구에게도 한명에게만 격리소식을 알려줬는데요. 주변친구들 다 알게되었고 과일 커피 과자 케이크 등을 우리집 문앞에 두고가며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아플때 고향 그림고 중국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졌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가게 되서 두렵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중국친구들의 따뜻한 위로 때문에 저는 그 외로운 마음이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국에서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무섭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무섭지 않습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3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					
기사내용	<p>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는구나 저는 23살때 한국에 와서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옛그제 같아요.</p> <p>2000년대는 한국문화 열풍이 불었습니다. 중국사람들은 한국노래, 한국드라마, 한국 음식 등 모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관광객들도 중국 놀러가면 말이 안 통하더라도 친절하게 대접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가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방법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처음에 “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밖에 몰랐던 저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어학당에서 수업받고 저녁에는 원룸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 지나고 저는 대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언어 소통이 좀 되니까 식당, 전단지돌리기, 도로 차량체크등 여러가지 알바를 하면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으면 취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외국 사람에게는 취업은 하늘에서 별따기만큼 힘들었습니다. 한국말을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해도 한국사람하고 똑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짧은 말을 할때는 외국인인 줄 모르지만 길게 말하는 순간 외국사람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강사직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저처럼 대한민국 사랑하는 많은 외국 친구들이 재능은 많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청소 식당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볼때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말은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말은 어눌하지만 잘 들을 수가 있고 잘 이해합니다.</p> <p>중국-제가 태어났고 청소년기를 보낸 제1고향이지만 대한민국-제가 앞으로 계속 살아야하는 제2의 고향입니다. 한국 이 나라를 사랑하니까 왔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국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요. 더불어 주변 외국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어서 재능있는 외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 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4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每逢佳节倍思亲(명절마다 가족을 더 그리워하다)					
기사내용	<p>중국의 유명한 시인 왕위는 일찍이 《메이핑지아지에페이쓰친(每逢佳节倍思亲)》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诗) 구절은 평소에 자주 못 만나는 친척과 가족이 명절날이 되면 더욱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는 늘 추석이면 중국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온후 추석 등 큰 명절때 늘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석이되면 어떻게 지낼까요?</p> <p>살펴 보자면 추석은 한국에서 설날 다음으로 큰 명절이에요. 추석 한달전부터 산소에 벌초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빠질수 없는 추석 전통음식은 송편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가을 과일과 음식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추석날에는 집에서 제사지낸후 가족들과 같이 산소에 가는 성묘행사를 합니다. 친척들이 같이 모이면 윗놀이하며 즐기고 그간의 못다한 이야기도 합니다.</p> <p>중국에서도 추석은 전통명절(설날, 청명, 단오, 추석 )중에 하나예요 추석관련한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후예사일”이야기 랍니다 후예사일후 서왕모가 후예에게 감사하려고 신약을 선물로 줬어요. 하지만 후예는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후예가 집에 없는 어느날 나쁜사람이 부인에게서 신약을 빼서 가려고 했고 후예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신약을 먹고 달이 있는 방향으로 날아가서 신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후예는 부인이 그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추석이되면 음식을 준비해서 달을 보며 지냈습니다. 황제 시대에도 하늘나라에 있는 달님에게 제사하는풍습이 있었습니다. 일년중에 추석날이 되면 달이 제일 동글었고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월병(月饼)을 먹고 계획주를 마시고 식사도 합니다. 사실 추석이 전통 명절이지만 현대인은 그렇게 큰 명절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추석 당일 하루밖에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영토는 크고 친척들이 멀리 살고 있는 다른 지역 친척들의 집을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추석에 3일동안 쉽니다. 그래도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추석때 저희집에 온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지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5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다문화운동회					
기사내용	<p>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구나. 두근 두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다문화운동회가 드디어 오늘(9월24일 토요일) 3.1공원 뒤쪽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다문화운동회 장소가 다르고 활동도 다소 달라져서 올해 운동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많이 기대를 했어요.</p> <p>아침 9시반쯤 도착해서 이름표를 받고 랜덤으로 청팀하고 백팀으로 나뉘어졌어요. 자주 만나지 못하던 중국친구들을 오늘 다 만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친구들이랑 잔디에 매트를 깔고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놀고, 우리들은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제 운동회 시작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무대쪽으로 바라 보았습니다. 시장님, 시의원님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 했습니다. 무대에는 우리에게 제공할 선물이 가득있었어요. 시장님 하고 시의원님 등 귀빈들은 한바퀴 돌며 우리들과 하나하나 악수하고 인사했어요. 그때 저는 너무 긴장되고 너무 떨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시장님이랑 이렇게 가깝게 만나기가 쉽지않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팀별로 무대앞에 모여서 경기에 참여했어요. 경기에 이기려는 마음보다 우정을 나누는 마음으로 같이 경기했어요. 모두 너무 신나게 놀아서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가는줄 몰랐어요. 어느새 점심 시간이 되어서 이름표를 달고 무대옆에서 종이 쇼핑백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열어 보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맛있는 샌드위치, 치킨, 물 등이 들어 있었고 상상하지 못했던 초콜렛 선물세트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대박이었어요. 친구들이 잔디마당에 둘러 앉아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아 얼른 와서 선물 뽑아요”라고 선생님들이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얼른 일어나서 줄을 섰어요. 팡 없이 아이들은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신나게 뛰어왔어요. 맛있는 점심 먹고나서 이제 경포호수 한바퀴 돌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3곳에 도장 인증 코너를 마련하고 다 찍어 오는 사람에게 선물을 지급했어요. 즐겁게 한바퀴 돌고 나서 아이들이 마지막 선물을 받으려고 서둘러 갔어요. 오늘은 우리도 즐겁게 놀고 아이들도 행복했어요. 가족센터 선생님^^ 이 많은 것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활동을 진행해야 하고 선물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해요. 가족센터는 우리들 친정집과 같아요. 늘 우리를 도와주고 생각해주요. 가족센터가 있으니 우리는 든든하게 한국에서 살수있고 너무 감사해요.</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6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Road to world culture '세계문화' 활동 참가 후기					
기사내용	<p>1년중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저는 1년 사계절중에 가을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덥지 않고 춥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을 바람이 얼굴과 몸을 스쳐가는 순간 그 시원한 느낌은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때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요? 저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Road to world culture'라는 세계문화를 배우는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 활동은 화요일마다 2시간씩 수업을 듣고 총 4번에 걸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정동진에 가서 레일바이크도 타는 야외 활동도 합니다. 수업 듣는거 보다 제가 이 세계문화 활동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정동진에 갈 수 있다는 점에 선택했지만 화요일 저녁마다 있었던 수업도 너무 좋았어요. 멕시코, 미국 등 나라 소개뿐만 아니라 틀린그림 찾기 게임 등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나라 소개하고 나서 그 나라 전통 음식 체험활동도 할 수 있었어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수업이 오히려 아이랑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p> <p>10월 8일 정동진 여행가는 날이었는데요. 여행 당일 3일전부터 계속 비가 내려서 우리가 정동진 여행을 갈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다행히 정동진 가는 날에 비가 그치고 날씨도 엄청 좋았어요. 아쉬운 것은 바로 레일바이크 타지 못한거예요. 몇일 동안 비가 내려 위험할까봐 운행에 중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동진 가는 아침에 우리는 단체 버스를 타고 정동진으로 향했어요. 우리 첫 목적지는 바로 하슬라 아트월드였어요.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요. 갈때마다 변화가 너무 많았어요. 화려한 색깔 조합하는 많은 예술작품들을 보는 순간 작가님의 상상력에 탄복할 수 밖에 없어요. 실내미술관은 총 5관까지 있는데 주제가 다 달라요. 미궁놀이 하는 것처럼 돌아 다니면서 구경하니까 작품도 볼 수 있었고 재미도 있었어요. 높은 산위에 하슬라아트월드를 건축했기 때문에 아래쪽 바다도 볼 수 있었고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쉬운 점은 바로 관광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실내미술관을 보고 외부 전시품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점심 먹고 바로 시계박물관을 구경하러 갔어요. 박물관을 기차안에 배치하고 다양한 시계를 전시하고 있었어요. 여러가지 시계작동 원리도 설명해줬어요. 코스를 따라서 구경하는 순간 시간을 여행하는 사람 느껴져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인류의 지혜는 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레일바이크는 타지 못했지만 나머지 코스는 너무 만족하고 좋았어요.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구경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습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7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엄마나라 문화이해 및 체험활동 다녀왔습니다					
기사내용	<p>강릉시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엄마 나라(중국.베트남.필리핀)의 문화 이해 및 체험 활동이었어요. 얼른 신청했습니다. 수업은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중국문화를 소개하고 종이 자르기 전통 활동 그리고 중국식 만두 만들기 체험 활동이 있었습니다.</p> <p>제가 중국사람 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중국문화를 더 잘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선생님으로부터 중국 문화소개 내용을 듣고 보니 새롭기도 하고 옛 생각도 났습니다.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사람으로서도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중국관련 관련내용을 들었을때는 감탄했습니다. 문화소개가 끝난 후 우리 중국 전통공예-종이 자르기 활동을 체험했습니다. 중국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중국사람들이 큰 명절 및 결혼식할 때 빨간색은 필수입니다. 저희는 빨간색 종이를 한자'복' 福하고 '희'囍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랑 만두 빚는 체험을 했습니다. 중국의 만두 빚는 방법은 많습니다. 부채 모양, 원보 모양, 진주 모양, 달 모양 등 다양합니다. 집에서 항상 한국요리를 위주로 해주었기 때문에 만두 만들기는 한번도 안해주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집에서도 자주 해볼 생각입니다.</p> <p>두번째 수업은 베트남하고 필리핀 문화소개 및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두 나라는 섬도 많고 과일도 다양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게임도 재미있고 맛있는 오리고기 월남 찜도 만들었습니다.</p> <p>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한테 엄마가 어떤 나라에서 자랐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뭐가 있는지 알려 줄 수 있었고 아이랑 의사소통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에게 이런 수업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8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쿠킹클래스					
기사내용	<p>맛벌이 가정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쿠킹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맛벌이 가정은 3번의 요리 수업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리의 관심이 많아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수업은 강릉 명주예술마당에 있는 요리교실 진행했고 총 3번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p> <p>첫 번째 수업은 양식요리였습니다. 감바스와 파스타 두가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감바스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주재료는 새우하고 마늘이었습니다 오일에 마늘을넣은 후 볶은 후에 새우를 넣고 난 후 부재료를 넣고 볶으면 됩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약한 불에 해야합니다 이 요리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합니다. 빵과 같이 먹으면 환상적입니다.</p> <p>두 번째 수업은 한식요리였습니다 한국집에서 자주 먹는 3가지 반찬(어묵볶음, 장조림, 감자볶음) 만들었습니다 장조림의 유래, 강릉지역 특산물 감자의 소개등 한국문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리하니까 또 다른 풍미가 있었습니다.</p> <p>세번째 수업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중식요리입니다. 고추잡채 하고 마파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요리 볶음 맛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두가지 요리 너무 맛있게 먹은거 같습니다</p> <p>3번 수업이 다 끝난줄 알았는데 무지개 케이크 만들기 수업도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p> <p>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한동안 집에서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이번에 요리수업을 통해서 지식 배워면서 요리도 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게되었습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 한나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9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언어두개 기쁨두배					
기사내용	<p>요즘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사춘기 자녀들과 부모가 어떻게 의사소통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는 중국인 엄마로서 저의 교육방식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p> <p>가족센터에서 이중 언어 부모 코칭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언어두개 기쁨두배’ 주제로 관련된 부모에게 zoom으로 하는 교육 이었습니다. 온라인강의를 해주신 교수님은 말레이시아 분이셨습니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 말레이시아 등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셨고 서울에서도 매우 유명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강의시작 전에 저는 빨리 zoom에 들어가서 대기 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끝까지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시간이 부족 할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어선생님인 저는 다른 집의 자녀에게는 잘 가르칠 자신이 있지만 제 딸은 중국어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가르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자주 말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 가르치지 쉽지 못하다”는 뜻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서로 잘 지내는 모녀지만 매번 중국어 수업을 할 때마다 둘이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수업을 그만두고 대신 제가 대화를 중국어로 시도 했습니다. 알아 듣는지 못 알아 듣는지 신경 안쓰고 계속 중국어로 대화를 해주었어요. 처음에 “엄마, 한국어로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등을 반응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중국어를 하고 아이는 한국어로 대답 합니다. 가끔씩 중국어로도 대답을 합니다. 한자 쓰는 공부는 못하지만 듣기 말하기 능력은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공부 방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교수님한테 여쭙 봤는데요. 너무 좋다고 인정 받아 뿌듯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교육방식에 대한 고민과 궁금한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같이 배우고 같이 교류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p> <p>요즘에 아이들은 공부해야 할 것이 진짜 많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면 어렵습니다. 사회가 변할수록 교육방식도 발전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p> <p>미래의 “꽃”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자!</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10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맛있는 초코머핀					
기사내용	<p>귀요미송 노래중 “초코머핀 한 조각 시켜놓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 마다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코머핀도 먹고 싶습니다. 빵가게에서 머핀을 많이 사 먹어봤는데요. 머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따뜻한 머핀은 어떤 맛인지 잘 몰랐습니다.</p> <p>제가 가족센터에서 “맛남의 광장” 요리체험을 신청했습니다. 이 수업은 6번 요리 체험을 하고 6번 세계 각국의 디저트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디저트 만들기를 많이 기대 했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좋아하는 제가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제과제빵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p> <p>그럼 이제 머핀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게요. 우선 말랑해진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설탕과 소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달걀 한 개는 조금씩 넣어 가면서 섞어주세요. 이때 분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4번 정도 나눠서 넣고 골고루 섞고 또 넣고...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섞어주세요. 가루를 체에 내린 후 섞어줍니다. 날가루가 약간 보일 때 섞는 걸 일단 멈추고 우유를 넣고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코칩을 넣고 섞은후 유산지를 끼우는 머핀틀에서 반죽을 짤 주머니로 80% 정도만 채워줍니다. 채운 후 위에 아몬드를 장식합니다. 선생님이 저희가 만든 머핀을 가져가셔서 30분정도 구웠습니다. 구울 때 아이들은 같이 놀고 저희들은 즐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머핀이 나와서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머핀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뿌듯합니다. 딸도 너무 신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디저트 수업 때에는 무엇을 만들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검색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11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김장담그기 체험프로그램 후기					
기사내용	<p>매년 11월말~12월초가 되면 한국집집마다 김장김치 담그는 김장철입니다. 이것은 일년중의 제일 큰 행사 같습니다. 김장김치 만들려면 이틀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날은 배추절이고 그 다음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양념 만들어서 배추에 넣어주면 김장김치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면 굴 견절이를 만들고 수육을 삶아서 온 가족이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김장김치를 나눕니다. 힘들지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p> <p>저희 집안에서는 김장을 하지 않아요. 이때가 되면 어떤집에서 김장을 담근다고 하면 너무 부럽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김장담그기 체험활동이 있어서 중국친구들과 같이 신청했습니다. 아침에 9시 출발해서 왕산면 대기리로 갔습니다. 1시간반 동안 차를 타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촌 체험학교 장소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김치담그기 행사는 바로 비닐하우스 안에서 합니다. 우리 도착할 때 사람들이 벌써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앞치마, 장갑, 모자 등을 받고 김치 담그기 체험을 시작합니다. 배추는 절임배추를 쓰고 양념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는 양념을 배추에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모님들이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주며 이것저것 알려주었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김치담그기 방법 활동시간에는 떡 과일 어묵 등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김치담그기 체험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김장김치도 한 박스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체험 끝난후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같이 점심먹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힘든 일하고 나서 수육을 먹어서 인지 너무 맛있었습니다.</p> <p>이 활동을 통해서 김장김치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어떻게 해야 맛있게 양념을 바르는지 비결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것 보다 보람을 가득 싣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체험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한나	기사작성 회차	12	기사게시 방법	페이스북
주제	2022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내용	<p>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2021년 창단하고 올해로 2년째 활동을 했습니다. 16시간의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교육을 받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 관련 기사작성 및 센터 모니터링도 진행했습니다.</p> <p>제가 과거에 한국어 문장을 쓴적이 많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중국인이 중국어로 문장쓰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한국어로 어떻게 써야하는지 많이 두려웠습니다. 문장 쓸때 주제선택, 문법, 단어 활용 등 다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중국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한국어 문장에 들어가면 그 맛이 안나고 너무 이상합니다. 처음에 짧은 문장을 써도 오타가 엄청 많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고쳐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오타가 있지만 그래도 생각대로 최대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년에 한해에 12편의 문장을 쓰는 것은 마치 숙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쓰는 문장은 하나의 추억 같은 느낌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다시 문장을 보면 그때와 그장면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숙제가 아니고 서서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쓰는 문장이 매우 좋은 글이라고 보장할 수 없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제가 발전할 수 있고 글 솜씨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쓰는 문장은 딸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제 딸이 제가 쓰는 문장 보고, 고쳐주고, 같이 참가하는 활동내용을 회상합니다. “엄마, 문법이 많이 틀렸는데요” “엄마, 그때 우리 머핀 만들었어요?” 등 질문도 했습니다.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하는 모습을 딸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 많지만 두려워만 하지 말고 노력하면 된다고 딸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p> <p>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올해로 2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애기지만 기자단이 10살, 20살, 30살...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고 같이 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사람한테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p>					
SNS 아이디	페이스북-한나검색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1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글쓰기 수업 1일차					
기사내용	<p>2022년 7월 7일 오전 10시 강릉시 가족센터 3층에서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글쓰기 수업이 있었다.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은 작년 2021년 5월, 9명의 기자단을 시작으로 올해 2기 기자단을 모집했다. 결혼이민자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하는 활동으로 센터 내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에서부터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p> <p>수업은 최현숙 강사님이 맡아주셨고 나를 포함하여 총 다섯 명의 시민 기자분들이 수업을 받기 위해 참석했다. 강사님은 수필가로 강릉시에서 발행 중인 설렘 강릉, 강릉 플러스 등에 글을 올리고 계신다. 참석한 시민 기자분들을 소개하자면 서울 출신 결혼 이주 정착민? 김O현 기자, 5학년과 7세 아이를 둔 베트남 결혼이민자 OO혜 기자, 11년째 강릉에 살고 계신 중국 결혼이민자 왕O루 기자, 나와 같이 참석한 마당발 이O임 기자, 그리고 다수의 타향살이 경험이 있는 나 홍O실 기자다. 그리고 다섯 명의 기자 분들이 더 활동 중이다.</p> <p>이날 글쓰기 수업은 ‘글쓰기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글쓰기의 기본과 단락 구성을 익혀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는다’를 목표로 진행됐다.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개요작성, 문단 쓰기, 연습 순으로 활동하였다. 먼저 말하기 토론기법인 브레인스토밍으로 강릉 시장님께 바라는 점을 돌아가며 이야기했다. 기자분들은 ‘강릉의 해안 라인을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마음이 아프다’, ‘청정 강릉에 맞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가능한 강릉을 만들길 바란다’, ‘강릉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 순식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모두 강릉 지역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강사님은 ‘결혼 이주민들은 모국과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꼭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말하면서 ‘한국어가 서툴거나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강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p> <p>곧이어 마인드맵 연습에 들어갔다. 여름과 관련지어 음식, 옷, 추억이라는 소주제로 떠오르는 단어들을 그물망처럼 뺏어나갔다. 강사님은 어떠한 키워드가 많이 뺏어나갔는지 보라고 하면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각자에게 물었다. OO혜 기자님은</p>					

‘수박’에 관하여, 베트남에선 1년 내내 수박이 있어서 칼이 없을 때는 손으로 자르기도 하고 반으로 잘라 수박껍질 모자를 쓰기도 했다면서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 하였다. 왕O루 기자님도 중국에선 수박 가격이 싸서 수박 반 통을 손가락으로 막 퍼먹었는데 결혼해서 똑같이 행동했다가 시부모님의 따가운 눈초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김O현 기자님은 ‘생일 케이크’에 관하여, 동생이 연속으로 생겨서 계속 생일 파티를 한 기억이 있다고 말해 모두를 웃음 짓게 했다. 이O임 기자님은 젊은 시절 해변에 8~10m 정도의 막대를 깃발로 꽂고 설치미술을 했던 추억을 떠올렸고, 나는 제주도 3년 타향살이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추억을 공유한 우리는 본격적인 글쓰기로 들어갔다. 앞서 마인드맵으로 키워드를 뽑고, 대표 키워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글을 쓰게 되니 훨씬 수월하게 써 내려갔다.

돌아가며 발표한 후 처음 이야기 나누었던 강릉 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두괄식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하였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내 생각과 의견을 간결하게 글에 녹아내야 하므로 앞서 경험을 쓴 글과는 다르게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 이날의 수업은 주제처럼 글쓰기의 첫걸음을 떼는 시간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공부는 힘들지만 보람된 경험이다.

SNS  
아이디

ghddmstlf7575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2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슬기로운 기자생활기자단 글쓰기수업 4일차					
기사내용	<p>2022년 7월 28일 저녁 7시 강릉시가족센터에서 슬기로운기자생활기자단 네 번째 글쓰기수업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낮에 모이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오늘은 저녁 때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에 가져보는 저녁 외출이었다. 이날 역시 최현숙 강사님께서 '체험 글쓰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다.</p> <p>먼저 우리는 강사님께서 준비한 '다문화가족 생활체험 수기 수강작' 자료를 읽어나갔다. 수상작은 몽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산후조리를 하면서 겪었던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그린 &lt;표현은 달랐어도 사랑은 하나-애니&gt; 최우수상작과 중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비행기를 탄 주인공이 결혼식도 못한 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남편의 암선고와 이별을 겪게 된 사연을 그린 &lt;내 인생의 소나기가 그치면 무지개는 뜨려나?-황정실&gt; 대상작이었다. 두 번째 작품을 내가 읽게 되었다. 한 장, 두 장 읽으면서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에 한숨이 섞여나왔다. 주인공 남편의 간암 판정과 친정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남편이 떠난 자리에 남은 1억 원의 빚..... 나는 주인공 남편의 암 선고를 읽는 중 깊은 한숨을 설 수 밖에 없었다. 글자들이 몇 개씩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음 구절을 읽어나갔다.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갈 때 나는 절망했다..... 그렇게 마지막 글자를 읽고, 주인공 인생의 남은 시간은 주인공이 바라는 것처럼 소나기가 그치고 나타나는 무지개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p> <p>모인 우리는 결혼이민자와 결혼자?를 나누기 전에 누군가의 자식이고, 여자고, 엄마고, 아내이다. 그리고 인간이다. 결혼이민자분들이 겪었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 함께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순간 여자라는 이름이 한없이 가없게 느껴졌다.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분들을 응원한다.</p> <p>글을 읽고 우리는 강릉에 시집와 겪었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다.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하고, 여자들은 모이면 애 낳는 얘기를 한다. 이날 우리는 애 낳는 얘기를 하였다.</p> <p>먼저 베트남 출산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트남은 일년내내 더운 나라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처럼 산모는 찜질방처럼 더 따뜻하게 해준다고 한다. 모유를 잘</p>					

나오게 하려고 족발을 먹거나 붓기를 빼기 위해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졸여 먹기도 하고, 고단백 생선을 먹는다. 과일은 이가 시리거나 아프다고 먹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귀로 찬바람이 들어오면 할머니가 되어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솜으로 귀 양쪽을 막는다고 한다. 중국은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 바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산책은 금물이다. 찬 음식은 무조건 안 되고 족발을 먹거나 좁쌀에 삶은 계란을 넣어서 죽을 끓여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한다. 계란은 한 번에 10개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계란을 좋아하는 나지만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다. 같은 아시아권이라서 그럴까? 비슷한 산후조리 문화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였다.

다음은 결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릉에 시집 와 겪은 일화는 순식간에 강한 연대감을 갖게 하였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비밀에 부치겠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글쓰기에 들어갔다. 나는 아이들이 자라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지금의 나에 대해 글을 썼다. 돌아가면서 쓴 글을 읽는데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저마다 없는 사연이 어디 있을까?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우리들을 응원하며, 이날 두 시간의 글쓰기 수업은 나에게 잔잔한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다.

SNS  
아이디

블로그 ghddmstlf7575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3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다문화사회인 우리나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기사내용	<p>얼마 전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마쳤다. 책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국어와는 친숙할 법도 한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공부를 통해 한국어와 국어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한국어 역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다.</p> <p>나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제 ‘단일민족’은 과거에나 쓰인 옛말이 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최근 5년 동안 다문화 학생이 1만 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20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아직은 다문화가정 중 절반이 경기권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p> <p>무엇보다도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권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부를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더더구나 중도 입국한 학생들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성장한 학생들의 학업 포기율이 더 높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p> <p>우리는 여자와 남자, 아이와 어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 이분법적으로 대상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A 아니면 B라고 말한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지으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p> <p>언젠가 OECD에서 발표한 나라별 행복지수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행복지수 중 공동체 생활지수를 알아보는 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고 한다.</p> <p>“당신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p> <p>한국은 선진국에 속하지만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나라다.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다문화사회인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시선이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p>					
SNS 아이디	블로그 ghddmstlf7575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4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박정섭 작가를 만나면서					
기사내용	<p>9월 3일 강릉교육문화관 영상음악실에서는 박정섭 작가를 만나기 위해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어린 친구들을 볼 수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가의 책을 들고 들뜬 표정으로 앉아 있는 독자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다 큰 고등학생 딸아이가 생각났다. 엄마 품에서 자기 길을 찾아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아이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말이다.</p> <p>작가는 1년 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동해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가까운 곳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었다. 박정섭 작가는 그림책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작가분이다. &lt;감기 걸린 물고기&gt;를 비롯해 &lt;도둑을 잡아라&gt;, &lt;놀자&gt;, &lt;짜꿍&gt;, &lt;검은 강아지&gt;, &lt;싫어요 싫어요&gt; 등 여러 그림책을 쓰고 그린 실력자다.</p> <p>작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몇 장 보여줬다. 첫 장부터 우리는 빵하고 웃음이 터졌다. 다섯 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45도 각도로 무릎을 꿇고 반항 어린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린 시절 작가는 매우 산만한 아이였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호기심이 많은 거라면서 말이다. 작가는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이 산만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지 물었다. 한 여자아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손을 들었다. 그 아이는 이후 작가가 소개해준 그림책에 대해 몇 번이고 질문을 던진 그림책을 볼 줄 아는 고수였다.</p> <p>엄마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지 항상 고민이 많다. 무엇인가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하다 내 아이와는 맞지 않는 옷을 입힐 때도 있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내 아이만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도를 넘어 자신의 아이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후회하기도 한다. 내 아이를 키우는데 정답은 없고 방법은 여러 갈래이니 무엇을 기준 삼아 노를 저어야 할지 점점 산으로 가게 된다.</p> <p>자기를 산만하다고 한 아이에게 다시금 시선이 갔다. 저 어린 친구는 어떻게 자신을 잘 알까?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해 궁금해한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자신을 알아간다. 나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차츰 인정해 나간다. 그리고 성장한다.</p> <p>작가는 그 아이에게 산만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었다. 아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했다. 작가는 어렸을 적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자신의 산만함이 지금의 작가를 있게 했다고 말했다. 강연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오늘부터 저 아이한테는 '산만하다'는 말이 눈앞에 있는 작가와 자신을 떠올리는 '멋진 수식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말이다.</p>					



SNS  
아이디

블로그 ghddmstlf7575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5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엄마!아빠! 강릉 명주프리마켓으로 가요					
기사내용	<p>강릉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볼 수 없던 행사들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하나 둘 모습을 선보였다. 강릉문화재야행을 비롯해 커피축제, 명주인형극제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성한 행사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p> <p>그리고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는 명주프리마켓이 열렸다.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시작된 강릉을 대표하는 프리마켓이다. 명주프리마켓은 일반 프리마켓과는 차별성이 있다. 바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프리마켓이기 때문이다. 명주프리마켓에서는 플라스틱과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포장만 허용하는 등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p> <p>이날 대도호부 관아 입구 양쪽에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홍보하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 시간 남짓 행사장에 머무는 동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강릉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홍보 부스에 참여했다. 테이블 위에는 박스를 재활용하여 만든 키워드판이 몇 개 놓여 있었다. 관계자분은 '물티슈'라고 쓰여있는 판을 하나 골라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내 물티슈가 종이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질문했다. 나는 주부인지라 원료가 플라스틱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티슈 한 장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0년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순간 집 식탁 위에 놓여있는 물티슈가 생각났다. 내 몸에 뿌리내린 플라스틱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선 바뀌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p> <p>반대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홍보 부스 중앙에는 사진에 보이는 홍보물이 놓여 있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는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가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s를 달성하기로 결의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이행과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 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K-SDGs를 수립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단연 '기후위기'다.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인 탄소중립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p> <p>풍성한 계절인 가을처럼, 여러 사람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 우리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조상의 지혜를 잘 안다. 환경을 생각하는 명주프리마켓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p>					



SNS  
아이디

블로그 [ghddmstlf7575](#)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6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세계문화 체험 프로그램					
기사내용	<p>2022년 10월 12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릉시가족센터에서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Road to world culture '세계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멕시코,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체험도 해보는 시간으로 이날의 주제는 '미국'이었다.</p> <p>강사분은 저번 시간에 이어 5대양 6대주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6대 주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와 그 나라가 생겨난 배경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미국 국기인 성조기와 화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독립선언서, 자유의 여신상, 독수리, 러시모어산, 햄버거 등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다른 그림 찾기'로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이어서 추수감사절, 할로윈 축제의 기원과 유령분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미국은 할로윈 축제 때 아이들이 유령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얻는다고 한다. 이때 '간식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라는 의미의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을 외쳐야 한다고 한다. 100번 듣느니 한번 해보는 게 낫다고 강사분은 어른에겐 사탕을, 아이들에겐 사탕 가방을 나눠주었다. 순간 공부로 흠어졌던 아이들에게서 초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탕 가방을 금세 채워나갔다.</p> <p>다음은 할로윈 케이크를 만드는 시간!          집중하는 분위기를 몰아서 강사분은 할로윈 케이크 만드는 순서를 설명하였다. 먼저 컵케이크를 가로로 한두 번 자른 다음 잘게 다진 오레오를 컵케이크 사이사이에 채워 넣고 생크림으로 뒤덮는다. 그다음은 뜨거운 물에 녹인 초콜릿으로 마시멜로와 과자에 그림을 그린 후 컵케이크를 장식하여 완성하면 끝이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정성스레 케이크를 만들었다. 손에 묻거나 망친 건 입으로 넣어가면서 즐겁게 케이크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떤 아빠는 아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수준 높은 완성작을 만들어 내셨다. 그렇게 가족마다 멋진 할로윈 케이크가 완성됐다.</p> <p>이날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긴 미국도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 말이다. 참가한 아이들 모두에게 엄마, 아빠와의 행복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세계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 주 마지막 수업을 남기고 있</p>					

다.



SNS  
아이디

블로그 ghddmstlf7575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7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제15회 헬로우 세계를 다(多)담다 “부루마블 세계여행”					
기사내용	<p>강릉시 가족센터는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제 15회 헬로우 세계를 다(多)담다 "부루마블 세계여행"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민과 외국인, 다문화 가족이 함께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자리로 마련되었다.</p> <p>행사장을 들어서면서 "다가가면 친구되고 문을 열면 이웃되고 화합하면 하나 돼요"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의 작품인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포스터들이 눈에 띄었다. 대한민국은 다 다르지만 다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다.</p> <p>다음은 강릉시 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 판넬이 쭉욱 이어져 있었다. 강릉시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부모교육, 자녀교육, 공동육아, 이중언어, 상담지원, 통번역지원, 1인 가구 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p> <p>'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반대편에 조성된 먹거리 부스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기자는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 완자를 얹은 베트남 쌀국수 요리인 '분짜'와 바게트를 반으로 가르고 속 재료를 넣어 만든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 중국식 페스츰리인 '소고기전병'을 주문했다. 강릉 시내 한복판에서 먹어보는 다른 나라 음식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국적이었다. 개인적으로 다진 소고기와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지고 만두피와는 다르게 여러 겹으로 되어있는 '소고기전병'이 인상적이었다. 숯불 맛이 은은하게 나는 '분짜'는 건강에도 좋고 든든한 끼니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미'는 배가 너무 불러 억지로 입에 넣어 아쉬웠다. 어찌 됐든 든든한? 체력으로 무장하고 본격적인 전통놀이 체험에 들어갔다.</p> <p>세계 전통놀이 부스는 잭스톤(필리핀), 팔각건(중국), 구슬치기(한국), 하네츠키(일본), 새팍타크(태국), 사방치기(한국), 짐바놀이(아프리카), 세계의상 퍼즐게임, 세계수도 퍼즐게임 등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돼 있었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모든 놀이에 도전해 봤다. 과거로 돌아간 듯한 체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 있었다. 각이 8개의 수건이라는 뜻을 가진 중국의 '팔각건'은 천을 펼쳐 돌리는 놀이로 손가락의 힘도 중요하지만, 여느 놀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됐다. 가장 힘들었던 우리나라의 '사방치기'는 3번을 연속으로 돌아야 했는데 하고 나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마지막으로 반으로 자른 대나무를 연결해 탁구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도착지점까지 굴리는 놀이인 아프리카의 '짐바놀이'는 우리나라 전래놀이인 '눈에 물대기'와 비슷했다. 언제나처럼 협동놀이는 끝나고 나면 감동이 있다. 처음 만난 우리는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하나가 됐다.</p>					

그 밖에도 행사장에서는 합창과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시간마다 펼쳐졌다. 이날 각국의 전통놀이는 놀이 방법과 재료 등에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많았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시대라고 말하지만, 과거에도 어찌면 세계는 하나로 통하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세계를 다(多)담다'라는 문구처럼 대한민국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나부터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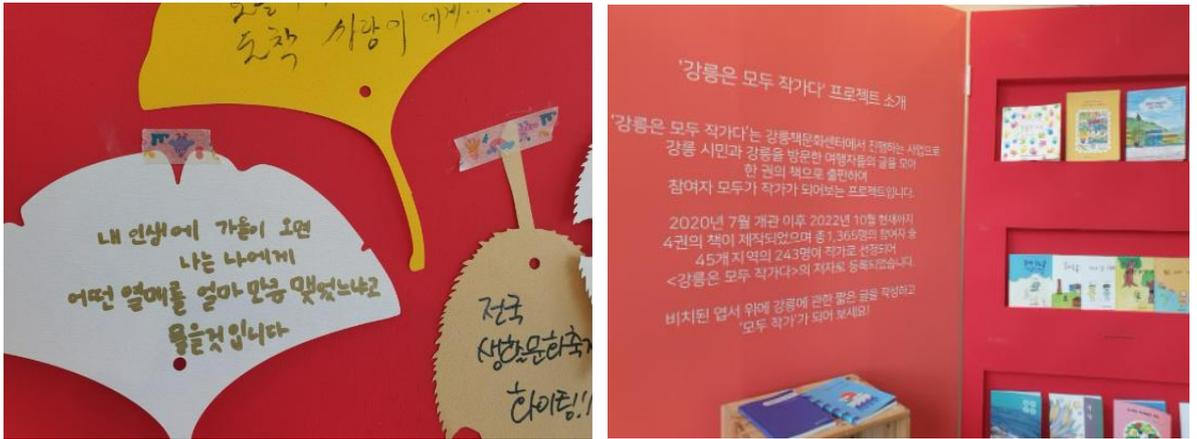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8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가족센터-슬기로운기자생활기자단] 2022 강릉전국생활문화축제 '일상 이:지'					
기사내용	<p>2022년 강릉의 10월 마지막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을 가봤다.</p> <p>강릉에서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명주예술마당과 명주동 일원에서 전국생활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되어 전국의 생활문화 동아리와 생활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이번 축제는 '문화로 잇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주제와 '일상 이:지'라는 슬로건으로 다채롭게 진행되며, 생활문화란 우리에게 일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p> <p>이번 행사는 총 4개의 테마로 생활문화인들이 직접 만나서 교류하는 '만남 이:지', 생활문화인들의 생활예술을 보여주는 공연과 전시인 '시작 이:지', 지역생활인들의 일상을 골목에서 보여주는 '골목 이:지', 온라인에서의 만남 '랜선 이: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p> <div data-bbox="592 1055 1179 1554" data-label="Image"> </div> <p>명주예술마당 1층에서는 강릉 생활문화인들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바닥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4가지 색 띠가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문화는 캔버스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보, 일상, 대화, 물건 등에도 흐른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와 잠시 걸음을 멈췄다.</p> <p style="text-align: center;"> <b>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b>  <b>나는 나에게</b>  <b>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b>  <b>물을 것입니다</b> </p>					

## '가을에 붙이는 편지' 중에서

지금의 계절이기도 한 가을에서는 각자의 사연을 써보는 '가을에 붙이는 편지'와 '강릉은 모두 작가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코너가 눈에 띄었다. 강릉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강릉시민들의 삶과 일상을 담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명주예술마당 야외무대에서는 생활예술인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으며, 무대 양 끝으로 전국에서 온 생활문화 동아리들의 작품 전시와 체험코너가 마련돼 있었다. 공연은 흐린 날씨로 쌀쌀한 명주예술마당에 따스한 불씨가 되었다. 특히 강릉 두우레 난타님의 공연은 텅 비어있던 스테이지를 순식간에 사람들로 채워 넣었다. 부스를 운영 중이던 동아리 관계자들과 다른 공연 팀들까지 흥으로 들쭉이는 시간이 되었다. 제일 많은 인파를 몰고 온 청소년 댄스동아리팀의 경연은 열정적인 댄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톡톡 튀는 멘트로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줬다.



전국에서 모인 생활문화 동아리들은 각자만의 일상을 보여줬다. 진안의 지구로운 팀은 동아리 이름처럼 풀로 만든 생활재와 토종씨앗 등을 전시하고 함께 한 일상들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당신이 멋진인생, 명품인생의 주인공입니다'라고 쓰여있는 플랭카드가 인상적인 제주 마을이음 팀은 양말목 동백꽃과 솔방울 브로치 만들기로 성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원주그림책연구소 팀은 그림책과 원화 전시 및 정기적으로 회원들의 작품을 엮어 만든 책들을 소개했다. 이날은 마침 그림책 <삐약, 나 골랐단 말이야>를 쓰고 그린 김성규 작가가 자리를 빛내고 있어 그림책 작가의 일상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림책을 읽고 토론과 책놀이를 공부하는 강릉의 라라북 팀은 그림책과 함께한 바닷가 풍경을 담은 사진과 일상에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전시하고,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생활문화 동아리들의 체험은 스탬프 투어로 이어졌다.



강릉 명주예술마당에서 펼쳐진 2022 전국생활문화축제는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축제였다. 오늘이 마지막 행사 날이다. 또 다른 일상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끝이 아닌 마무리를 해야겠다.



SNS  
아이디

블로그 ghddmstlf7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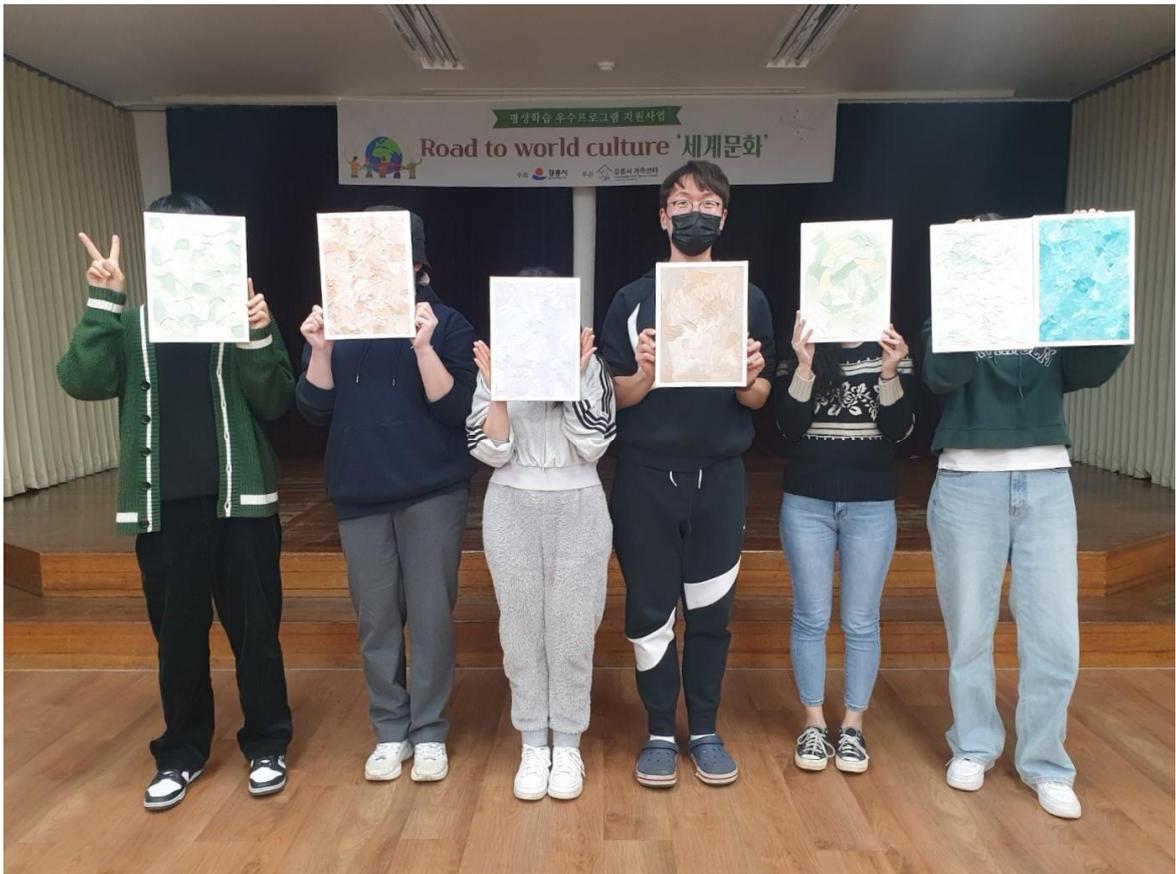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9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가족센터-슬기로운기자생활기자단] 1거양득-나를 위한 시간 아트테라피					
기사내용	<p>대한민국은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다. 1인 가구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기러기 아빠, 독거노인 등 연령대가 매우 폭넓다는 게 특징이다. 2~30년 뒤엔 1인 가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쩌면 핵가족이란 말도 대가족만큼이나 빠르게 옛말이 될지도 모르겠다.</p> <p>강릉시 가족센터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가족공예, 도자기공예, 디저트 만들기 등 다양한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2년 11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1거양득-나를 위한 시간 아트테라피’를 함서운 강사분이 진행하였다. 아트테라피는 미술을 통해 심리적인 치유를 얻고자 하는 분야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로 디지털 세대답게 주변 사람들이나 카페, SNS 등을 보고 참여하였다고 한다.</p> <p>첫째 날, 강사분은 직접 그린 샘플을 앞에 전시해 놓았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캔버스에 푸른 바다가 그려져 있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만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가로질러 붙여놓은 빈 캔버스와 아크릴 물감, 여러 가지 그림 도구가 놓여 있었다. 먼저 강사분은 아크릴 페인팅에 대해 설명했다. 수채화 물감과 유화와는 다른 부분을 말하면서 아크릴 물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다. 마스킹 테이프가 붙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두 가지 물감을 빠르게 칠해나갔다. 사람들은 곧바로 강사분을 따라 각자의 캔버스 위를 물감으로 채워나갔다.</p> <p>강사분은 사람들의 붓 터치가 산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물감의 양은 많게’, ‘물의 양은 최소한으로’, ‘진한 부분을 어디까지 칠할지 정하면서 그라데이션 하게 칠하라’는 등 모두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역시나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두께감을 주는 재료와 아크릴 물감을 혼합하여 나이프를 이용해 파도와 구름을 표현하여 완성했다.</p> <p>둘째 날, 테이블 위에는 어제보다 3배 정도 큰 캔버스와 나이프, 백붓, 아크릴물감 등이 놓여 있었다. 강사분은 두께감을 주는 재료와 원하는 물감 세 가지 정도를 혼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방법은 혼합한 물감을 나이프로 떠서 캔버스에 터치해 나가는데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게 포인트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 행복한 감탄사가 새어 나왔다. 파스텔톤의 색감은 평온한 마음을 주었고, 어제보다 좀 더 자유로운 붓 터치에 영혼까지 힐링이 되는 느낌을</p>					

받았다.

다 칠한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작품을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틀 만에 서로 마주 보고 웃음꽃을 피우다니 그림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물감이 어느 정도 말라갔을 때 펠로 포인트를 주고, 모두 강단 앞에 나와 추억의 사진 한 컷을 찍었다. 비록 캔버스 뒤에 가려진 청년들의 모습이지만 그 자체로 많이 아름다웠다. 기자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가족센터에서 종종 보자는 인사로 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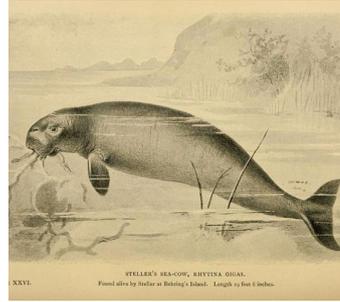


SNS  
아이디

블로그 ghddmstlf7575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10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가족센터-슬기로운기자생활기자단] 이민희 작가가 말하는 존재의 인정					
기사내용	<p>2022년 11월 어느 날, 이민희 작가를 zoom으로 만났다. 아는 분의 소개로 운 좋게 강의를 듣게 됐다. 작가의 첫인상은 기자와 비슷한 또래인 듯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에서 그림책 작가답게 순수한 무엇을 풍기는 듯했다. 작가는 &lt;라이카는 말했다&gt;, &lt;옛날에는 돼지들이 아주 똑똑했어요&gt;, &lt;바스카 바스카&gt; 등 동물을 소재로 한 그림책을 많이 냈다. 자신이 만든 그림책들이 '나만의 별이 됐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림책들을 소개했다.</p> <p>작가는 먼저 그림책 &lt;라이카는 말했다&gt;를 소개했다. 주인공 라이카는 러시아의 영웅이자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보다도 실제로 4년 먼저 우주에 간 실험 강아지의 이름이다. 1957년 11월 어느 날, 모스크바의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던 강아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둥근 쇠덩어리에 갇힌 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난다. 그로부터 4년 후 '지구는 푸른 빛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유리 가가린이 탄생한다. 작가는 영웅의 그림자 뒤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라이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림책을 그렸다. 작가는 마지막 문장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희망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흘러나오고, 그렇게 기적을 넣기로 했으며, 해결했다는 기쁨을 만끽했다고 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data-bbox="422 1205 817 1489"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85 1205 1264 1489" data-label="Image">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출처:space.com</p> <p>또 다른 그림책으로는 최근 작품인 &lt;바스카 바스카&gt;를 소개했다. 닥터지바고에 나오는 '라라'를 주인공의 이름으로 7년 후 붙여주고, '날개 달린 고양이'라는 황당한 기사를 수집해 놓았다가 이를 바탕으로 만든 그림책은 상상 그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그러나 날개 달린 고양이를 달의 호수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풀어낸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이 아름다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줬다. 뿔 때문에 멸종된 동물, 서식지 파괴로 멸종된 동물, 너무 맛있어서 20여 년 만에 멸종된 동물 등 인간들에 의해 멸종된 동물의 등장은 자신들을 인정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p>					



멸종된 스텔라바다소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의 문명이 과연 인간들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고 있는 것일까? 작가는 과학자를 동경해 그와 관련된 대학을 나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눈부신 문명의 발달이 가져다준 이면을 보면서 인간들이 버려야 할 것들과 인정해야 할 존재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이 사람들만은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인정해야 할 존재들은 무엇일까?

SNS  
아이디

블로그 ghddmstlf7575

# 슬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11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가족센터-슬기로운기자생활기자단] 비밀의 정원 업사이클링 워크숍					
기사내용	<p>2022년 12월 11일 강릉 소집 갤러리 최정라 작가의 &lt;비밀의 정원 업사이클링 워크숍&gt;에 다녀왔다. 감자옹심이가 유명한 병산마을에 있는 소집 갤러리는 이름 그대로 과거 소가 살던 곳이다. 2019년 문을 연 이후 꾸준히 작품 전시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벌써 이번이 39번째 전시회다.</p> <p>이날 소집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그려진 작품과 천에 수를 놓아 만든 작품, 비즈로 꾸민 작품 등 작가의 감성이 잘 묻어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최정라 작가는 꽃이 좋아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옥계로 내려와 정원을 가꾸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지 1년 동안은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했지만, 꽃을 보고 있으면 그러한 생각을 잊게 된다고 말했다.</p> <p>워크숍에는 강릉뿐만이 아니라 원주에서부터 참석하기 위해 오신 부부 한 쌍도 있었다. 부부는 업사이클링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일찍 강릉 바다도 구경하고 처음으로 의미있는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의 상위개념으로 우리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새활용'이다.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것들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은 호텔에서 버려지는 침구류를 크리스마스트리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했다.</p> <div data-bbox="389 1285 847 1630"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863 1285 1331 1630" data-label="Image"> </div> <p>작가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전시관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누군가가 '숲'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그녀에게 있어서는 '숲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관'이라고 했다. 그녀는 다리 밑에서 본 풍경, 꽃들이 흩어져 있는 풍경, 빨래를 늘어놓은 모습 등 오늘도 어딘가에서 볼 수 있는 듯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p>					

어느새 우리 앞에 물감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가는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며 나만의 나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각자 자신이 그리고 싶은 모양을 옅은 물감으로 그린 후 거기에 2~3가지 색을 채워 넣었다. 신기하게도 모두 다른 색, 다른 모양으로 나무를 만들었다. 역시나 우리는 모두 다르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업사이클링 트리만들기’다. 작가는 세모 모양의 하얀 천을 나눠주었다. 호텔이나 리조트 침대에서 봤던 새하얀 천이었다. 우리는 천 구멍에 솜을 채워 넣어 입체적으로 만들고, 벌어진 곳을 나무 조각으로 막아 틈새를 바느질하기 시작했다. 강사는 보통 사람들이 바느질을 힘들어해서 글루건으로 작업하는데 모두가 바늘을 손에 든 걸 보고 신기해했다. 나무와 천 사이에 틈이 없도록 꼼꼼히 꿰매고, 털실과 구슬 등 여러 재료를 이용해서 트리의 느낌이 나게 꾸몄다. 잠깐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한 시간을 훌쩍 넘겨 트리를 완성해 냈다.

이번 업사이클링의 도전은 험한 것이 다른 무엇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배운 시간이었으며, 서로에게서 다름을 배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우리는 모두 다르며,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SNS  
아이디

블로그 ghddmstlf7575

# 즐거로운 기자생활 기자단 기사 작성안

구분	성명	홍은실	기사작성 회차	12	기사게시 방법	블로그
주제	[강릉시가족센터-즐거로운기자생활기자단] 필리핀 크리스마스 파티를 체험하며					
기사내용	<p>토요일 오후 강릉 시내 한복판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다. 소리를 따라서 건물 계단을 올라가 보니 누군가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 지휘하고, 모두가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합창을 한다. 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필리핀의 국가로, 2022년 12월 11일 오후 2시 가족센터에서는 필리핀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필리핀의 성탄절은 9월부터 준비에 들어가 12월까지 행사가 이어지는 가장 큰 축제이자 명절이다.</p>  <p>강릉은 70여 가구 정도 되는 필리핀 결혼이민자 가족이 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30~40여 가구가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참석했다. 때마침 기자가 방문했을 때 필리핀의 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2부 행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행사의 오프닝은 S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남학생이 맡았다. 몸집이 건장한 남학생은 아이브의 노래에 맞춰 멋지게 춤을 췄다. 엄마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남학생을 향해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나중에 학생과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연습은 춤이 쉬워 별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은 춤추는 DNA가 흐르는 것인지 재능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잠시 무대를 정비하고 팀 대항전을 하기 위해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다.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풍선 전달하기 게임을 몸소 설명했다. 자녀들의 게임이 끝나고, 비장한 각오를 한 엄마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시작과 동시에 순식간에 벌어진 게임은 무대 뒤까지 열기가 전달되었다. 게임 중간에 어린 자녀가 앞으로 뛰어가는 엄마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p>  					

게임이 끝난 후 한 타임 쉬어가는 의미에서 간식 타임을 가졌다. 축제답게 필리핀 음식뿐만 아니라 많은 음식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어디선가 “선생님도 같이 드세요”라는 반가운 소리가 들렸다. 기자는 빈 용기에 필리핀 음식들을 담았다. 우리나라의 떡과 흡사한 고친타, 옥수수가루와 코코넛을 첨가한 디저트 마하블랑카, 잡채와 비슷한 판싯, 과일빙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빌로빌로 등 다양한 필리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다.



다음은 댄스 타임이다. 춤에 일가견이 있는 엄마들을 비롯해 오프닝을 장식한 남학생, 엄마와 자녀팀 등 사람들은 음악에 몸을 맡겼다. 때로는 섹시하게, 때로는 깜찍하게, 때로는 사랑스럽게 몸을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행복이고, 이런 게 바로 세상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맘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문화를 즐기는 모습은 절대 이국적이지 않았다. 두 시간여 동안 필리핀 문화를 한껏 즐긴 후 밖으로 나와서 마주한 시내 거리풍경은 아름다우면서도 애잔한 모습이었다.

세상 공부를 시켜준 강릉시 가족센터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